

나해 대림 제1주일

마르 13,33-37

깨어 있으라!

옛날에 리차드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자였을 때 갓 난 불쌍한 여자 아이가 버려져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워낙 착한 분이였기 때문에 그녀를 집으로 데려와 양녀로 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처녀가 되자 리차드는 이 여자와 결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왕자이기 때문에 결혼 전에 왕위를 물려 받기위하여 멀리 떠나야만 하였습니다.

왕자는 떠나기 전에 이 처녀에게 “당신을 내 신부감으로 결정하였으니 내가 없는 동안 나의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부탁하오. 내가 돌아 올 때 까지 이 재산을 관리하여 재산을 불리도록 하시오. 내가 언제 돌아올지 그 날은 알 수 없소. 그러나 나는 당신과 결혼식을 올리기 위하여 꼭 돌아올 것을 약속하오. 당신은 왕후가 될 것이오. 나는 오직 당신의 충성심만을 믿고 떠나니 항상 날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오. 당신을 사랑하오. 꼭 돌아오리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을 맺을지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세요.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비극으로 끝날 것인지, 또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마무리 될 것인지 역시 여러분들께 달렸습니다.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으신 하느님은 확실히 당신의 말씀에 충실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과연 우리에게 충성심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교회는 대림 첫 주일에 모든 신자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마르 13,35-37 참조).

오늘부터 주님의 탄생을 바라보며 길을 떠날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은 예수님 안에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 만나 하나가 되는 날이며,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온 왕자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왕위에 임명을 받아야 하며 하느님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약혼자이시고 동시에 모든 영혼의 약혼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혼인식을 위하여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를 유추(類推)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의 때, 각자가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는 때이며 마침내 일치의 때가 될 것입니다.

1.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보다 기다림입니다.

대림 시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은 언제나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아기를 기다리고 학교, 자격증, 직업, 결혼, 살림집, 퇴직, 노년, 그리고 죽음을 기다립니다. 노인이 무덤만을 기다린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슬픔일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마치 군대의 기상 나팔소리처럼 우리를 깨워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성탄입니다. 죽음은 당신 약혼녀에게 썸을 묻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며 왕자님과 약혼녀가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 약혼녀는 왕후가 됩니다.

“저기 신랑이 오신다. 어서들 마중 나가라”(마태 25,6) 하는 소리에 졸고 있던 처녀들은 그제야 일어나 영원한 축제를 준비하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불행입니다. 자기가 한 약속과 서원을 저버리고 다른 애인을 찾아가 충성심을 저버린 이들은 불행합니다. 도망치고자 하는 여인들, 세속에 빠져 약에 취해 신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들은 불행합니다. 이 대림 시기에 깨어 있으십시오(35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러니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 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2.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다림이며 중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때입니다.

어떤 이들은 움직이지도 않고 활동도 하지 않으며 “기다림에 지쳤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인을 기다리는 동안 그분의 재산을 증식시켜야 합니다. 게으른 종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그는 자기 생을 낭비하였으므로 다 잃고 말았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멀리 가시고 안계시다면 우리가 그분의 몫까지 일해야 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요한 16,7).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가끔 침묵을 지키시는 까닭은 사람들이 당신 아들의 말씀을 더 잘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활동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자로를 부활시키기 전에 예수님은 “낮은 열두 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낮에 걸어다니는 사람은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요한 11,9)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에는 빛이 없어서 일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시간, 나의 육체, 나의 재능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해가 있는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는 아무도 일 할 수가 없다”(요한 9,4)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짧으니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게으름 부린 모든 시간은 영원한 손실입니다.

3. 기다림과 활동의 시기 후에는 일치의 때입니다.

주님의 날 성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결혼식 날이며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이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대림은 혼배 공시의 때, 혼배 준비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함께 공시장을 써 봅시다. 신랑은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우주의 왕이십니다. 신부는 여러분 각자이니 이름을 기록 하십시오. 우리 각자가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한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대림시기 동안 결혼 예복을 준비합시다. 만일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결혼식장에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곳 성당에 있지만 내일은 하늘 나라에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친구인 여러분은 그분이 다시 돌아올 날을 알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참으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이 바로 오늘, 지금 오십니다. 이 미사 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결혼축제입니다. 이 말은 참으로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마태 6,34). 현재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성체를 모십시오. 여러분! 오늘의 성서 맨 끝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신랑인 예수님이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마르 13,36)고 하십니다. 주님은 곧 돌아오십니다. 신부인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즉시

“아멘, 오소서 주 예수님!” 하고 응답합니다.

대림 제2주일 (1970년)

복음 : 마르 1,1-8 1독서 : 이사 40,1-5.9-11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성서에서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질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고 회개를 설교할 때 예수님도 30살 정도의 비슷한 나이였고 이 두 분의 사건은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으며 서로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니 회개하여 우리 영혼을 준비하자”고 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 전에 세례자 요한이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그래서 교회는 대림시기 동안 세례자 요한에 대한 말을 많이 합니다.

성스러운 얼굴과 가난한 옷차림, 그의 마음을 불사르는 열정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여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왔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너무나 감동하여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마르 1,8) 라고 예수님을 증거 하였습니다.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는 선한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주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요한은 “독사의 족속들이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마태 3,7-8) 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선하고 단순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답변을 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군중과 세리와 군인,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군중에게는 사랑의 실천을, 세리들에게는 정의의 실천을, 군인들에게는 온유함을 권고하십니다. 이 세 가지 권고를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많은 군중 가운데에는 요한의 설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선조들이 하느님을 배반할 때마다 그들을 벌하신 하느님을 기억하고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은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루가 3,11)고 대답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돈을 너무 좋아하는 민족으로 오늘 날에도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그들은 동족들과 하느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여러분들이 하느님과 일치하기를 원한다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라고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돈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수도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도자가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면 그것이 참다운 수도자의 길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상하게도 돈을 너무 쫓는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것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느님과 이웃에게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돈에 관심을 적게 갖는 사람이 오히려 부자가 되는 것은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다가가고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여 정당한 대가를 얻기 때문입니다.

성가회 규칙서에 각 분원에 수녀들 수만큼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메씨아를 원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요한의 말을 반복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리시이파 사람이나 위선자 밖에 안 된다면 아무 것도 주지 않을뿐더러 순명서원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고집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거나 모든 사람이 당신 원하는 대로 따르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난하셨습니다.

2. 세리들도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위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그들을 몹시 증오했습니다. 열성과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조차 동족을 파는 행위로 단죄했는데 하물며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세리들은 마치 파문된 사람들처럼 취급되었고 더구나 세금을 더 받아내어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도 있었으므로 그들의 명성은 최악이었습니다.

많은 감동을 불러일으킨 세례자 요한의 설교는 이러한 세리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들도 그의 발아래 엎드려 세례를 청하며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요한은 자비심을 갖고 그들을 받아들이며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정해진 것 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루카 3,13).

여러분은 정의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의 빵을 스스로 벌어들입니까? 우리가 받은 애공을 정직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들끼리 서로 중상하지는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십니까? 어리석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3. 군인들도 그들의 잘못을 용서 받기 위하여 요한에게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인들은 난폭하고 정결을 거슬러 죄를 범하고 서로 잘 싸웁니다. 이들도 요한의 설교에 감동하여 어떻게 해야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는지 겸손하게 청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루카 3,14)고 일러주며 그들이 잘 준비된 것을 보시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온유합니까? 여러분들도 군인들처럼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언어폭력으로 상처주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생각에 있어 순수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의 모든 나쁜 점을 고치고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온유는 그리스도와 어린양의 덕행으로 성내는 것 보다 훨씬 강합니다. 온유는 성모 마리아의 덕행으로 여성들이 지녀야 할 덕목입니다. 아름다운 온유의 덕행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행복하여라.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마태 5,5) 하셨습니다. 언어에 있어 친절과 예의를 갖추어 말해야 합니다.

수녀님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내림을 준비하고 싶다면 세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애덕 실천과 정의의 실천과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이 세 가지

덕행은 성가소비녀들이 지켜야 할 덕행입니다. 이 덕(德)들을 실천하면 기쁨의 삶을 살 것이라고 오늘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림 제2주일

복음 : 마르 1,1-8 1독서 : 이사 40,1-5.9-11

오늘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서를 읽었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에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이사 40,3-5).

복음에서도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마르 1,3)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이 하고자 결정하신 것은 항상 실천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께서 지체하신다고 불평을 하지요. 이렇게 너무 서두르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둘째 서간에서 “주님께서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2베드 3,9) 라고 설명합니다. 그분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으므로 우리 모두의 구원을 기다리시고 모두가 회개하여 구원을 얻기까지 시간을 끌지만 어느 날 도둑처럼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의례적으로 임금이나 대통령이 어느 도시를 방문할 때면 미리 길을 정리하고 깨끗한 도시를 보여주기 위해 준비하느라 주민들 모두가 노동자처럼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이사야 예언자에게 다음은 세례자 요한에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당신이 오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굽은 데는 곧아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굽은 데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루카 3,4-6).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고 고치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의 이기주의의 골짜기를 메우고, 우리를 하느님과 이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계곡을 메우고, 우리의 교만 즉 거짓과 부정과 위선의 산을 깎아 낮추고, 우리 마음의 굽어진 길을 곧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세례자 요한은 요르단강가에서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 설교를 하였습니다.

요한은 많은 고행을 하고 그의 옷은 낙타 가죽이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 꿀이었고 그의 얼굴은 말라 초췌한 모습으로 성인의 빛을 풍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그의 설교를 들으러 모여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세 가지, 나눔과 정의와 온유를 권고하십니다.

1. 나눔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루가 3,11).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한은 많은 고행을 하고 스스로 가난하였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는 것은 하느님 나라 준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나눔의 정신이 없다면 하느님 나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면에서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말하며 걱정하는데 이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수도자인 여러분은 나눔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기주의는 나눔 정신과 반대됩니다. 수녀들 간에, 우리 동족들 간에, 이교인들에게 까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찾기 위하여 방문하는 수고도 하셔야 합니다.

2. 정의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세리들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루카 3,13) 하고 일렸습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의를 실천합시다. 부채가 있으면 갚고 채무자는 지나치게 요구하지 말며 판단하거나 비난하지도 말고 누구에게도 험로 해를 입히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을 선택하였습니까? 하느님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들이 서원한 가난을 잘 실천하고 불의를 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에 들어온 돈은 하느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느님과 여러분들의 양심에 따라 돈을 써야 할 것입니다.

3. 은유

이제 요한은 은유를 권고 합니다. 군인들이 요한에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루카 3,14)고 일러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도들에게 “나는 마음이 은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워라”하고 가르치셨고 진복 선언 중에서 은유를 축복하시어 “행복하여라. 은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성격이 난폭하지는 않습니까? 말로써 동료들의 마음에 자주 상처주지 않는지요? 하느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회개했다는 표시로 죄인은 물속에 들어가 세례를 받기를 요구했지만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이 변화되고자 하는 결심의 표시로써 고백성사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도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마태 17,5).

대림 제3주일

요한 1,6-8.19-28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유대인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던진 질문이지만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

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말하자면 당신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세상에 왔습니까? 이 질문들은 우리 삶을 이끄는 규범이 되어야 할 철학이며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신자인 우리들은 이 질문에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교도들은 이런 질문에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알지도 못합니다만 사실 그 질문의 답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 집니다.

1.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지금으로부터 백 년 전에는 우리 중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애당초 무(無)였으나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有)로 창조하시어 지금 우리는 아름다운 몸과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만 눈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각과 청각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롭고 귀찮습니까? 누구에 의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연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이 성당이나 시계가 우연히 만들어 졌다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무어라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말이지요. 여러분의 부모들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육신을 낳아주었지만 영혼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부모들 자신도 어떻게 존재하였으며 그들이 갖고 있는 귀한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분 홀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 각자를 유일하게 창조하셨고 수많은 다른 것을 창조하실 수 있었지만 그분이 원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며 당신 모습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매순간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Action de grace) 드려야 하겠습니까?

2.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것이기에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분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그분의 구속행위로 값을 치루고 우리를 다시 사셨으니 우리는 거듭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이시니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들을 주시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병을 보내시거나 여러 가지 근심걱정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분만이 그 이유를 아시니 불평 없이 받아들입니다.

3. 누구를 위하여 세상에 났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착한 종은 주인을 섬깁니다. 이 종이 주인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은 헛되고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물 각 개체를 목적을 두고 만드셨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은 지구를 밝히고 열을

주기 위하여, 나무들은 숲을 이루고, 동물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하여...

하느님은 인간을 재물과 명예와 쾌락을 위하여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숭고한 것을 위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원히 지복 직관하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 점은 기도입니다. 사람은 기도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별로 관심이 없음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근원(根源)에 대해, 그리고 존재의 목적에 대해 기억하면서 현명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이 하느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느님께 돌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큰 영광과 행복입니까?

대림 제3주일 (1972년)

복음 : 요한 1,6-8.19-28

예수님의 현존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한분이 당신들 가운데 서계십니다.”

예수님이 탄생 하셨을 때 몇 몇 목동을 제외하고는 유대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30 세 이후에야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런 유대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훨씬 후에야 그들은 직접 예수님의 훌륭한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의 놀라운 가르침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귀를 막은 그들은 예수님을 뽀박하고는 결국 십자가형에 처할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유대인들뿐이었을까요?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현재도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 보다 주님의 은혜를 훨씬 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보다는 항상 나 자신을 바라봅시다.

1.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했는데 그러면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은 여기 미아리 우리 수녀원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존하십니다.

가) 주님은 교회 안에 현존하십니다.

바로 사도는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교황님 안에 현존하시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어 특별히 사죄권과 교회를 다스릴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 주교님들을 보내 주신 분도 교황님이시고 나를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의 회헌을 승인하신 분도 교황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총장을 임명하신 분도 교황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주교님들은 교황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기가 끝나는 날까지 나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 예수님은 성서 안에 현존하십니다.

복음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성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오리게네스는 성서 말씀을 대할 때 성체께와 똑같은 존경을 드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바티칸 공의회 이후 말씀의 전례 부분이 성찬 전례 부분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다) 예수님은 또한 작은이들 안에 현존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어린이들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돕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안에 현존하십니다. “너희가 가장 작은이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마태 25,45).

라) 예수님은 또한 감실 안에 현존하십니다.

어디나 사제가 존재하는 곳에 예수님은 오십니다. 미사 중에 오시어 성체 안에 현존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자주 감실 안에 주님을 찾아뵙고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 사랑을 맛보십시오.

2.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곳 수녀원에도 계시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관심도 없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 계시고 주교님들, 사제들 안에 그리고 회헌 안에, 우리장상들 안에 계십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들을 피하고, 업신여기고, 비웃기 까지 합니다. 어린이도 집을 나갈 때 부모에게 인사하고 돌아와서 다시 인사드릴 줄 아는데, 사람들은 교회의 장상들, 수도회 장상들을 존경할 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서 안에 말씀으로 살아계시지만 사람들은 성서를 잘 읽지 않습니다. 일반 다른 서적들은 많이 사서 읽으면서 성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달리 말해서 하느님의 말씀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서에 흥미가 없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작은이들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들을 싫어하고 방문도 하지 않고 도와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의식도 없습니다.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들 모두를 도우라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도우면 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감실 안에 성체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쉽게 방문할 수 있고 하루에 잠깐씩 여러 번 찾아뵈울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되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체께 무관심하고 소홀하며 방문은 더욱 하지 않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들어봅시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분이 여러분 가운데 서계십니다”(요한 1,26b).

3.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체험하기 위한 조건은 순수한 영혼과 겸손과 사랑할 수 있는 영혼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다면 오늘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 급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으련만!

앞으로 더욱 교회를 존중하십시오.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나는 아버지 하느님을 믿으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을 믿으며, 그리고

즉시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교회는 우리 부모님보다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먼저 교회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느님의 이름으로 권한을 받은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순명하십시오. 교회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나의 영광이요, 행복이며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느님은 성서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서를 읽으십시오. 가능하다면 함께 읽고 읽은 후에 서로서로 느낀 점을 단순하게 나누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고 한 사람의 생각보다 여러 사람의 생각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현존하신다면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만일 여러분 성가회 소비녀들이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누가 돕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성소입니다. 그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준비하고 더욱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하여 서로 의논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이익을 위한 사업만 한다면 무슨 망신입니까? 나의 어머니는 자녀가 많았지만 해마다 성탄절에 가난한 아이 하나에게 필요한 옷을 준비하셨으며 성탄 날 가난한 가정을 초대하여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어떻든, 예수님은 지금 이곳 우리들의 집에 살고계십니다. 내가 방금 말한 대로 주님을 잠깐이라도 자주 방문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의 무관심을 보상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유대인들과 꼭 같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가 여러분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대림 제3주일

요한 1,6-8. 19-28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느 날 길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언제나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고민해 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족보를 들추어 말한다면 약간은 설명이 되겠지만 충분한 증명은 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 질문을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나는 세례자 요한이라 부르고 아버지는 사제 즈카르야이며 나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고 그들은 아임카임에 살고 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과 비교하여 메시아를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에게 그러면 당신이 우리가 오래 동안 기다려 온 그 메시아요? 하고 질문을 하자 요한은 겸손하고 솔직하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예언자도 아니요. 다만 물로 세례를 베풀 따름이요. 그런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분이 당신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이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몸이오(1,27).”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믿는 교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진리와 빛을 지녔으므로 사람들을 인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시하고 그들의 말을 듣기조차 싫어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그런 일들을 매일 접할 수 있는데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에 정치인들을 들을 수 있으며 이들은 종종 많은 민족들을 불행으로 몰고 갑니다. 가령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김일성과 같은 독재자들이 그렇습니다.

종교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가령 박태선 장로와 문선명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빛은 물론 아니고 빛을 증거하는 사람도 아니며 다만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격입니다. 그들은 “내가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예견하시고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장차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내세우며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떠들며 수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나타났다.’ 해도 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마태 24,4. 26) 하셨습니다.

이들의 확신에 찬 말을 믿지 마십시오. 이들은 세례자 요한의 겸손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그들의 가면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예언자는 요한과 같이 겸손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은 내 뒤에 오실 분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증거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언자들도 있습니다. 지식인들, 철학자들로서 예를 들면 칼 막스, 니체, 앙드레 지드, 프로이드, 샤르트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학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 동시에 악영향도 주었습니다. 이들의 이론이 훌륭하고 새로운 학문으로 부각되었지만 그 학문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면 정치체계에서 공산주의에 빠질 수 있고 성의 노예로 전락하여 불행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진리’ 한 가지만을 원합니다. 예수 아기의 테레사는 “내 생애에 나는 진리만을 찾았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폰시오 빌라도가 진리이신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오?”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진리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런 말로 진리를 설교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분이 당신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진리, 곧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분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만일 예수님이 여기, 나의 입장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생각하며 그분의 길을 찾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서는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마태 16,16-17)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당신 모습대로 창조하셨고 성세 때에 세례를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묻는다면 나는 하느님의 자녀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 외아들과 같은 이름을 갖고 있으며 그분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 하느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나도 하느님을 나의 아

버지라고 부르니 이런 명예가 또 있을까!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진리입니까?

유의하십시오!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면 하느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하며 다른 이들의 자매답게 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의 거짓말쟁이에 불과합니다. 만일 내가 하느님을 증거 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증거 할 뿐입니다. 세례자 요한과 같이 용기와 겸손이 있어야 두려움 없이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헤로데 앞에서 진리를 증언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은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적인 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권력과 돈과 당파와 성(性)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고통을 당할 지라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하는 세례자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 심판받으러 갈 때 사랑하올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고 질문하시고는 당신 스스로 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사랑전부”라고!

대림 제4주일

루가 1,26-38

예수 탄생 예고

“그때에 하느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시었다.”
오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가장 놀랄만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전능과 사랑을 드러내 보이신 말씀의 육화 사건입니다.

그때에 하느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1. 하느님께서 대천사 가브리엘을 특사로 보내셨다 2. 이 대천사는 마리아와 협상을 시도하였다 3. 마리아는 그 요청에 승낙하였다.

1. 탄생 예고의 날, 하느님은 이 세상에 천국의 특사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장엄한 천사가 대사의 자격으로 세상에 온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내신 분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사는 누구였습니까? “하느님의 힘”이란 뜻을 가진 가브리엘 대천사입니다. 하느님이 이 천사를 세 번 이 땅에 보내셨는데 다니엘과, 예언자 즈카르야와 그리고 마리아에게입니다.

가브리엘 대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신 이유는 사천년 전부터 인류가 원죄를 범한 이후 죽음과 어두움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느님은 당신 친 아들을 세상에 보내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느님의 아드님은 인간의 죄를 갚기 위해 인간의 조건을 취해야 했고 그래서 한 여인에게서 낳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 여인(하와)의 불순명으로 죽음과 저주가 이 세상을 지배 했으나 다른 한 여인(마리아)의 온순함으로 축복과 생명을 되찾게 됩니다.

이 축복을 받은 창조물은 누구입니까? 그는 권능을 가진 왕후가 아니고 다윗가문의 후손인 겸손한 동정녀 마리아, 오랜 세월 전부터 예언자들이 예언해온 분입니다.

성삼위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마리아에게 당신 어명을 전하시고 그 답을 얻기 위

해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엄숙한 순간입니까?

2. 천사가 마리아의 집 안으로 들어와 마리아에게 인사드립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천사로서 마리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하느님 자신이 이 인사를 명하셨으니 마리아의 답에 얼마나 숭고한 찬사를 드려야 마땅할지! 오늘날까지 창조물로서 이와 같은 인사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인사를 받은 마리아는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조심성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겸손하여 창조물 중에 가장 작은 여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였기에 천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안심시키며 제안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천사는 마리아가 미래에 가지게 될 품위, 곧 메씨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루카 1,30-33). 얼마나 높은 신분입니까?

마리아는 이 제안을 의심하지 않지만 동정의 허원을 한 상태이므로 천사에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천사는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너의 동정성은 잃지 않으리라는 것을 너도 잘 알고 있으리라. 오 마리아!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루카 1,37).

3. 마리아의 동의

하늘과 땅이 초초한 기다림의 순간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께서 마리아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그녀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육화는 하느님의 아들과 인성이 결혼하는 하나의 계약이므로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드디어 마리아는 답을 줍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1,38)” 이 얼마나 값지고 감탄스런 응답입니까! 마리아는 우리에게 겸손과 믿음과 순명의 덕을 가르쳐주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인류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봉헌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의 천사들은 육화 하시는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에게 영광을 드렸습니다.

수녀님들! 하느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드려야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영성체는 또 하나의 육화입니다. 우리가 모시는 성체는 마리아에게 육화되어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깨끗한 마음과 겸손, 사랑하는 마음을 하느님께 봉헌합시다. 마리아처럼 매일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반복하여 기도드립니다.

예수 성탄 대축일 (1981년)

복음 요한,1,1-25. 1,18-25

매년 성탄 대축일 복음에서 요한 사도의 지극한 위로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게 하느님의 사랑과 감사의 정을 일으켜 줍니다. 요한 세자의 이 말을 들어 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1,12).

1.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인간의 본질(Nature)로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종이며 더욱이 원죄 때문에 하느님과 반목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고 우리를 벌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셨는데도 불구하고 무한한 자비로 당신 종이 되기에 부족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 하느님 나라에 갈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육화(肉化) 강생(降生)과 엄청난 고통과 수난의 공로로 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에 얼마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2.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은혜는 우리에게 강제로 준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느님은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십니다.(요한 1,12) 여기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온순한 마음과 존경심을 갖고 들어야 하며 그 말씀에 찬동하고 그분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교회에 일원이 되어 복음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은총을 간직해야 합니다.

나) 주님 안에 믿음을 갖고 나의 주님으로 알아보며 그분의 가르침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따르며 나의 생명을 바칠 지라도 주님을 증거 해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하느님께로부터 났습니다.”(Omnis qui credit, quoniam Jesus est Christus, ex deo natus est)

다) 인간의 의지(意志)나 욕욕으로 낳음을 받아 인류에게 이러한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총과 하느님의 의지로 주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신자들이 모든 것 안에 하느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들은 참으로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3. 교황 레오께서 “오! 그리스도 신자들이여 여러분의 품위를 인식하십시오.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형제가 되어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 감히 이 숭고한 지위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씀 하셨습니다.

수녀님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느님의 딸들입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누이들이니 그분과 같은 감성을 지니십시오.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분이 미워하는 것은 미워하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또 다른 예수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분처럼 산다면 하늘의 상속자이니 예수님과 같은 감성을 보이십시오. 더럽혀진 사람은 누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인(聖人)으로서 완전하게 살아가십시오. “너희의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자 되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Filii dei nominemur et sumus)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재의 수요일 (1981년)

복음 : 마태 6,1-6.16-18 2독서 : 2고린 5,20-6,2

사순절로 들어서면서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2고린 6,2b).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두 가지 생명, 영혼의 생명과 육체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위해 우리는 장래를 생각합니다. 교육이 없는 내일의 직장과 성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식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사람들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거두어들입니다. 또한 저축을 하여 질병이나 노후를 대비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현명하고 칭찬할 만한 일이며 누구나 장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영혼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보다 훨씬 더 존귀하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서는 줌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흠쳐 가지도 못한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줌되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흠쳐가지도 못한다”(마태 6,20).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일까요? 사순절을 의미 있게 지키기 위해 애공을 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이 많은 공을 쌓아 죄를 용서받고 빛을 갖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이 상업적 정신을 버려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영혼의 장래에 대해 말하지 않고 다만 현재를, 지금을 강조합니다. 영혼에게는 미래가 없으며 다만 현재 뿐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하느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미래만 생각한다면 몽상가일 뿐입니다. 내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또한 과거는 과거일 뿐이며 하느님께 속하든지 마귀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래만 생각한다면 하느님은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네 영혼을 거두리라” 하실 겁니다.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며 하느님은 현재를 조금씩 짧게 주시어 빨리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성인(聖人)이 되는 길은 현재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목적은 우리의 회개입니다. 바보스럽게 “나는 내일 회개 할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은 헛됩니다. 솔로몬 왕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하였습니다.

지금 하느님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행복을 사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느님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미래만 생각합니다. 그들은 내일이 두려워 내일을 위해 수확을 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죽음만 기다릴 뿐입니다.

수녀님들! 이 사순절 동안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지나가 버릴 것을 욕심내지 마십시오.

내일은 하느님 외에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열빠진 사람처럼 살지 말고 매 순간 다음과 같이 청합시다. “오늘, 지금, 하느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까?” 오늘, 지금, 하느님의 충실한 자녀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십시오. 오늘, 지금 내 마음의 악마를 쫓아내기 위해 해야 할 일과 오늘, 지금, 이웃과 하느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이 사순절을 보낸다면 여러분은 현명하고 하느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순 제1주일(1979년)

복음: 마르 1,12-15

사순절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십일 동안 그들은 단식하신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교회는 엄한 법규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신자들은 이 법규들을 별로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 없는 일이라고까지 말하는가 하면 또 다른 상당수의 사람들은 좋은 법규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보고 도와주는 좋은 기회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금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보다는(인간의 생각이 항상 부족하니)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금식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살펴봅시다. 오늘 성서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십일 동안 단식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엄격하게 단식을 지키고 사람들에게도 지키도록 교육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틀림없이 고행과 단식을 지켰으며 당신 제자들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 마치 단식을 하지 않는다고 믿을 만큼 예수님 자신은 단식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며 당신이 단식하실 때는 남이 모르게 조심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단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하자 “혼인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 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마르 2,19-20)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려 하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중요한 교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화(肉化)는 인성(人性)과 신성(神性)의 결합으로 하나의 결혼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느님 아들,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신부는 모든 인류입니다. 구약성서에 보면 하느님께서 여러 번 인간과 결합하고자 시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사순시기 동안 매주 성경 안에서 하느님께서 인류와 결혼 계약을 시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 첫째 독서에서 노아와의 계약을, 다음 주일에는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3번째 주일에는 모세와 계약을 맺으시고, 4번째 주일에는 일시적으로 파혼을 하게 됩니다. 다섯째 주일은 하느님께서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고 이 계약은 성공하게 됩니다. 여하튼 성주간 동안 새로운, 그리고 결정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데 이 기쁨 중에 어떻게 보속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랑이신 하느님께서 신부인 인

류에게 애정과 사랑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성서에서 하느님은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인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생각은 얼마나 섬세하고 위대하십니까?

2. 사순절 동안 구약의 방식을 따른다면 얼마간의 보속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주 단식은 하였으나 항상 같은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여러 번 하느님은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불만을 터트리셨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 단식 일에 제 일만 찾고 너희 일꾼들을 다그친다. 보라, 너희는 단식한다면서 다투고 싸우며 못된 주먹질이나 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단식이냐?”(이사 58,3b-4)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단식은 날마다 조금씩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말씀의 빛을 받아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더 큰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바로 이런 것이다.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러주는 것,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롭게 내 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부내는 것이다.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네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이사 58,6-7)

신부는 신랑과 같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느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들었으니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살도록 노력합니다.

3. 이 사순시기 동안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나쁜 점이 무엇이며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돈에 대해 너무 큰 욕심을 갖고 있으며 오직 돈만을 생각하고 돈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 사람들 뿐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도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이 악한 정신과 싸우기 위하여 우리 수도자들은 사순시기 동안 가난 서원을 더 잘 실천하도록 노력합니다. 조금도 쓸데없는 낭비는 하지 않으며 자신의 수도복도 오래 입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느님이 돈보다 무한히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지혜입니다.

나) 일반적 견해의 또 다른 면은 사람들이 특히 자신만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수도원 안에서 조차 나타나 공동체의 자매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을 거절하며 공동시간도 싫어합니다. 이 사순절 동안 모든 자매들 각자가 부한지 가난한지, 유식한지, 무식한지, 친절한지, 보기 흉한지, 젊은지, 나이가 먹었는지 잘 보십시오. 그리고 대화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많이 진보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잘 살펴보라는 의미는 이런 면에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보라는 것입니다.

3. 내가 보는 바에 의하면 사람들은 하느님을 완전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느님은

첫째 자리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하느님은 너무나 지고(至高)하시어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 첫째일 수밖에 없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수도자들은 항상 하느님을 그 무엇보다 첫째 자리에 모시고 공경 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하느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육화의 순간부터 우리는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금년 사순절을 보람 있게 보내고 싶으시면, 또한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으시면 1) 가난 서원을 더 잘 지키십시오. 2)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그들을 도우십시오. 3) 특히 여러분 마음에 항상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십시오.

바로 사도의 말씀대로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느님께 서약하는 것입니다.

사순 제2주일 (1971, 1974, 1979년)

복음 : 마르 9,1-9

예수님의 변모

변모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수난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마태 16,21).”

이 말을 듣고 슬퍼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격려하십니다. 오늘 교회는 신자들에게 영광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수난을 묵상하기 전에 교회는 어머니로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엿볼 수 있게 해 줍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이 세 사람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했는데, 왜 세 사람입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의 증거를 믿기 위하여**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며 한 사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하였습니다. 세 사람만을 데리고 간 것은 변모의 사건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열두 사도를 다 데리고 갈 필요가 없었으며 더구나 유다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못된 한 사람이, 한 가정이나 또는 한 본당 전체를 얼마나 더럽히는지 이 경우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수난의 증인으로 열두 제자를 선택하셨는데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위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시련에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미래 교회의 수장으로 선택하셨는데 그를 수장으로 선택한 것은 그의 믿음과 사랑과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를 사도들 중 첫 번째의 순교자로 선택하시고 요한은 그의 순결로 인하여 큰 신학자로 뽑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베드로 사도처럼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싶으면 그만한 큰 믿음과 큰 사랑을 가져야 하며 야고보 사도처럼 많은 시련 속에서도 항구해야 하고, 요한 사도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1.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시어 변모하시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 가신 것은 세상의 수많은 기분전환 중에 하나를 즐기기 위해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멀리 하고 하느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시자 그 모습이 변하여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고 옷은 눈처럼 희게 빛이 났습니다. 이 사건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인 예수님은 본성적으로 찬란한 빛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하신 기적이지만 아무도 하느님이 하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빛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성체 안에 빵의 모습으로 감추어져 계십니다. 오늘의 이 변모 사건은 이 세상이 끝날 때에 다시 나타나실 모습을 잠깐 보여주신 것이며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당신의 부활 후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2. 모세와 엘리야의 발현

구약성서에서 이 두 분의 예언자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모든 성인들의 이름으로 왔고 구약은 신약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들의 예언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수난에 대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수난입니까? 수난은 모든 성서의 중심점이며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한, 인류의 구속(救贖)을 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가 좀더 열심히한다면 우리도 특히 사순절 동안 자주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고 말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십자가의 고통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의 열성은 식어질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베드로는 너무 기뻐서 “장막 세 개를 짓자”하고 외쳤습니다. 그는 너무 감동되어 자신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엘리야에게, 하나는 모세에게 드리겠다고 하였지만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 없이 즉시 하늘나라로 가고 싶어 하며, 영원한 행복보다는 역시 현세의 행복을 더 좋아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마르 9,7)는 하느님 아버지의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말씀을 두 번 하셨는데 예수님의 세례 때도 이미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은 다시 없었습니다. 예언자들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제 세상을 밝히는 빛은 예수님입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 두려워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인자한 아버지처럼 가까이 오시어 “겁내지 말고 일어나라.”하십니다. 제자들이 일어나보니 하느님 아버지와 엘리야와 모세는 모두 사라지고 예수님 홀로 계셨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행복은 사라졌지만 추억은 남아있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서간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 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마르 9,9).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허사가 되지 않기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사도들은 이

비밀을 간직했다가 그 후에 말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교만하지 않았고 침묵의 의미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복음은 구약에서 일어났던 일과 연결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도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 큰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변모사건을 통하여 예언자들이 기다리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과 그분이 구약의 결론이라는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하느님의 명령으로 시나이 산에 올라가 하느님의 법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새로운 법은 “기쁜 소식”(Evangel)이라는 신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 하셨기 때문이며 예수님은 참으로 하느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고 그분 홀로 하느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그분 홀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순 제3주일 (1973, 1979년)

요한 2,13-25

예수님은 하느님의 표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실 때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했지만 다른 이들은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이 성전의 주인이란 말이요? 오래전부터 내려온 관습인데 무슨 권한으로 이런 짓을 하는 거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시골에서부터 희생 제물로 바칠 양이나 짐승을 끌고 와야 하는데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 아니요? 여기서 사는 것이 낫지 않소?” 하고 따지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당신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였는데 그렇다면 하느님이 당신의 아버지란 말이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란 말이요? 당신이 예언자나, 메시아가 된다는 말이요? 그러면 그것을 증명하는 기적을 보여 주시오.” 하였습니다.

오늘은 장사꾼들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유대인들의 질문들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 줄 수 있소?” 이 질문은 유대인들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도 가끔 예의 없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주님께 대한 믿음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미 많은 권능의 기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많은 환자들의 병을 고쳐 주신 것은 고통 받는 이들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상징이었고, 맹인들을 보게 해 주신 기적은 당신이 세상의 빛임을 상징하며, 죽은 이들을 다시 살려주신 기적은 당신이 생명의 주인임을 상징합니다. 나병환자들과 중풍병자들을 고쳐주신 기적은 당신이 하느님의 용서를 주는 권한을 지녔음을 상징합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술로 변화시킨 기적은 당신이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 시키고 기쁨을 가져다주는 분임을 상징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당신 사명에 대한 표징을 설명 하십니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마태 11,5-6).

오늘 복음에서는 신비스런 표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의 의미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요한 2,23)고 증언합니다.

성세를 받은 우리들도 유대인들과 같은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고를 당할 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느님께 설명을 요구하고 기적을 청합니다. 왜 열두 살밖에 안 된 똑똑한 아이가 죽어야 합니까? 왜 어머니가 아이를 세 명이나 남겨놓고 죽어야 합니까? 왜 신심 깊은 젊은 수녀가 병에 걸려 일을 할 수 없게 합니까? 왜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삼백만 명 이상이나 죽였습니까? 왜 이 큰 호텔이 화재가 나도록 허락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들입니다.

“주님 기적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느님은 대답이 없고 침묵만 하십니다! 나자렛에서 삼십년 동안 침묵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인간과 같은 고통을 받으시며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같은 질문을 하시며 침묵하셨습니다.

아. 하느님! 이 고통 중에 당신께 애원하오니 당신 현존의 표징을, 당신 권능의 표징을, 당신 사랑의 표징을, 당신의 원의의 표징을 주십시오. 하지만 이 고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공박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오! 주님 침묵하지 마시고 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대인들은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도들은 주님께서 수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의 은총에 힘입어 이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은 당신 몸이었고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파괴하였으나 삼일 만에 부활하시어 다시 세우셨으니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민족 가운데 살아계신 하느님의 표징이었으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과 맺은 계약의 상징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비한 몸이기에 유일하고 찬란한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필립보가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뵈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께서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는 것이다.(요한 14,8-9)”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족합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는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1코린 1,23).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것 보다 유효한 단 한분 예수님으로 충족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는데 왜 근심 걱정하고, 왜 의심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상숭배자와 같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신앙은 때때로 너무 유치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처럼 감지할 수 있는 기적을 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야 합니다. 아기는 어머니 아빠가 만져주면 안심되어 조용히 있지만 부모와 떨어지면 불안해합니다. 아이들이 커 가면서 조금씩 부모로부터 멀어져가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합니다. 나중에 이들이 결혼할 즈음에는 더 이상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기 때문에 부모를 떠납니다. 그러나 자주 부모를 찾아뵈러 오며 여전히 그들을 사랑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하느님의 기적을 요구한다면 그는 아직 어린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감성을 초월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음을 갖기에 충분한 기적입니다. 만일 매순간 하느님이 기적을 보여주어야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린이에 불과합니다. 하느님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른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굳건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가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캄캄한 밤,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베드로 사도처럼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히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 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느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압니다”(요한 6,68-69) 하고 고백합시다.

사순 제3주일 (1970, 1973년)

복음 : 요한 2,13-25

열정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의 머리에는 문득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 삼킬 것입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하느님의 은혜로 자주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우리는 사도들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열정적이셨습니다. 이 열정 때문에 이 세상에 육체를 취하여 인간으로 오셨고 하느님인데도 불구하고 나자렛 사람들과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보통사람처럼 사셨습니다. 태어나 즉시 하느님의 뜻을 따라 희생 제물로 봉헌되셨고 팔일 후에 할손례를 받으시므로 우리를 위하여 이미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유대야를 두루 다니시며 하늘나라를 선포하셨고 성전의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며 지칠 줄 모르고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말구유에 탄생과 십자가형에 죽음과 감실 안에 성체로 계심,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항상 순수한 열정에 불타고 계십니다.

1.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리고 신학교에서, 수련소에서, 사람들로 부터 열심히 살라는 말을 백 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열정이란 무엇입니까? 수 세기를 통하여 사람들 중에 열정적인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성적인 통치자들과 열성당원 공산주의자들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노력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며 강연하는 강사들! 신문, 라디오나 매스컴의 기자들! 이들은 흔히 건강이나 운명과 생명을 걸고 일합니다. 또한 군인들과 상업에 종사하는 이들, 교수들 역시 열성적으로 일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열성이 예수님의 열성에 비교 될 수 있을까요? 이 두 열성가 사이에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까? 물론 크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정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열정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자신을 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웃은 사랑하되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열정이라 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열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열정은 하느님과 이웃 모두 사랑하는 것이며 완전한 사람은 이 둘을 다 생각해야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신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물만 생

각하는 것은 완전치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당신 아버지 하느님을 사랑하셨으며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참된 열정은 행동과 말로 가르치신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2. 열정을 갖기 위하여 손수 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맹인이 아니니 이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수많은 좋은 사업들, 학교, 병원, 애덕 사업, 등등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많은 열성적인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혼자 할 수 없으며 열심한 신자들이 손수 이런 자선사업 기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는 영성적으로 도움이 되고 비신자들이게도 정신적 도움이 됩니다.

성가소비녀들도 이런 사업들을 스스로 세우고 운영하고 있으며 수녀들이 손수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녀들 중에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신심도 없는 수녀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녀들을 본당에 보내면 일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구실을 찾습니다. 농사지을 땅도 없고, 돈도 없고, 본당신부가 너무 엄격하며, 그곳 신자들이 특별하다느니 무식하다느니 열심도 없다느니 하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이런 수녀들은 비록 주어진 작은 일들을 잘 해 낸다 해도 그것은 마치 돈에 고용된 사람으로 일하는 것이지 참된 수도자는 아닙니다. 그들은 의욕이 없고 그저 습관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열성이 있고 진정으로 하느님을 사랑할 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십시오. 선택하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항상 우리 곁에서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딘가 보냄을 받을 때 하느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말을 해서 안 됩니다. 성서에서 창세 이전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으나 하느님의 한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하느님께서 장상을 통하여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하느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 가르치실 때 항상 손수 일하는 농부들을 등장시킵니다. 건축가들, 농부들, 어부들, 포도밭 일꾼들, 수확하는 사람들, 군인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예는 우리가 손수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손수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이며 마찬가지로 주여, 주여,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움입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마태 7,21).

3. 손으로 일하는 것만이 열성적인 수도자의 태도는 아닙니다. 초자연적 방법으로 하느님을 명상하면서 하느님을 위하여 기도로써 정신적 노동을 하는 수도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다만 일하는 것이나 벽돌 쌓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영혼을 감동시키는 일은 하느님 은총만이 할 수 있으며 신앙을 주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전교한다면 마치 하느님께 “당신은 일할 줄 모릅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이런저런 일을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자로서 우리가 하는 것은 씨 뿌리는 일이지 수확이 아닙니다. 내가 뿌린 씨의 결과를 즉시 보고자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손안에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감사할 일이지만 결코 우리가 이룩한 공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를 위해 일하지 말고 하느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기를 위하여 열심히 일합시다.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루카 12,49)” 예수님은 참으로 열정적이셨기에 이 세상에 불을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는 이 본당에 불을 지르러 왔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갖고 일합시다.

수녀님들! 우리가 이런 열성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합시다.

사순 제4주일

복음 : 요한 3,14-21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요한 3,16).

나는 해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도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1.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외적 내적으로 많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흔히 이 고통이 하느님의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은 대립과 압박과 폭력과 불의로 곳곳에서 종족간의 전쟁과 계층간의 싸움이 끊이지 않고 부패와 증오 등의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신문이나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보면 돈 때문에 강도, 살인 등의 뉴스요, 엄청난 예산을 요하는 기획과 정치문제에 이르기까지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다수당은 소수당을 모욕하고 반대로 소수당은 다수당을 비난하며 정당들은 당들끼리 싸우고 혈투합니다. 또한 사회생활이나 노동현장을 보면 낙천적일 수가 없습니다. 매일 데모, 실업자, 노동쟁의, 해고 등의 뉴스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보아도 꼭 같은 현상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금이 가고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낙태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사람들의 마음은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세 번째 아이에게는 벌금을 부가하고 네 번째 아이를 낳았을 경우 벌금이나 금고형을 받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혼란에 빠져 가출하거나 자살과 마약으로 비인간화 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런 어두운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렇듯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 하느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 참으로 하느님은 이 세상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타볼 산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는 내 사

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물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사랑하십니다만 그중에서도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인간 자신을 불행으로 만든 잘못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집스럽게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외아들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인간 가정 안에 들어오시므로 오히려 그분 덕택으로 우리가 하느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아들은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형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원은 당신의 영광과 행복을 우리와 나누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어서와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예수님은 몽상가도 유토피스트도 아닙니다. 하느님은 모든 인간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며 또한 각 사람의 마음속에 마치 파충류가 대야 속에 우글거리듯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인간의 선한 면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악이 추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그건 불가능해!”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운명론자나, 비관주의도 아니고 오히려 항상 인간에게서 무엇인가 좋은 점을 찾으시고 그 점을 칭찬하고 격려하십니다. 예수님은 나타나엘을 보고 “보라, 저 사람이야 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요한 1,17) 하였고 요한 세자에게는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인물은 일찍이 없었다.” 하고 칭찬하셨고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거기에 있던 몇 사람들이 수군거리자 그 여자를 옹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고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마태 15,28) 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인 로마병사에게까지도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 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함께 잔칫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마태 8,10-11).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을 매음의 집이나 폭력의 장소나 부정의 온상으로만 보시지 않으십니다. 비록 세상에 죄악이 많지만 좋은 점도 많음을 보십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가정의 화목한 부부들을 사랑하시며 십자가 옆의 우도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하겠지만 예수님과 같이 죄인들은 사랑해야 하며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정의가 바로 서는 세상을 위해 일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눈을 뜨고 우리 형제들인 사람들을 친절과 사랑으로 도와주기를 바라십니다.

사순 제4주일

복음 : 요한 3, 1-21

니코데모와의 대화

오늘 교회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감격스런 대화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건축가가 건물을 세우기 전에 먼저 설계를 하듯이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계획을 갖고 일을 합니다. 행정을 책임진 사람들도 역시 계획을 세웁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느님의 계획을 설명하십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복음 말씀은 특별히 고귀한 말씀으로 우리 수도자들과 신자들이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해서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또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감동과 놀라움을 받아, 예수란 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며 그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무슨 의미이냐? 하는 진지한 질문들이 자기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들 선량한 유대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바리사이파 사람은 학식이 높은 원로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이며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밤을 틈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인간을 존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적대시하고 있는 예수를 낮에 찾아오는 것이 조심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 오신 스승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표징들을 아무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요한 3,2).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인지, 하느님 나라의 설립자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에 그의 성실한 마음을 아시고 당신의 가르침이나 기적에 관해 말씀하시지 않고 가장 중요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자 니고데모는 아마 웃음이 나왔나 봅니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배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역정을 내시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원죄로 인하여 인간은 하느님의 은총의 생명을 잃었으므로 사람은 성령의 힘을 빌려 영적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설명하십니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인간에게서 태어난 인간은 자연생명을 갖고 있으나 인간이 성령과 결합하면 영적 생명, 하느님의 생명으로 다시 나게 된다고 설명하시며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은 은총 생명의 필요성과 존재를 확고히 하셨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결코 생각도 못한 일이었을 것이며, 우리 역시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 중에 많은 니고데모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혁명적 말씀에 압도되어 니고데모는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하고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은 “당신은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모르느냐?” 에제키엘 예언서에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에제

36,25-26) 하고 구약 성서로 증언 하신 후에 당신자신을 증언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이 세상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 온 이,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요한 3,11-12) 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언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마음이 사로잡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지혜로우심을 깨닫고 그저 듣기만 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요한 3,14-17). 이것이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황홀감을 느꼈습니다. 예수님 홀로,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며 폰시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청하여 향료를 바르고 고운 베로 감아 장사지내 주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느님의 계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 외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합시다.

사순 제5주일 (1979년)

복음 : 요한 12,20-33

“예수를 뵈게 해 주십시오.”

유다인들에게 과월절 축제가 다가오면 율법에 따라 모든 유다인들이 희생제물을 봉헌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부터 유다인들 뿐 아니라 신심이 깊은 외국인들, 로마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들은 성서를 읽고 예배를 드렸는데, 유다인들의 종교의식은 다른 종교의식 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마침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옛날 삼왕이 그러했듯이 사도 필립보에게 "우리에게 예수를 뵈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1. 예수님과 함께 살아 온지 삼년이 지나니 요한은 영성가가 다 되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 본다는 것은 다만 사람이나 그림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더 깊게 더 멀리 투시하여 믿음에 이르는 차원을 의미합니다. 이를 요한의 첫째 편지에서 “처음부터 있어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1요한 1,1). 이렇게 요한에게 있어서 ‘본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성삼위 안에

서 육화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삼왕들이 별을 보고, 별의 인도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 왔듯이 그리스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어떤 별을 보고 왔습니까? 어떤 사도의 권고나 또는 예수님의 한 제자가 알려준 것 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기적을 보았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하고 청한 것입니다. 필립보는 먼저 안드레아와 의논하고 나서 둘이 이 외국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이 그리스인들은 그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종교를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대답은 신기합니다. 예수님은 직설적인 답을 하지 않고 우회하여 답을 하시지만 그 말씀은 진실로 그들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너희는 하느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하지만 때마침 잘 왔다. “너희가 하느님이 어떻게 죽는지를 보게 되면 그제야 하느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답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이 ‘때’는 주님의 수난의 시간이 다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주 말씀하시는 그 ‘시간’은 주님께서 것처럼 오래 기다려온 시간이며 그분의 수난은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 줄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하시기 전에 어머니께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때까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밝힐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도 밝혀줄 것입니다. 이 ‘시간’은 신비의 중심이며 이 수난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이교도인 그리스사람들에게 짧은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삶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요한 12,24-25)”. 이 작은 밀알의 비유에서 결코 펴낼 수 없을 만큼 풍부한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밀알이 땅에 묻혀 부활하는 것은 모든 생명의 법칙입니다.

밀알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며 또 ‘나’ 이기도 합니다. 바로 사도에 따르면 성세성사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묻혔고 함께 부활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아 파기 되었다면 갈바리아에서 신약이 시작됩니다. 어찌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신약이 시작되는가 하면 신약의 근본적인 의미는 사랑이며 진정한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느님과 일치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처럼 풍부한 수확의 법칙에 따라 다른 이들을 위하여 죽어야 우리 사업의 풍부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마태오, 마르코, 루카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제세마니의 동산에서 기도 중에 겪으신 고통을 전해주고 있는데 요한 복음서에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요한 사가는 예수님의 수난은 아기예수를 성전에 바치셨을 때, 정화하실 때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 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요한 12,27). 아버지의 응답이 예수님의 세례 때와 거룩한 변모 때처럼 즉시 들

려옵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요한 12,26)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군중들은 각자 자기 성격대로 판단하여, 어떤 이는 천둥 소리라 하고 어떤 이는 천사가 말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아버지의 명령으로 이해하셨습니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는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일 것이다”(요한 12,31-32).

이제까지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하느님을 몰라보았지만 이제 그들은 십자가를 보게 될 것이고 십자가의 고통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이 올림을 받는 것은 바로 사탄의 패배와 연결됩니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루가 10,18).

오늘날 높이 올림을 받은 십자가가 생명의 나무인 것처럼 요한에 있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사순 제5주일

복음: 요한 12,20-33 1독서: 예레 31,31-3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2,24).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정치에는 민주당, 공화당, 자민당, 사회당 등 여러 당이 있습니다. 이런 각 당은 사회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국가의 미래에 대하여,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당마다 다른 견해와 이상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다고 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는 정권을 잡기 위한 투쟁입니다.

교회 역시 하느님 안에 인간의 일치를 위하여, 또한 사회와 인간과, 행복과, 미래에 대한 큰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당파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권력을 잡기 위해 투쟁하지도 않으며, 교회는 당을 초월하여 존재합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반성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1. 오늘날 나라마다 교회마다 거의 어디서나 분열이 거듭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옛날 중 세기 때 유럽은 연합되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나라마다 자기 이익에 따라 갈라져 일하면서도 그걸 의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상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 신자들도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두 가지 의견으로 대립합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나쁜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착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불행의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는 전혀 교회도 없고 신자도 없으며 자유도 없으니 말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입니다. 만일 앞의 예처럼 교회는 영혼만을 돌보고 국가는 육체만을 돌본다면 이것도 모순이며 진리에서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

어 있지 않고 분리할 수도 없으며 이 둘은 항상 함께 있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위한 것은 필연적으로 영혼을 위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권력 추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 것이 아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려라’(마태 22,21) 하고 말씀하셨다”.

어느 당이나 권력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들의 이상이 세상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그의 이상은 영적인 것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편은 긍정적이고 또 다른 편은 반대라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2. 수난 전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분명히 많은 이들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권력을 거절하셨습니다. 악마가 세상의 왕국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마태 4,8-9) 라고 하자 그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오천 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 후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하자 산으로 피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성지주일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인으로부터 통치권을 돌려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되시어라.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복되시어라”(마태 12,13).

오늘 복음에서도 외국인인 그리스 사람이 존경심을 갖고 당신을 보기를 원할 때 예수님이 무어라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마태 12,23) 즉 “내가 영광은 받겠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에 의한 그분의 선물이며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군사력이 필요 없었으며 그분이 원하신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기에 무기를 사용하여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력을 거절하셨고, 교회도 권력을 거절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계획과 세상의 권력이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비록 좋은 일을 한다 해도, 언제나 인간의 외적, 물질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상의 왕들은 무기와 전차, 총과 많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백성들에게 침묵을 강요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까지 파괴하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까지 점령할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인 예수님은 오직 사람의 마음에 가치를 둡니다. 오늘 제일 독서에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 가슴에 내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예레 31,33)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과 구약의 다른 점입니다.

강제나 폭력으로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복음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이 권력을 얻고자 하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이 아니라 오직 대화로써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길은 갈바리아 산을 거쳐 십자가에 죽음

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 길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유는 오로지 인류를 구원하기위한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3. 여기 있는 우리들은 수도자들로서 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법이나 무기나 정치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만이 변화 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성실한 사람을 볼 때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빛과 진리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형제처럼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남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을 볼 때 거기에서 빛과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수도생활의 목적이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이고 또 다른 예수입니다. 교회는 권력을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같이 종이며 소비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자들에게서, 특히 수도자들에게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종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아름다운 비유를 들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할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부활 후 제4주일 (1973. 1979년)

복음 : 요한 10,11-18 1독서: 사도 4,8-12 2독서: 1요한 3,1-2

성소주일

1. 오늘 성서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착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또한 성소주일입니다. 착한 목자와 성소, 이 둘은 서로 큰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보완되는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본래 목자는 양떼를 돌보고 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혼들을 돌보는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나는 착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에게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교황님, 주교님들, 사제들은 영혼을 돌보는 목자들이며, 성직자들 뿐 아니라 수도자들, 더 나아가 모든 신자들은 목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함께 그리스도의 신비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혼들을 위해 고민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행동으로, 말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 특히 좋은 표양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한 신자 부모들은 그들의 아이들에게 좋은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마을에서, 하느님이 보내시는 그 곳에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착한 목자의 정신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정신이 없다면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수녀님들! 언제나 여러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의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 성소를 받았습시다.

2. 세상은 넓고 인류는 거대하니 이들을 다 돌볼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써 모든 이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성녀 소화 데레사는 수도원 안에서 모든 이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여 선교의 수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디나 사방 갈

수는 없는 것이니 우선 우리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특별히 하느님과 장상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목자들입니다. 참된 목자가 되어가면서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누구도 천당이나 지옥을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천당 가기 위하여 필히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탓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목자들의 백성이며 사제단의 백성이라” 하였습니다.

3. 우리는 목자인 동시에 또한 양들입니다. 우리들의 목자는 교황, 주교들이며 이들에 대해 항상 존경을 드려야 합니다. 성 크리소스토모는 “사제들을 지상의 대관들이나 임금님보다 더 존경합니다.” 하였고 요한 6세는 “오! 사제직이 얼마나 크지! 하느님 다음으로 사제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제의 직분은 순수한 영이며 인간 위에 존재하는 천사보다 높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성체를 이루고 죄를 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씨의 성 프란체스코는 “만일 길에서 사제와 천사를 만난다면 나는 먼저 사제에게 인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며 성 베르나르도는 “마리아님, 제가 주제 넘는 말을 한다면 용서하세요. 사제들의 권한은 당신의 권한을 능가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사제는 매일 예수님을 줍니다. 당신이 주신 예수님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었지만 사제가 주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 한시적이고 죽을 몸이지만 사제가 주는 예수님은 영광스럽고 영원한 분입니다. 마리아님, 당신이 지상에 다시 오신다 해도 사제처럼 성체를 이루지 못하실 것이며 당신도 성체를 영하기 위하여 어느 사제에게 청하셔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제이며 목자인 직분을 이해하려면 하느님에 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직자는 다른 예수이다.”(Sacerdos alter Christus)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하고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영혼들을 다시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이며 마치 야곱의 사다리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느님께 올라가게 됩니다. 사제의 말은 하느님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물론 사제는 하느님이 아니고 한낱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으며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모든 권한을 주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처럼 “너희의 죄를 사한다.”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다!” 라고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한 사제는 정말로 높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존경하고 특별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인 한 그들도 약한 존재이며 유혹도 많기 때문입니다.

4. 하느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하여 사제들을 필요로 합니다.

직접적으로 사제들은 영혼들을 돌보고 간접적으로는 하느님 나라를 구현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부(富)나 학문이나 무기(武器)에 있지 않고 그 영혼에 있으며, 하느님 나라의 가치도 영혼에 있습니다. 어느 현자가 말하기를 “하느님 나라의 확장과 침체는 성직자들에게 달려있다”고 했으며 성 요한 비안네 성인은 “한 마을에 20년 동안만 성직자가 부재(不在)한다면 그곳 사람들이 동물들을 숭배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개신교 신자인 루스벨트 대통령은 “사제들은 유럽의 가장 훌륭한 시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은 “우리 통치자들은 농민들이나 상업인들, 산업가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이차(二次)적이거나 사제들이 하는 일은 근본적(Essentiel)인 일입니다. 사제들은 사람들의 정신(Ames)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며 사제들이 없이 개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다.” 라고 말하듯이 “그 나라 사제들에 그 나라다.” 혹은 “국가는 그 나라의 사제들에 달렸다” “그 본당 신부에 그 본당이다.” 이렇듯이 사제들의 직분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성세를 받은 우리도 사제와 목자라고 하였으니 어리석게 무지(無知)로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상에 사제들의 수는 극히 적습니다. 그러므로 유용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이 유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신의 성소에 따라 착한 목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성소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십시오.

부활 후 제5주일

복음: 요한 15,1-18 1독서: 사도 9,26-31 2독서: 1요한 3,18-24

포도나무 열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저마다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세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매주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 이웃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또 다르게는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들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답이 오늘 복음에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요한 15,5). 예수님은 열매라는 단어를 네 번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요한 15,3).

세 번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요한 15,4).

네 번째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요한 15,8).

오늘 성경말씀 뿐 아니라 다른 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그렇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가 나무를 저주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와 가지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가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가지는 나무에 접목되어 있지 않으면 수액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살 수 없습니다. 집 안에 전깃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전깃줄과 전등이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가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 신자는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예수님께 일치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부부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 의지하며 함께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들은 나무 몸통에서 보내주는 수액의 덕으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신자들도 성서말씀으로, 성체로,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그분 은총의 덕으로 살아갑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당신들도 내게 붙어있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나 없이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십니다.

역설적으로 달리 말하면 나무는 가지들 없이 생존 할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지인 우리들 때문에 살고 계십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당신 지체들인, 당신의 가지들인 우리를 통하여 이곳 서울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러분들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계속하기 위하여 나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라고 하십니다. 계속 인간을 사랑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필요하고 많은 불행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여러분들의 손이,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약속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이후 예수님은 인류에게 묶였습니다. 하느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좋은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열매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성체를 받은 신자들인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계속하시며 치유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열매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실한 그리스도 신자는 믿음뿐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몇 번이나 예수님은 말씀 하셨던가! “주여, 주여” 하는 이 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베어 불에 태워버립니다. 제2독서에서 요한은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1요한 3,18) 라고 강조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신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과업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단지 네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팔레스티나에서의 삶, 그분의 탄생에서부터 죽음과 부활까지, 더 나아가 2천년 동안 그리스도 신자들의 삶 전체입니다. 바로 사도와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행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고 말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는 바로 여기가 예수님의 삶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실 때 많은 장애물을 만나셨고 반대자들도 많았으며 열성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당신 제자 가운데도 배반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미온적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제1독서 끝부분에 “교회는 유다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화를 누리며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 수가 늘어났다”(요한 9,31)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는 나날이 점점 커지지만 그 열매는 우리들에게 달렸습니다. 그리스도신자로 산다는 것은 나날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신의 완성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예

수님께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부활 후 6주일

복음 : 요한 15, 9-17 독서: 사도 10,25-26 2독서: 1요한 4,7-10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새 전례를 듣노라면 부활 후 주일마다 독서로 사도행전을 읽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요한의 편지와 요한 복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히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도들 중에 요한 사도를 특별히 사랑하셨으며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형 되실 때 사도들 중 홀로 그 발아래 지켜 서있던 사도가 요한이었습니다.

예로니모 성인은 사도 요한이 나이 들었을 때 초대신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기위해 자주 요한사도를 찾아 왔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항상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이 말을 되풀이 했습니다. 새로 입교한 신자들이 왜 우리에게 항상 같은 말만 되풀이 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자, 요한사도는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의심 없이 여러분도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하느님을 증오하고 하느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히 수도자인 우리들은 하느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입니다. 하느님은 너무나 좋으시고 아름다우시고 전능하신 분이기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바오로는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1고린 13,3)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거슬러, 애덕을 거슬러, 죄를 짓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 먼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오하고 공격까지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역시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죄는 교회를 박해하고 모독하는 자들과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종류의 죄인들은 악마나 다름없습니다. 사랑이 제거된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으며 하느님을 증오합니다. 하느님은 세상 시초부터 이런 사람들을 항상 벌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삼백년 동안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느 로마 황제가 교회를 박해하여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벌하셨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는 사포르 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결국 페르시아가 승리하고 로마황제는 감옥 신세를 지게 되었지요. 페르시아왕은 오래 동안 그를 말 타는 발판으로 사용하였고 그리고는 그를 죽여 그의 가족으로 복을 만들었습니다. 헤로데 왕은 어떠했습니까? 히틀러의 종말은 또 어떠했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하느님을 대적하여 모독한다면 용감하게 항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욕하는 사람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느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까! 개도 누군가가 자기 주인을 공격하면 언제나 상대를 향하여 짖어대고 주인을 위해 싸우는데 여러분은 개가 하는 일을 할 수 없단 말입니까!

2.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하느님을 잊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관심은 사랑의 반대어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어머니는 밤낮 아기를 생각합니다. 효자는 자기 아버지를 늘 생각하고 선한 그리스도 신자들은, 더구나 수도자들은, 언제나 하느님을 생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읽어 보십시오. 자주 이들은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때마다 하느님이 그들을 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느님의 백성은 영세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창조한 산들, 강들, 각종 꽃들, 별들, 바다, 각종 새들, 이 모든 것들은 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노래합니다. 하물며 지성을 가진 우리가 하느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형제들 안에 계신 하느님을 잊는 것은 가증스런 일이므로 누구도 하느님을 상대로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3. 하느님 사랑을 거슬러 죄짓는 사람들 중에 창조주 보다 창조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도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느님 대신에 자신의 몸을, 자기 자신의 이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순명하는 것을 싫어하고 게을리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부자들은 가난 정신은 고사하고 돈을 물 쓰듯 낭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체면 때문에 세속사람들처럼 말하고 세속의 것을 좋아하면서 절대로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 보르기아(Borgia)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대 귀족으로 대왕 가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회에 들어가서 매일 그릇에 국을 담아 불쌍한 수감자들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화려하게 차려입고 친구들과 함께 가는 자기 아들들을 만났는데 그들을 보는 순간 그는 부끄러워 자신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돌려 숨지 않고 반사적으로 국그릇을 머리위에 이고 자기 아들의 절을 받으며 수감자들에게 국을 갖다 주러 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 그리스도 신자의 이름에 대해, 수도복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에 관해 말하기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사랑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십시오. 거기에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한 15,9).

부활 후 제6주일

복음 : 요한 15,9-17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이니 많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오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복음에서는 네 번이나 “내 계명을 지키고 내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십니다.

10절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12절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14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17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상호적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진실로 말하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아직도 유년기에 머물러 있으며, 노인이 되었어도 청년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가 그리스도 신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어린이는 자신먼저 생각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찾으며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그들이 집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눈에 보이는 사랑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이 친구나 이웃을 좋아하는 것은 그들이 함께 놀아주고 애기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필요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동기를 갖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청년기는 다릅니다. 이 시기는 자연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고 다른 이들을 보는 견해가 더 넓어지고, 감상적이며 다른 이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예수님을 알고 신자로 살기 위하여 하느님을 사랑해야 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형제적 사랑과 순결, 하느님이 무상으로 주시는 선물에 대해 감탄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의 신자 생활은 모든 이들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싸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장년기는 열심히 일하는 시기로 가정과 직장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며 좀더 신중하고 사회의 불평등과 불의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더 윤택한 생활을 위해 더 나은 직장을 원하며 전에는 자신의 책임감이나 능력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장년기의 그리스도 신자는 겉으로만 신자인체 하거나, 비효율적이거나, 무용한 신자가 아니라 비록 우리 눈에 좋지 않게 보일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정의감을 갖고 악을 배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장년기 신자는 어려운 때 단호한 태도를 취할 줄 압니다. 장년기 신자는 사회의 부정과 궁핍과 거짓과 위선을 발견하면 그것들을 위해 투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것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마태 10,34) 또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 올랐다면 얼마나 좋으랴?”(루카 12,49)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마태 11,12) “부자가 하느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마태 19,24).

신앙적으로 장년기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달란트에 대한 비유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포도원 조각인의 살인행위에 대한 비유가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자

로 산다는 것은 무언가를 건설하는 것,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이며,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신자들이 비신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열매를 볼 수 없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써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기쁨이 넘쳐흘러야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신자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은덕으로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 되었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서 그런 기쁨과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압박당하는 이들이 있는 곳에, 불의가 있는 곳에, 어디서나 교회가 불행한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불의가 없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행하게도 신자들이 이런 불의 앞에 침묵하거나 공범자가 되는 사람들이 흔히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이 작은 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이들을 도와주고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새롭게 힘을 얻으려면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백성을 위하여 대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자가 우리민족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루카 23,2).

장년기의 신자는 남을 위해 일하며 싸워야 할 경우에는 남을 위해 싸웁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마태 25,34)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마태 15,16).

연중 제2주일

복음 : 요한 1,35-42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

오늘 복음에서 요한사가에 의하면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을 찾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매주일 우리가 성당에 올 때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만일 사람들에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한다면 젊은이들은 직장을 찾고 있는데 벌써 몇 달 동안 찾지만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 결혼한 젊은 부부는 아파트를 찾고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수지타산이 안 맞아 다른 직장을 찾는다 하고, 어떤 이는 병에 대처하기 위한 건강을 찾는다고 하는 등,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을 위하여 자신에 딸린 사람들을 위하여 행복을 찾고 있으며 이것이 또한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들처럼 하느님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매주일 성당에 올 때마다, 하느님은 누구인가를 알아듣고,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생각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식을 찾읍시다. 나머지는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그날 요르단강가에서 세례자 요한은 그의 두 명의 제자, 요한과 안드레아와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 세례 받으신 그 이튿날이었는지 혹은 광야에서 악마의 유혹을 받으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후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세례자 요한은 확 열린 마음으로 자기 제자들을 곁에 붙잡아 두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가리키며 “하느님의 어린양이 저기 가신다.”고 합니다. 즉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 인류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내어 주실 분. 희생 제물이 되실 분,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이 지고 가실 분이 저기 가시니 따라가 보아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두 제자는 알지 못하는 사람을 따라 갑니다.

예수님은 물론 따라오는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부모들이나 교육자들, 수도자들이 세례자 요한처럼 다른 이들에게 말과 행실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많은 이들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죽기까지 신앙을 증거 할 것을 희망합니다.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증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참된 예수님의 증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일깨워 주는 사람이지만 이들이 신앙의 원인은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항상 하느님이 제일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두 제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오시기 때문에 멀리서 오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즉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니?”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만나서 한 예수님의 첫 번째 발언이었으며 이들은 이 말을 영원히 기억 할 것입니다.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선생님 계시는 집에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느님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지요. 예수님은 다만 “와서 보라” 이 말 속에는 “오라”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뜻밖의 놀라운 일과 중대한 역사가 시작될 것이니 “보고” “믿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만 하시지만 나중에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라” 라고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하느님을 찾는 두 번째 조건은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요즈음 한국에서도 유전(油田)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숙원 사업이었기에 이 소식에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그 가치는 유전 발견보다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루 밤을 지내고 난 제자들은 그곳을 떠나 발을 재촉하여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러 갑니다.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소.” 우리에게 이 사건은 하나의 표징(sign)입니다. 누구나 진심으로 믿으면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새 예비신자를 예수님께 데려다 주는 사람은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기위하여 하루의 가르침으로 족하지 않고 그와 함께 몇 년을 동행하여야 합니다. 도시에서나, 시골에서나, 군중에게나, 단 한사람에게라도 예수님처럼 불편을 감수하고 의심이나 헐박, 죽음까지도 십자가를 감수하면서 말입니다. 하느님을 찾는 데는 끝이 없으며 신앙을 키워 가는데 역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안드레아와 요한과 시몬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주님께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부모일 수도, 친구, 선생님, 수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교리를 배웠고 설교를 들었으며 성서 공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책이나 공부나 학문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은 삼년 후 메아리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새벽에 막달레나에게 서도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성격이 다릅니다. 막달레나는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외적인 것이나 지식이 아니라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내적 친밀감(Intime)으로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느님을 찾아 나섭시다. 하느님은 어디나 계시며 특히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안에 계시니 그들을 사랑하고 봉사하면서 하느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연중 제4주일

복음 : 마르코 1,21-28

전례와 굳센 믿음

여러분이 오늘 복음에서 들은 바와 같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마르 1,22)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나? 그 말은 권위가 있고 새로운 교훈이 아니냐? 하고 서로 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권위 있고 자신 있는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놀란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까지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누가 이와 같은 말을 한다면 반대를 받을 것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이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를 굳게 믿었고 당신의 사명(Mission)에 대해서도 그러하였습니다.

사도들 역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를 믿는지 잘 알고 있으며, 또 내가 말한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2티모 1,12). 또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로마 8,38-39).

교회는 오랜 동안 교황이나 주교들이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예수님의 권위로 받아들였으며 그 말씀을 잘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회의(懷疑)를 갖고 논평하는 일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보다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와 독서, 그 뜻을 이해하려는 성서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 다행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성서를 공부하고 나누고 하면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 보다,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을 교리에 관해서는 설사 크고 작은 의문이 일어날지라도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으니 예수님과 사도들, 교회처럼 굳은 신앙으로 믿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 하라.”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은 기도 안에서 자라납니다. “기도대로 믿고 믿는 대로 기도하라”(les orandi, les credendi)는 말이 있습니다.

축성생활에 대한 공의회 문헌에서는 그들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교회는 묵상과 성서 읽기와 전례, 이 세 가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례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원이란 무엇입니까? 수도원은 기도하는 집이며 이곳에서는 다른 곳보다 더 많이, 더 훌륭하게 기도합니다. 수도원을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께 기도하러 오고, 수도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려고 옵니다. 수도원 내는 다

른 곳 보다 조용하고, 수도자들이 함께 살며, 전례도 더 열성 있고 더 엄숙하고 장엄하게 거행합니다.

기도에는 개인기도와 공식기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교회의 기도라 불리는 공식기도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기도는 미사봉헌과 수도자의 기도와 성사들입니다. 공식기도는 자신을 하느님께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므로 성의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느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네딕도 성인은“주님의 일”(L'opus Dei)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당신의 신비체들로 말미암아 하느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각 수도원에서는 성당을 제일 아름답게 장식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며 많은 꽃으로 되도록 화려하게 꾸밈니다. 전례는 되도록 잘 연습하여 음악적으로 아름답게 노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제의와 질서 있는 예식으로 우리의 경배와 큰 기쁨과, 예의를 표현하는 미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미사 동안에는 우리가 하늘의 천사들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교황 비오 10세는 신자들이 아름답게 기도하는 모습을 좋아하셨습니다. 정성스럽게 바치는 예식은 우리의 굳은 신앙을 표현하며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교회의 확실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안타깝게도 본당에서 거행되는 미사를 보면 엄숙한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고 너무 빠르고 많은 사람들, 떠드는 아이들과 대충 해치우는 듯한 예절, 이런 상황에서 이해는 됩시다만 유감입니다.

다행히도 수도원들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예절과 엄숙한 분위기가 우리 마음을 상쾌하게 해 줍니다. 그러므로 신자들 중에는 수도원에 가서 수도자들의 기도 시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이므로 여러분들께 부탁하노니 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고 오히려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초대도 영적 애공이 됩니다. 이렇게 수도원의 기도시간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시간을 정해놓고 게시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바꾸지 마십시오.

물론 모든 신자들이 자기 본당에 가는 것이 의무이지만 가끔 수도원에 와서 미사 드린다고 누가 방해 하겠습니까? 일반신자들에게 우리의 전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간에 입춘이 있습니다. 이제 추위도 한풀 지났으니 우리가 아름다운 성당으로 빨리 돌아 오기를 희망합니다.* 예절은 우리의 큰 믿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교회와 사도들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해주십시오.

*추울 때는 작은 강당에서 겨울동안 미사를 봉헌함

연중 제4주일

복음: 마르 1,21-28 1독서: 신명 18,15-20 2독서: 1코린 7,32-35

나자렛에서의 설교

오늘 복음 말씀은 지난 주 복음의 계속입니다.

1. 예수님이 예언자 이사야 말씀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이 모두 감탄하였습니다. 참석자들 대부분이 나자렛 사람들이라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고 어릴 때 같이 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유다 지방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예언자라하고, 어떤 이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 하고, 그러나 모세와 같은 기적을 하는 것은 본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자기라고 말하므로 모든 이가 어리둥절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성서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루카 4,21-22). 그런데 참석자들 중에 한사람이 “저런! 저 사람은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잖아!” 하고 소리치자 이 말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그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그가 말하는 것은 그냥 말에 지나지 않는다.” 하며 술렁거렸습니다.

“네가 가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네 고향에서도 해보아라”(루카 4,23)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실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린시절 동료들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함께 살았던 고향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루카 4,24)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 설교하러 가시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싶어 가셨지만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들의 태도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친구들이나 친척들로부터 받는 고통은 더 아픈 것임을 우리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2. 주님의 큰 고통

나자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한 것은 그분이 가난하고 겸손하여 자신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자나, 학자나, 귀족과 같은 사람들을 존경하는데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과는 달리 고위층 신분의 사람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들과 다를 바 없는 출신의 예수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며, 자기네들 보다 높은 지위에서 존경받는 것에 질투심이 일어나 예수님을 적대시한 것입니다.

회당 안에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첫 번째 갈바리아 산을 오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으면서 자기들 앞에서 기적을 해보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왜 기적을 하지 않는지 아느냐? 무슨 권리로 나에게 기적을 요구하느냐? 너희는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 너희들에게서 믿음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엘리야 시대에 삼년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는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느님은 엘리야를 시돈지방 사렙타의 한 외국인 과부에게 보내셨다. 마찬가지로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내에 많은 나병환자가 있었지만 한사람도 고쳐주지 않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 만을 고쳐주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3. 이 말을 듣고 나자렛 사람들은 자존심이 몹시 상해 분노하며 예수님을 회당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들이 화가 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조상들을 들추어 그들이 너무 악해서 하느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은 결국 자기들도 조상들을 닮았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

다.

그 동네에 절두산 같은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밖으로 끌어내어 그 산벼랑에 가서 밀어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 그 때는 오직 하느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예수님은 개탄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곳을 벗어나 떠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셨다”(루가 4,30). 예수님은 마음이 슬퍼서 쓸쓸히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다시는 나자렛으로 돌아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무한정 사랑하시건만 어째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 자신도 가끔 나자렛 사람 같지 않았는지요? 예수님이 슬펐던 것은 나자렛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방어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수난을 받으실 때도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위해 변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나도 죄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4. 이야기 중에 그곳에 있었음에도 그 사람에 대해 말하지 않은 분이 한분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그때에 나자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것은 어머니를 보러 오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회당에서 군중이 거칠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증오를 보며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받으셨을까요? 아마도 하느님께서 수난 때에 소리치는 군중들의 외침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는 고통을 위해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보다 주님의 고통에 대해 더 고뇌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신의 고통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더 아파하게 마련입니다.

수녀님들!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 수녀들 모두가 하나 되어 진정으로 예수님과 일치하고 있다는 말을 나는 듣고 싶습니다.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 중에 성모마리아를 위로해 드립시다.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은 지나간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까지 연장되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연중 제5주일

복음 : 마르 1,29-39

기쁜 소식

매일 라디오, TV, 신문을 통해 뉴스를 듣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소식을 들으면 행복합니다. 매주 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듣는 복음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며 큰 뉴스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소식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좀더 이해하기 위해 잘 들어봅시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이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마르 29,38).

예수님은 갈릴래아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제자들에게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서도 나는 전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하느님은 엄한분도, 헌병처럼 감시하는 분도, 거만한 분도 아니며 너무 멀리 계신 하느님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와 함

께 계시고 사랑자체인 아버지로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환대하시고 용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기쁜 소식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우리와 함께 사시며,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함께 겪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남녀노소, 어린이나 젊은이나 가난한 이나 부자나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신흥종교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하나로 모아들이기 위한 하느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까? 두 가지 방법, 말씀과 행동으로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 주님의 말씀을 몇 가지만 회상해봅시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아흔 아홉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나라에서 더 기뻐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하고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시오. 내가 여러분을 편히 쉬게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행동으로 : 악령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며 모든 이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가파르나움의 모든 주민들이 베드로와 안드레아의 집 앞에 모여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주님의 일은 계속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먼동이 트기 전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시몬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만나서 “모두들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님은 “다른 이웃고을들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성공을 찾거나 감사를 받으려 하지 않고 여러 곳을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잠든 영혼들을 일깨우며, 어느 곳을 가시든지 씨를 뿌려놓고 다른 곳으로 떠나십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이 자신들을 찾아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하느님의 선하심과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을 느끼며 하느님의 현존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진실로 사람들 가운데 계신 하느님 사랑의 표징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하느님의 표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여러분에게 내가 같은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오늘도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많은 종교와 종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 모두가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하느님을 찾고 있으며 특별한 사건이나 기적으로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증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에서 또는 그리스도 신자들에게서 하느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가 하느님이 머무시는 장소로서의 표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며 신자들 중에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당에서 한 아버지가 세례를 받으려고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왜 아기에게 세례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 내가 신자이니 교회 규정에 따르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신자에게 교회는 행정기구로서 세례 주는 하나의 단체로(Societe) 알고 있으니 듣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신앙에 의한 것이지만 어떤 규정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예로 최근에 TV에서 정당이 다른 두 사람의 정치인이 토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무렵에 한사람이 상대방에게 당신의 당은 마치 종교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믿어야 할 도그마가 있고 지켜야 할 규정이 있고 해야 할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말 하는 것을 보십시오! 교회를 직원들의 한 단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먼저 기쁜 소식을 영접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자나 비신자나 교회를 하나의 당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교나 신부는 권력 계통의 장관쯤으로 생각하고, 표면상으로 보아서 기쁜 소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이 요구되는 것은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교회에서 그렇게 자주 돈이나 규율 같은 이차적인 것을 강조하는지요!

이사야 예언자처럼, 가파르나움의 예수님처럼, 주저하지 말고 정의와 평화를 외칩시다.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보내시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루카 4,18).

다행히도 많은 나라에서 교회가 이 기쁜 소식을 교육하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아메리카에서 그러합니다. 교회를 상대로 부자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이유는 교회가 노동자들에게 너무 적은 봉급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부정행위로 착취를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주교들이나 신부들, 용감한 신자들을 체포해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상대로 분노한 자들을 예수님은 “악령에 사로잡힌 이들” 사마리아사람 이라고 하였다면 오늘날에는 주교 신부를 공산주의자, 빨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도리어 교회가 하느님의 표징으로서 증거가 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알려지니 잘된 일입니다. 교회 역시 돌이켜보면, 교회가 너무 부자였기 때문에 여러 번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남아메리카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은 교회가 가난한 사람 편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으로 인해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하느님에 대해 가르치고 성사를 집행하는 것이지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평화나 정의,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 등에 대해 간여해서는 안 된다. 고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교회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들, 나병환자들을 고쳐주고, 균증을 먹여 주는데 누가 감히 비난하겠습니까?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기쁜 소식일진대! 신자 각자, 수도자 각자는 기쁜 소식을 운반하는 사람으로 각인되어야 합니다. 나와 너 모두는 생명과 행복을 누릴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연중 제5주일

복음 : 마르 1, 29-39 2독서 : 1고린 9,16-19.22-23

나태

성서를 읽다가 왜인지 나도 모르게 근면을 주제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전 생애에 걸쳐 부지런하셨으며 결코 나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도와 함께 일하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버지의 일을 혼자 맡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목수” 라고 부르기도 하였지요. 오늘 성서에서는 하늘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예

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가파르나움의 사람들은 많은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왔고 그 마을 사람들도 모두 그곳으로 몰려 와, 예수님은 설교를 하시고 병자를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아침 일찍이 몰래 기도하러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자 그곳에 예수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웃 고을 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래아 전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전도를 하셨으므로 마르코 사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먹을 시간조차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지런하신 주님! 우리도 시간을 낭비 하지 맙시다.

수도자인 우리들도 부지런히 일 합시다. 수도자 중에는 게으른 사람이 없는 줄 아십니까? 있고말고요!

1. 게으른 수도자여! 그대는 자신의 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수도자입니다.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가졌다 해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느님이 우리에게 “당신들도 내 포도밭에 와서 일하십시오!” 말하자면 가서 네 영혼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헛되고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게으른 수도자여! 그대는 매일 아침 묵상하지 않고 규칙대로기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게으른 수도자여! 그대는 죄를 피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선행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서에 “타락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는 동안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마구 탕진해 버렸습니다.

2. 게으른 수도자여! 그대는 지나치게 세상일에 관심을 가지므로 천상 것을 잊고 사는 수도자들이며,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언제나 이유를 대는 사들입니다. 빨래하느라고, 교리준비 해야 하므로, 손님 접대하느라고 등등 핑계를 댑니다. 하느님 앞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은 이차적인 분이 아니라 첫째로 중요한 분입니다. 이런 핑계들은 하느님께 모욕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할 일이 있을 경우, 미리 예측하고 기도시간이 방해받지 않도록 시간을 조절하십시오.

3. 게으른 수도자여! 많은 시간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잡담을 하고, 놀고, 낮잠 자는 수도자들입니다. 이런 행동은 소비녀들의 정신에 벗어난 행동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어떻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바오로 사도는 달리는 선수들의 정신을 갖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1고린 9,16) 라고 까지 말하였습니다.

4. 게으른 수도자여! 그대는 신분에 맡겨진 의무를 열심히 하지 않는 수도자입니다. 각자는 신분에 맡겨진 의무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수녀들이여!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는 예수님처럼, 조용히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주님처럼,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십시오.

본당에서 일하는 수녀들이여! 예비신자들과 병자들을 방문하고, 가르칠 교리를 열심히 준비

하며 공동체 수녀들과 더 나은 방법을 위해 대화 하십시오.

5. 게으른 수도자여! 그대는 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수도자들로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수도자입니다. 사람들의 찬양을 받기위하여 또는 장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일하는 수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진실히 이르노니 저들은 벌써 제 상급을 다 받았다.” 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흔히 동료 수녀들과 비교하며 나보다 열심도 없고, 규칙도 잘 지키지 않고, 성당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도 별로 볼 수 없는데 저런 수녀들이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존경받고, 오히려 그들이 큰일을 맡아 하고 있다고 하며, 하느님께 불만을 하는 수녀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무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더욱이 비록 그것이 주님께 관한 일일 지라도 그 일 이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을 돈으로 거래를 하니깐 그것이 습관이 되어 하느님과도 거래를 합니다. 우리가 수녀원에서 열심히 기도하므로 하느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습니다. 항상 빛을 지고 있는 것은 우리들인데 말입니다!

우리도 하느님처럼 무상으로 일합시다. 넓은 마음으로 무상으로 주고 매일 열심히 일합시다. 병자를 간호하러 갑시다. 비신자들, 냉담 자들, 예비신자들을 방문하러 갑시다. 하느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인생은 짧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가를 보고 일하기보다 예수님처럼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과 우리들의 형제인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일 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체가 되며 또 다른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연중 제6주일 (1973년)

복음 : 마르 1,40-45 1독서 : 레위 13,1-2.44-46

나병환자를 고치심

여러분은 오늘 성경말씀에서 나병환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어, 보통 평범한 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한 나병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보시고, 그를 낫게 하였다.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으나 나병환자는 너무 기뻐 이 사실을 사방 다니며 말하였다.” 이 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들을 수 있으나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1. 나병과 나환자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 2. 우리가 생각하는 나환자들. 3. 예수님이 요구한 태도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유대인들의 생각

예수님 시대에는 나환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법문에도 (1독서)나병에 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나병을 죄의 상징으로, 나환자들을 죄인으로 취급

해 왔습니다. 나병은 나환자의 몸의 상처에서 심한 냄새가 나고 전염병이므로 이들을 마을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이렇게 나환자의 영혼도 썩고 고약한 냄새와 전염성으로 하늘로부터 내침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환자와 만날 수 없었으므로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나환자가 아닌데도 나환자 취급을 받는 계층이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마귀 들린 사람들, 미친 사람들, 간질병 환자, 정신병자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공적인 대죄인들, 창녀들, 도둑들인데 그들을 세리라고 불렀으며 성서에서 이들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이들과 식사하는 것마저 거절하였고 아무도 이들과 친하게 지낼 수 없었습니다. 죄가 없을 경우에도 이들을 파문당한 사람, 가장 천한 사람, 최 하층민으로 취급 하였으므로 이 가엾은 사람들은 회복할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성서에서 예수님이 이런 환자들을 고치시며 두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때는 항상 이 두 가지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ㄱ) 개인적으로는 병을 고치시고, 손 댈 수 없는 사람을 만지십니다. 이 불결한 사람을 깨끗이 정화시키시고 건강보다는 인간성을 회복시켜주시어 정상인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말 할 수도 있고 친구나 이웃도 가질 수 있으며 가정도 가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ㄴ) 사회 안에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십니다. 하느님께 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는 백성, 모두가 형제가 되는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십니다.

2. 오늘날 생각해야 될 것은 비록 나환자들은 많지 않다 하더라도 나환자처럼 취급받는 사람들, 즉 만나기 꺼려지는 사람들이 나환자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멀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사회적으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 TV 에서 본 일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숨겨진 장애인들, 정신이상자, 죄수들, 알코올 중독자, 매매춘여성, 미혼모, 노인들, 실업자, 환자 등등 한국에서만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사 오백만 명은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말도 걸지 않고, 보기도 싫어하고, 만지기도 싫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들은 정말 나환자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익이 되지 않고 효과가 없는 것은 거부합니다. 이러한 이십세기 나환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인간성을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파문을 취하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불치의 나병도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실망도 없습니다. 아무리 깊이 떨어진 사람이라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런 사람들을 나와 꼭 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천상의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어서 고을의 한길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 오너라”(루카 14,21).

3. 오늘 성서 말씀의 의미는 그 이상의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환자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상징합니다. 이원론적으로 나환자와 건강한 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정의와 불의로 분류하지 않고 다만 이 지상에는 빛을 향하여 걸어가는

백성과 진리를 향하여 가고 있는 하나의 가족이 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를 파문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의견에 따라야 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같이 가면 내가 더러워지겠습니까? 예수님은 더럽혀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분은 나환자를 만지시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분은 몸소 우리의 허약함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셨다.” 그분은 모든 나환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소 죄인들이며 나환자이지만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이라고 해서 더 훌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쳐부수고, 매일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합시다. “나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찾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1고린 10,33. 11,1)”

연중 제6주일(1973년)

복음 : 마르 1, 40-45

나병과 죄

“예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마르 1,41).

교회는 성서를 인용해 치유 받은 나환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나병을 죄와 비교하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점입니다. 나병은 육체의 병인데 비해 죄는 영혼의 병입니다. 그럼에도 나환자는 바로 죄인의 상징이었으니 말입니다. 먼저 나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나병. 나병은 한센 균으로 혈액 내에 염증을 일으켜 피를 오염시키므로 몸이 허약해지고 종기와 부스럼이 어느 면으로 암이나 주마창(走馬瘡)처럼 나타나, 몸은 붓고 고름이 흐르며 사람의 외모를 완전히 망가트리는 병입니다. 손가락, 발가락, 귀, 코가 떨어져 나가고 냄새가 지독합니다. 이 가엾은 환자에게는 책임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 환자가 적기에 약을 복용하였으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병은 사람들이 주의만 잘 하면 전염되지 않지만 주의를 하지 않으면 병에 걸리게 됩니다. 어쨌든 나병은 환자들이 일반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야하고 아무도 그들을 찾아가지 않을 만큼 무서운 병입니다. 내가 말 하고자 하는 것은 나병이 아니라 죄에 관해 말 하려 합니다.

2. 다음으로 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나환자는 점차적으로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여 장애인이 됩니다. 그리고 죄인 역시 그의 영혼은 이와 같이 흉측한 상태가 됩니다. 그의 영혼은 하느님의 모상인데 죄로 인하여 이 하느님의 형상을 잃게 됩니다. 마귀도 죄짓기 전에는 아름다운 천사였는데 그의 죄악 때문에 흉악한 마

귀가 된 것입니다.

아담 에와도 죄짓기 전에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으며 아름다웠지만 죄를 지음으로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 숨어버렸습니다.

탕자는 자기 아버지를 떠나 많은 죄를 짓고 재산(은총)을 모두 탕진한 후 돼지들과 함께 살며 돼지 먹이를 먹었습니다. 보십시오. 죄로 인하여 영혼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나환자에게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시엔나의 성녀 가타리나와 필립 네리와 성 비안네 성인과 같은 분들은 냄새를 통해 죄의 상태에 있는 영혼을 알아보셨다 합니다.

오. 가없는 죄 상태의 영혼이여! 너의 최초의 아름답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가!

나병은 전염성이라고 하는데 죄인도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인들과 함께 다니고, 놀고, 이야기하면 나쁜 것을 배우게 되고 언제나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죄인은 강압적으로 마귀처럼 우리에게 유혹을 걸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나쁜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가능하면 항상 선한 사람들과 함께 다닙시다.

예수님은 악한 표양 주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악한 표양 때문에 양화르다!” 옛날에 악마들 때문에 많은 천사들이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담과 에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으니, 나 때문에 다른 영혼들이 죄짓게 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450여 년 전, 영국의 헨리 14세 왕 때문에 영국은 이교국이 되었습니다. 부인으로 인하여 남편들이 망쳐지는 일도 있고 남편들에 의해 부인들이 망쳐지는 수가 있으며 형제들이 자기들의 형제들에게 죄를 가르치는 일도 있습니다. 사과 상자 안에 사과 하나가 썩으면 모두가 썩게 되지요! 만일 로마교황청에서 어떤 책들을 금서로 지정한다면 그건 전염성 때문입니다.

결국 나환자들은 격리되어 삽니다. 내가 나병환자 젊은 부인과 또 한 아버지를 보았는데 누구도 그들을 찾아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느님도 죄인들을 쫓아내십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마태25, 41). 하느님은 천사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셨으며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도 에덴동산에서 내쫓김을 받았고 노아도 무례한 아들 함을 내치셨습니다. 죄인 역시 내쫓김을 받아 더 이상 하느님과 천사들과 성인들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나환자는 이제 돈을 벌 수 없어 구걸을 해야 합니다. 죄인도 더 이상 공덕을 쌓을 수 없고 이미 얻은 공덕도 모두 잃게 됩니다. 그가 죄인의 신분에는 있는 한 그는 죽은 것과 같아서 좋은 일을 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고 나는 말하겠습니다.

수녀님들!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느 면에서 나환자가 아닌가요? 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서에 나오는 나환자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을 뵈러 가서 “스승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마르 1,40) 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주시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항상 같은 분이시며 부활하시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느님은 영원하시고 항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신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십니다. 나환자의 청을 들으시고 그를 만지자 믿어지지 않는 일이 생겨나 그가 치유되었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처럼 그분의 전능을 보게 됩니다. “dixit et factum est ...” (말

씀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volo mundare" (너는 깨끗하게 되었다.) 주님이 이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하여 먼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수녀님들! 여러분들이 수도생활을 하는 동안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육체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 환자들, 노인들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고통의 실제에 대해 호소하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처럼 그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흔히 자신의 불행을 말함으로써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마도 이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가소비녀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재산이 없는 사람뿐 아니라 사랑의 결핍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는 감사할 줄 모르는 노부인을 도와주었는데 어느 날이 노부인이 다른 수녀에게 “데레사 수녀님이 나를 떠나기 전에 나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셨는지 내 영혼이 햇빛을 담백 받는 듯 했다.”고 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은 가끔 그들에게 유일한 태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도우십시오. 물질적으로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도우십시오. 신자들에게 사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십시오. 신자 각자는 물론, 수도자들은 가난한 사람 하나씩 맡아야 합니다. 표양으로, 말로, 그들이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도우십시오.

연중 제7주일

복음 : 마르 2,1-12 1독서 이사 43,18-19.21-22.24-25 2독서 : 2고린 1,18-22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 고백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마르 2,11). 이 중풍병자는 많은 그리스도 신자들의 모상(模像)입니다. 재물과 안락에 대한 욕구로 일상과 다른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 노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앓아누워서 감히 자신의 성화를 위한 노력은 엄두도 못 내고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도 “아들아 일어나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용서 이전에 고백 성사를, 아니 화해의 성사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화해의 성사에 대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할 때마다 언제나 기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을 용서했을 때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베풀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은 목자는 그 양을 다시 찾은 후 너무 기뻐서 자기 친구들을 불러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은전 한 닢을 잃은 여인이 그것을 되찾고 기쁨에 넘쳐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함께 기뻐하자고 하였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용서받은 죄인 하나를 아흔아홉의 의인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에게서, 고백성사를 받은 후 이런 기쁨을 느끼는 것을 별로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고백성사는 걱정, 근심,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고백소에 들어가는 것이 재미로 가는 것이 아니지요!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

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백성사에 대해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어긋났습니다.

1. 예수님께는 고백성사가 하느님과 교회와 형제들과의 화해인데 반해, 우리는 개인적인 완덕의 도구라고만 생각합니다. 마치 죄를 세탁하는 기계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는 완성은 전적으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있는데 비해, 우리는 완성이 “죄 없는 상태인 나”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 없이 완전한 자 되기를 바라는 일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일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임무(사랑)를 다하려는 데 있습니다.

“일어나라.” 뒤 돌아 보지 말고 앞을 보십시오. 물론 항상 우리 마음이 하느님을 향해 있어야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도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완전을 지향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에만 매달리는 것은 너무 소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작은 창조물 중의 하나이기에 서로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백성사의 직접적인 목적은 먼저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하는 일이며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그 다음 이차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느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약한 인간이기에 죽는 순간까지 여전히 죄를 지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다면 고백성사를 볼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항상 같은 잘못에 떨어지니 차라리 고백성사를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고 말입니다. 고백성사가 나의 약함을 제거해 주는 약이 아니라 하느님과 내가 화해하는 것이므로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소 게으르고 이기적이며 교만하고 불결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멀어질 때마다 점점 죄를 더 가까이하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즉 내가 미워하는 동료를 사랑해야 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이를 도와주며 수도자로서, 신자로서, 간호사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고백성사를 보고 의무를 잘 완성할 때 나의 결점은 사라질 것입니다. 고백성사가 나를 평안케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완전한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지닙시다. 내가 죄를 지을 때 마다 “내 영혼이 더럽혀졌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졌다”라고 말 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전부이시고 전능하시며 무량하십니다. 왜 항상 자신을 생각하고, 왜 항상 죄를 생각하십니까?

양심성찰 : 고백성사를 보기 전에 먼저 양심 성찰을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하느님의 계명, 십계명과 교회법에 따라 성찰을 하도록 권하였습니다. 나도 얼마 전까지 청원자들과 수련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성찰 방법은 신자 생활이 순종의 삶으로 비쳐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정신이고 오늘날에는 신약을 중요시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였는가?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였는가?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하였는가?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였는가? 하느님께서 내게 맡기신 талан트를 증가 시켰는가? 이 세상은 나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더욱 정의로운 세상을 건설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양심성찰은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에만 한정된 성찰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성찰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 중풍환자처럼 누워있습니까? 서있습니까? 걸어서 일하러 갑니까?

중풍환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너의 죄는 용서 받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무언가 해야 합니다. 노래, 교리, 선교, 자선사업, 노동조합운동, 등등. 이러한 애덕 행위가 기쁨이 되고 하느님을 새롭게 만난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입니다.

연중 제7주일 (1979년)

복음: 마르코 2,1-12 1독서: 이사야 43,18-19.21-22.24-25 2독서: 2고린 1,18-22

중풍환자

오늘 복음에서 중풍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풍환자는 모든 신자들의 모상입니다. 그는 기력을 잃고 침상에 누워, 변화를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고 아무것도 시도해 보려 하지 않고, 어떤 노력도 할 의욕이 없어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생활도 흔히 이와 같지 않는지요? 성인(聖人)이 되려는 노력은커녕 누워있는 환자처럼 말입니다. 마르코 복음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주 전 주일에는 앓고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야기였고, 지난 주일에는 나환자의 치유에 대해, 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인데 실은 중대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깊은 내용의 교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1. 먼저 현장을 한번 재현해 보십시오.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시선을 두고 경청하는 광경!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문 앞에까지 꽉 차있는 모습과 사람들이 환자를 들고 지붕위에 올라가 구멍을 내고 바로 예수님 앞에 환자를 내려놓는 장면입니다.

옛날에는 중풍병자도 나환자처럼 죄인취급을 하여 축제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인간으로 존중을 받지 못해도, 남들의 멸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푸대접을 할지라도 겁내지 않을 그런 깊은 신뢰와 용기를 가진 환자를 보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그 마음의 슬픔을 얼마나 감싸주고 있는지! 감동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를 보아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 예수님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이 환자가 예수님께 청을 드리기 전에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악의 근절(根絶)을 원하신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 아버지와 화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병이 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은 분명하게 당신의 현존과 육체의 병의 회복과의 관계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느님이 이곳에 현존하여 계시면 악이 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환자와 환자를 운반한 사람들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즉시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하여 하느님을 모독하는가? 하느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 할 수 있단 말인가?”(마르 2,7). 이런 일을 두고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바로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너의 악행들을 씻어주는 이,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마르 43,25). 예수께서 즉시 대답하시기를 죄 사함을 받으면 그 죄의 상징인 병도 사라지게 마련이며 죄의 사함을 받지 않으면 그 죄의 상징인 질병과 고통이 남아 있게 된다는 의미로, 즉시 병자를 향하여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 거라”(2고린 2,10-11)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는 병이 즉시 나아 일어서서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느님을 모독한 자가 아니고 참으로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모든 이가 놀라 “이런 일을 처음 보는 일이다.” 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와 비슷한 기적을 본다면 과연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 믿지 않을 것입니다. 지식인들은 질병과 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하겠지요. 마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모독 자”라고 말한 것처럼! 기적을 부정할 것입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느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는 예! 도 되고 아니오! 도 되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늘 예! 만 있을 따름입니다”(2고린 1,19) 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을 보면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고 내일은 배척하는 그야말로 믿음에 확실성이 없고 쉽게 의심을 하니 완전한 믿음이 못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며 교회의 증인들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합니다. 참된 증인, 행동과 말이 서로 상반되지 않는 변함없는 증인을 말입니다.

연중 제8주일

복음 : 마르 2,18-22 1독서 ; 호세 2,14-15.19-20 2독서 : 2고린 3,1-6

기쁨

“혼인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야 없지 않느냐?”

하느님은 기쁨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에게 원죄 이후 인류가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루카 2,10)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서 행복의 법칙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말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등 여덟 가지 참된 행복을 선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성체성사를 세우실 때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15,11) 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은 이 기쁨을 온 세상에 알리러 갔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고 하였으며 사도 바오로는 세

례 받은 이들에게 당부하기를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하고 당부했습니다.

세례 때 사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이 사람이 기뻐하며 일하게 하소서”

교회가 즐거워하는 것은 매일이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당부하시니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1. 문제는 하느님께 대한 공경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당신 모상대로 창조하셨으므로 항상 기뻐하십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처럼 “하느님께서서는 기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인 이상 세례를 받은 신자라도 모든 이는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이 더욱 강하고 또한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영광이 더욱 크기에 우리는 기쁨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과 생명과 천국과 죄의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의 기쁨은 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의 가장 큰 표시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는 영예를 받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기쁨은 그리스도 신자가 누리는 어마 어마한 신비입니다. 샤를르 드 후끄는 “하느님은 무한히 행복하신 분이여 나에게 주시는 그분의 행복으로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비가 오는 눈이 오는, 날씨가 춥든 덥든, 나와는 상관없다.” 하였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게 마련입니다. 파스칼은 “참된 그리스도 신자 보다 더 행복한 사람을 없다.” 하였습니다. 마음이 열정으로 타오를 때 언제나 축제의 기분으로 기뻐합니다.

2. 우리 수도자들에게 기쁨과 에너지는 필수적입니다.

육신을 위하여 : 항상 즐거운 사람은 피로를 덜 느끼고 자제력이 있어 일을 잘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슬픈 사람들은 힘이 없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영혼을 위하여 : 유혹과 싸우기 위하여 기쁨이 큰 힘이 됩니다.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은 악마가 우리영혼에 먼지를 뿌린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기쁨이 영혼을 지배하고 있으면 마귀가 성공하지 못하지만 그 영혼이 슬픔에 잠겨있으면 성공할 것이고, 이 영혼은 세속의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을 것입니다.

기뻐하는 영혼은 용감하게 노력과 희생을 하지만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은 마치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같이 보일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 안에 오시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영혼이 기쁨으로 고양 되어 있을 때 슬픔으로 억압되어 있는 영혼 보다 더 쉽게 들어오십니다. 프란치스코 드 살 성인은 “슬픈 성인은 불행한 성인이다.” 하였고 아빌라의 테레사 성녀는 “마음 안에 기쁨이 없는 수도자를 보는 것보다 더 불안을 주는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도 총장 수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3. 기쁨은 성공의 조건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제들과 수도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이 헌병 대장처럼 벌을 주기위해 우리 죄를 찾아내려고 살피는 하느님으로 생각합니다. 수도자들은 이런 하느님처럼

럼 까만 옷을 입고 십자가와 지옥을 설교하므로 슬픈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사제나 수도자가 성격이 나쁘고, 침울하고, 어색하고, 냉랭할 때 사람들은 그들과 접근을 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제나 수도자가 항상 기쁘게 산다면 사람들은 그들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더 쉽게 신뢰하고 접근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은 확신을 주고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업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제나 수도자가 실망하지 않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다시 힘을 얻어 재기(再起)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힘을 주고 기쁨을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현 시국이 어렵다든가 검은 구름이 끼었다든가 하며 떠들기 보다는 사람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박해시대에도 항상 기뻐하였습니다. 로마에 카타콤바를 가 보십시오. 순교자들이 묻힌 곳이지만 사람들은 그곳에서 기쁨과 평화를 말합니다.

기쁨은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예를 들어 소비녀들이 항상 즐거워하면 여러분들은 동경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기쁨은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갈망하게 합니다. 이 고통 중에 기쁨은 영혼들을 드높이 고양되도록 초대합니다. 기쁨이신 하느님을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참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기쁨이 없는 신부나 수녀는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기쁨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착한 종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자!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수도생활에서 기쁨은 공동체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입니다. 언제나 마리아처럼 노래를 부릅시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연중 제12주일 (1970년)

복음: 마르코 4,35-40 1독서: 욥 38,1.8-7 2독서: 2고린 5,14-17

영혼의 풍랑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의 짧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사도들처럼 도대체 이분이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해 봅시다. 별스럽지 않은 것 같지만 교회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을 태운 이 작은 배는 참으로 교회입니다. 이 천년 동안 교회는 박해와 이단으로 많은 풍랑을 겪었고 교회의 사제들과 신자들의 잘못으로 역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또한 한국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백 이십 이년 전 이 작은 배는 중국의 상하이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배에는 한국의 장 주교님과 첫 사제인 안드레아 김 신부님과 다 불리 안또니오 주교님, 뱃사람으로 몇몇 열심한 신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배는 또한 한국의 교회였습니다. 오는 도중 풍랑을 만나 제주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 군산과 강경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교회는 계속 풍랑을 겪었습니다. 오늘도 풍랑은 계속되지만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도움으로 헤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이야기는 또한 성가소비녀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배안에 있으며 이십 칠년 동안 많은 풍랑을 만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노력을 다 한다면 안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은 이야기는 우리들 각자의 영혼의 이야기이기도합니다. 우리는 한 생애동안 이 세상을 향해 합니다. 이 세상은 마치 바다 같아서 각자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예수님을 쫓아내지 않는 한,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어찌하여 겹을 먹느냐? 내가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1. 오늘은 특별히 우리영혼의 풍랑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어떤 풍랑들이 있을까요?

먼저 외적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질병들인데 때로는 장기간을 요할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이 클 수도 있으며, 심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 물질적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빛이 되기도 하여 경우에 따라 사업의 파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또한 공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의 미움일 수도 있고 험담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일일이 다 말 할 수 없는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적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악마의 유혹들입니다. 누구나 유혹을 받으나 악마는 세속 사람들 보다 열심한 영혼들과 수도자들을 더 유혹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욕망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원죄 이후 교만, 음행, 탐욕, 이기주의와 우리의 열성을 비웃고 수도생활을 떠나도록 항상 유혹하는 세속정신이 우리 삶 안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불행하지요! 게다가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우리를 버리신 것 같기도 하니 말입니다.

2. 왜 하느님은 이런 고통들을 허락하실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풍랑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사도들이 자신들의 약함을 인식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권능을 알아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느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고 위와 같은 동기에서 허락하십니다.

하느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큰 열성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고통이 없다면 사람들은 미온적이 되어 하느님을 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바로잡으려 노력도 하지 않으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 중에 성인 성녀가 되고 공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고통 중에 믿음과 희망과 애덕을 실천하고 인내와 겸손과 온유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성인들은 모두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읊, 토 빛, 성모마리아를 보십시오.

또한 하느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속죄하도록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연옥 단련보다 덜 고통스럽기 때문이지요. 또한 그리스도를 닮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가장 깨끗하신 분이었지만 가장 고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3. 이런 영혼의 풍랑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보내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니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순명합시다. 하느님은 우리 머리카락 까지 다 세어 두셨습니다. 읊처럼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았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욥 2,10) 하였고, 토빗의 감사의 노래처럼 “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주님을 찬미하고 영원하신 임금님을 높이 받들어라.”(13,6) 라고 찬양 합시다.

우리가 겹을 먹으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같이 “왜 겹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 자체나 또는 여러분에게 시련을 준 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느님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느님과 그분의 뜻을 보도록 노력 하십시오.

풍랑 속에 사도들처럼 우리도 그 시련에서 벗어나도록 노력을 다하며 예수님께 신뢰를 갖고 “주님 제가 죽게 되었는데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청합시다.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 하느님께서 원하신 고통이므로 인내와 보속과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으면 크게 영적 진보가 될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던 날 베드로 사도도 배안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주님의 권능을 경험한 베드로는 후에 신도들에게 “여러분이 하느님의 강한 팔 아래 스스로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마음으로부터 감사드리고 예수님과 일치하여 살아가십시오. 성무일도 기도 중에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고난 중에 내가 주님을 불렀더니 주께서 나의 청을 들어주시어 나를 구해주셨도다.” “환난 중에 그와 함께 있어 그를 구해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노라.”

연중 제13주일

복음 : 마르 5,21-43 1독서 지혜 1,13-15.23-29 2독서 2코린 8,7. 9,13-15

야이로의 딸

하느님을 믿지 않는 많은 나라들은 대부분 부적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을 파는 장사꾼들도 있고 심지어 신문에서 까지 선전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물건을 지니면 복이 오고 화를 면하며 장수하고 병을 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모순이 있으니,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죽음을 매일 접하고 있으며 예수님도 죽음을 체험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서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마르 5,23) 하고 간청합니다.

1.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사상가들이나 지식인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처음부터 회당장 야이로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께 청하자 예수님께서 곧 그를 따라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인이 와서 회당장에게 하는 소리가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날에도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삶을 희망합니다. 요즈음의 의사들은 엄청난 의술을 갖고 수술을 하며 좋은 약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죽게 되면 낙담하고 침묵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지요. 때로는 삶의 의욕마저 상실합니다. 죽음은 당황하게 하고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이가 평등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 중에는 나이 많은 이들도 있지만 젊은이들도 있고 심지어 어린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는 살아서 좋은 일 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신앙이 없어 죽음 후에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비통해 하며 고통스럽게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단 한번 밖에 없는 여행입니다. 길고 혹은 짧은 여행이지요. 마침내는 마지막 경계선에 이르러 정지! 하는 뜻밖 앞에 정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더 이상 아무것도 희망할 것도, 청할 것도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간단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마르 5,36b) 하고 말씀하십니다.

2.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초상집에 도착하셨을 때, 얼마나 슬픈 광경이었는지요!

온 가족은 깊은 슬픔으로, “아이고, 아이고” 울부짖고 문상 온 사람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관습에 의해 시신이 있는 방은 잘 꾸며지고 세상 어디서나 장례는 화려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을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는 죽음이 결정적인 것도 아니고, 돌이킬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마르 5,39)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 일으킬 수 있지만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침대 곁으로 가지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시자 소녀는 곧 바로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마르 5,42)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매년 기적을 행할 때마다, 비유로 가르치실 때 마다, 주님은 용서하고 용기를 주며 항상 생명을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십시오. 언제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느님은 생명을 원하십니다. 나는 살아있지만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마치 거울이 빛을 반사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느님을 반사합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느님을 반사하지 못했지만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은 아이에게 가까이 와 손을 잡으시자 그 아이는 다시 하느님을 반사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이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요 생명과 기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생면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생면이란 하나의 불꽃처럼 꺼져가는 것인가요? 지나가버리는 것일까요? 미래를 위한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살어나게 한 것은 생명이 바로 그 앞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이를 다시 살릴 수 있으시니 하물며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을 새로운 방향으로 보도록 가르치십니다.

죽음이 종말이 아니라 생명이 종말이겠지요. 죽음은 하나의 “지나감”(paques)일 뿐입니다.

3. 부활시킨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부모에게 명하십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생명을 위하여 나와 함께 일하고, 내가 행한 일을 계속해서 하라” 는 부탁입니다.

어떻게 생명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죽음의 세력이 여러 가지로 많은데 이들 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모든 죄악들입니다. 즉, 과도한 근심, 낙담, 삶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짓누르는 증오, 불의와 온갖 반란, 죄악에 빠진 상태, 우리를 쇠퇴케 하는 외로움 등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날이 심각해지는 폭력과 군비경쟁이 있는가 하면 강탈과 소비 등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세력과 싸우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과 기술의 산물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환자들과 장애인들을 도와주며, 예수님이 죽음을 대하듯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신앙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생명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 하는 삶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위축되지 않고 초라해지지 않으며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아베 마리아”

마지막으로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키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한번 위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것은 나눔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나누십니다. 우리도 세상에 의해 비뚤어진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나누어 줍시다.

연중 제13주일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 믿음에 대한 찬사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인 부인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마르 5,34) 하였고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믿음의 모델을 말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여자 환자의 믿음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는 하느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할 필요 없이 그 옷자락만 만져도 충분하다고 믿었으니 말입니다! 또한 이 여자가 회당장 야이로 보다 더 겸손한 것은 야이로는 예수님께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서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분명하게 설명한 반면에 이 여자는 믿음과 겸손, 그 자체로 병의 나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은 모르고 계신듯했지만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겸손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의 소리를 모르는 체 하시는 것 같지만 그분은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흔히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나의 처지를 보고 계실까? 하는 의문이 생길 때 이 부인을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중하거나 가벼운 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병을 앓고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우리 자신을 자주 살펴볼 의무가 있으며, 우리의 중대한 결점인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부족함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하느님보다 먼저 우리의 일이나 우리 자신을 더 섬김으로 우상숭배자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환자이며 이 여자처럼 피를 잃고, 즉 공로를 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 결국 하느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매일 우리 곁을 지나고 계시니 그분께 가까이 가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먹기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만지기 위하여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먼저 자신이 병자라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1. 기도는 그분께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기도는 그분께 필요한 것을 설명하고 청하는 것이며 또는 말없이 그냥 그분 곁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바리사이와 사람들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는 것은 주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중얼 중얼 한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청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믿는 것은 고사하고 떠나겠다”는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명령이며 협박이지 기도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존경심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도 사랑으로 우리의 청을 들으시고 당신의 보화를 주십니다.

2. 우리는 고백성사를 통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특별히 고백소에서 예수님은 환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서든 어떠한 환자라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옛날 유다에서처럼 적어도 환자가 예수님에게까지 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3. 우리는 또한 성체 앞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미사에 참여할 때마다, 영성체 할 때마다, 특히 감실 안에 성체를 방문할 때마다 예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성체 앞에는 누구나 가까이 올 수 있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밤낮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체를 먹을 수 있으니 이 가련한 여자 환자보다 훨씬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이 여자 환자처럼 믿음과 존경과 겸손과 충만한 신뢰심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청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가까이 가십시오. 비록 말을 하지 않아도 하느님은 알고계십니다. “청하라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체 앞에 있을 때 갈바리아 산에 요한과 막달레나와 착한 우도가 예수님 앞에 있는 장면을 생각하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놀랐으며 동시에 얼마나 예수님께 사랑과 감사를 드렸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는 그때에, 고백성사를 보는 그 순간에, 영성체 할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이 여자에게서 처럼 우리에게도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하고 말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차별화된 수도자들이며 게다가 성가 소비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마다, 가난한 사람들 곁에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까이 계신 그때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동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고백성사를 볼 때, 예수님의 성체를 영할 때, 예수님은 당신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다른 수녀를 도와줄 때, 환자를 도와줄 때가 여러분을 예수님께 드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재물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그보다 훨씬 값진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연중 제14주일

복음 : 마태 11,25-30 1독서 : 예제 2,2-5 2독서 : 2고린 12,7-10

사람들은 때때로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서로 사이가 틀어져서 말을 하지 않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가족간에 또는 수도원 안에서, 이웃간에 대화와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말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자기는 옳고 남이 잘 못했다고 하며 상대가 와서 용서청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산다면 우리 사이에 사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교만 죄이며 악마의 죄이고 최초의 인간이 범한 죄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과 우리사이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정에 따라 사람에 따라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후에, 크게 사업에 실패했을 때, 감당하기 힘든 심적 고통과 걱정이 있을 때, 하느님께 반항하며 하느님께 대화나 기도하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록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언제나 대화하기를 바라시며 말하기를 거부하는 병어리는 거절하십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 유대인들은 수십 번 하느님을 저버리고 변질하였지만 하느님은 그때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사람들과 다시 계약을 갱신하셨습니다.

1. 마침 오늘 제일 독서 예제키엘서에서 이런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제키엘 예언자는 기원전 약 육백년에 살았던 분입니다.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너무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들을 벌하셨고 그들은 바빌론의 유배지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언자 예제키엘을 보내시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아,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나를 반역해 온 저 반역의 민족에게 너를 보낸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처럼 오늘날까지 나를 거역해 왔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한 저 자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마르 2,3-4). 그 후 육백년이 훨씬 지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 오시어 인간의 언어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고향 나자렛에서 자라셨고, 놀고 일하시며 그곳에서 삼십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 중에는 친척들, 사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자렛에 가시기 며칠 전, 가파르나움에서 훌륭한 교리를 가르치시고 많은 기적도 하셨습니다. 그 유명세는 나자렛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자렛 사람들은 질투심으로 그 소문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파르나움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를 믿지만 우리는 예수를 잘 알고 있지! 공부도 한 일 없고, 그 아버지와 함께 목수 일을 하며 살았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아주 평범한 부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곳에 평소보다 많이 모여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말을 할까, 침묵을 할까 생각하다가 모두가 특별히 고향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을 수 없어 말씀을 시작 하십니다. 왜냐하면 각자는 자신을 구원할 가능성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자렛으로 말하면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는 두 가지 불리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곳이 고향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서에 “예언자는 어디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마르 6,4) 하였고 두 번째는 “나자렛에서 무슨 신기한 것이 나오겠소?” 한 것을 보면 나자렛 사람들이 별로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사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훌륭한 교리를 선포하셨지만 그들에게는 무력하게만 보였던 것입니다. 사도들 모두도 그러하였지요. 그들은 교육도 받지 못했고, 가난한 시골 출신들이며, 언어구사력도 없으므로 이들이 복음을 전하여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오로를 사도로 뽑은 후에, 바오로는 누구보다 더 훌륭한 교리를 가르쳤지만 사도 바오로에게도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하였지만 키도 작고 시력이 몹시 안 좋았으며 대머리에, 때로 유혹도 있었을 것이니 말입니다. 진실로 이런 약점들은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느님은 바오로가 교만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으며 특히 청중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바오로의 말로 듣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필연적으로 겸손하고 약해 보이는 스승 앞에서 그들도 스스로를 낮추어 참된 믿음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실 때 골라 뽑지 않으셨고 특출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 세계에 보내신 사도들은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며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설교를 하고 기적을 행하며 특출 난 사람들이었다면 의심 없이 훨씬 쉽게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얻어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신중하셔서 믿고 안 믿는 것은 각자의 자유에 맡기셨습니다.

나자렛에서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당신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지위를 가졌다 해도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3. 복음에서 흔히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따름”이 오직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또는 기적을 보기위한 것이라면 옳은 것이 못됩니다. 예수님이 기적

을 행하신 것은 그 뜻이 다른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기적을 행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죄의 용서는 인간의 구원을 의미하고, 세상의 구원은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 사랑을 말합니다. 만일 기적을 보고 그 기적 자체만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는 것이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적 때문에 참된 믿음에서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나자렛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 기적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제키엘서에 “그들이 듣든, 또는 그들이 반항의 집안이어서 듣지 않든, 자기들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만은 알게 될 것이다”(예제 2,5) 라고 했습니다. 각자는 자기 신앙의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만을 읽지 말고, 그분의 말씀전체를 읽고 듣고 묵상합시다. 비록 짧은 말씀이라 해도 하느님의 말씀이므로 무한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연중 제15주일 (1970년)

복음 : 마르 6,7-13 1독서 : 아모 7,12-15 2독서 : 에페 1,3-14

파견(La Mission)

1. 복음에서 가끔 “Verbum Dei”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고 또 다른 단어 “Missus”(보내다. 보냄을 받은 자)를 가끔 만납니다.

예언자들 모두가 그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그들은 사명(Mission)을 다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합니다.

제1독서에서 야훼께서 아모스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하고 말씀하셨고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자신이 사도(Mission)라는 말을 자주하였으며 예수님도 당신은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보냄(Mission)을 받았다고 되풀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탈출 3.15) 하였으며 주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예집트에서 끌어내어라”(탈출 3.10) 하였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야훼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수령으로 성별해 세우는 것이요.”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저는 아이입니다. 하지 마라라.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말해야한다”(예레 1,7) 하느님께서 예제키엘에게 “사람의 아들이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나를 반역해온 저 반역의 민족에게 너를 보낸다”(예제2,3) 이사야에게 한 이 말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가리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하고 내가 아뢰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저 백성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듣고 또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말아라. 너희는 보고 또 보아라. 그러나 깨치지지는 말아라”(이사 6,8-9).

이것이 모든 예언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보냄을 받은 자” 라 하였고

성서에서 요한세자를 말할 때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요한 1,6) 라고 하였습니다. 천사들도 하느님께서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라파엘 대 천사가 토빗에게 “하느님께서 나를 파견하시어 너와 네 며느리 사라를 고쳐주게 하셨다. 너께서 보낸 자는 바로 나입니다”(토빗 12,14) 하였고, 가브리엘 천사가 즈가리아에게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루가 1,19)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신 것은 가장 큰 파견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침내 하느님께서 당신 외아들을 보내주셨다.” “너희를 받아드리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마태 10,40).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사도와 일흔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내어 설교하게 하셨으며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보내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성령을 받아라”(요한 20,21)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 예수님의 분부에 따라 사도들은 선교를 위해 떠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교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인원이 부족함을 알아차리고 부제7명을 선출하여 보냅니다. 그들은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보내고 바오로는 디모테오와 디도와 루가를 보냅니다. 베드로는 실비아를 보내고 요한은 폴리카르포를 보냅니다.

파견을 받지 않은 여러 사람들이 설교를 하기 시작할 때, 바오로 사도는 놀라서 “파견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하고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알리기 위해서는 먼저 파견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파견을 받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시대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고 사도들 시대에도 거짓 선교사들이 있었으며 오늘 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예수님께서 이런 거짓 예언자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속으로 들어가라”(마태 25,41) 고 말할 것입니다.

2. 공식적인 파견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1) 생명에 관한 문제 : 예수님께서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요한 10,28). 생명은 스스로 창조하지 못하고 번식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서는 씨를 품고 있는 살아있는 씨앗이 있어야합니다. 오늘날 까지 어떠한 과학자도 한 생명체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영의 생명을 다른 이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하느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기가 우리에게 까지 전해지는 과정에서 발전소와 전등 사이에 줄이 끊어지면 전기불은 도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요한 15,5-6)고 하셨습니다.

2) 진리에 관한 문제 : 파견 받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자기의 생각을 말 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파견 받지 않은 사람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 할 수 없으며 한나라의 대사도 본국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지 않은 사람은 대사가 아닙니다. 파견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느

님을 말한다면 무질서를 초래하게 됩니다. 마귀는 보냄을 받지 않았음에도 그는 성서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만일 누구나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이 말은 빨리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자기 방식대로 성서를 설명하다보면 머리 숫자만큼 해석이 다를 것이며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알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상반된 해석이 있게 되면 진리는 있을 수 없고 많은 환상가나 몽상가가 생기게 되어 무질서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로 파견된 사람은 하느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느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하느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을 가르칩니다.

3. 그러면 누가 하느님께서 파견한 사람이나?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특별히 성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사천년이나 오래된 책으로 연구하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을뿐더러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구할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전담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느님께서서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듯이 오늘날의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마태 16,18) 하고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결코 악마가 교황으로 하여금 오류를 가르치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결코 하늘의 열쇠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에게 맞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황님은 혼자 일을 하시지 아니합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주교들 신부들 수도자들 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파견된 사람들이며 교황님이 교육하시는 것을 교육하고 교황과 일치된 조건하에서 예언자들입니다. 더욱 우리는 구약시대의 예언자들 보다 더 큰 예언자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한세자에 대해 말씀하시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 보다 더 크다”(마태 11,11) 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파견된 자들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자는 자기 친구에게 전해야 하고 부모들은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며 신자인 교육자들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수녀들은 환자들과 만나는 어린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느님은 혼란과 무질서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서 만드신 모든 것은 질서 안에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당신 아버지께 순종하시며 우리도 주교들에게, 교황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업신여기는 이는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나를 업신여기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하나의 몸으로 각자 자기자리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느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교황이나 주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보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파견하십니다.

연중 제15주일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견하시다.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를 뽑으신 다음 몇 해 동안 그들과 함께 사시며 다른 어떤 사람들 보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양성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는 기적을 보았고 주님의 뜻 깊은 말씀을 들었으며 특히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분의 착한 모범을 배웠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사람들을 가르치러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몇 사람만을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을 가르치실 때 이미 이 계획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1. 오늘 성경말씀 시작부분에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들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은 마치 실습을 보내는 장면 같습니다. 예수님이 들썩 짝지어 보내는 것은 둘은 서로 크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며 또한 가르치는 방법을 서로 깊이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망하지 않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서를 읽으며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1.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과 2. 그들을 파견한 것입니다.

사도란 누구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파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영혼들의 왕이십니다. 그분 홀로 사도를 부를 수 있고 그분 홀로 그들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고 파견 받지 않은 사람은 사도가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이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시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것은 큰 영예이며 영광된 직책입니다. 그러므로 불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한다면 큰 손실이며 불행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불림을 받았습니다. 영세를 받고 견진성사를 받았으며 수도자가 되었으니 외교인들보다 주님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교인들 가운데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고 예언자와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부모님들이나 이웃들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노력하고 전교해야 합니다.

2. 제1 독서에서 아모스 예언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유다 민족은 여로보암과 서로 다투다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 왕국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 왕국이고 다른 쪽 왕국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이 되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아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모세, 다윗왕의 하느님을 섬기기를 계속했지만 이스라엘 왕국은 주 하느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예언자로, 계속 주 하느님을 공경하였으며 사람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느님을 공경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에게 입을 다물라고 말하자 아모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가축

을 키우고 돌 무화과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셨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하여라.’하고 말씀하셨다”(아모 7,14-15).

제2 독서에서도 같은 말씀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당신의 성소에 대해 설명하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 천지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에페 1,5-12).

사도들도 자신의 일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느님께 붙잡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국에 와 있고 이 수도원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느님은 “가서 내 백성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듯이 하느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에서 하신 일을 오늘도 여전히 계속 하십니다.

3. 사도들을 부르신 후 예수님은 그들을 파견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파견하기에 앞서 두 가지 일을 맡기십니다.

첫째, “악령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의 충고의 말씀입니다. 즉 “조심하여라. 너희들이 시작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너희들은 공격을 당할 수도 있으니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들만으로는 큰일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과 함께라면 이 땅에서 마귀를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말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둘째, 하느님의 왕국을 잘 선포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가지 충고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충고가 예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충고는 우리가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방법 등과 같은 상식적인 충고를 기대하였으나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전교를 잘 하고 싶다면 “가난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적으로 가난하십시오. 여행하는데 잘 걷기위해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시며 먹을 것이나 자루도 가지지 말고 전대에 돈도 지니지 말며 돌이 깔린 길이니 신발은 있는 그대로 신고, 속옷은 두벌씩 껴입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다 마련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적으로 가난하십시오. 약은 체 하지 말고 학자인양 연설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재물에 대하여, 음식이나 안락에 대하여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십시오.

특히 가난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주지 마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워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학문이나 위세보다는 미소 짓는 얼굴과 단순함으로 더 많은 결실을 얻었습니다. 사도에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훌륭한 연설보다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도를 볼 때 사람들은 “하느님의 모습이 저것이다.” 라고 하며 잘 듣고 본받을 것입니다.

옛날에 아테네는 학자들의 도시였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오로는 그곳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

열심히 준비하여 훌륭한 연설을 하였지만 완전히 망치고 말았습니다. 12세기에 많은 주교들이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의 가난한 생활로 놀라운 영향을 주었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은 사도들과 수녀들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처럼 참된 수도자, 예언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요구처럼 가난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단순하십시오. 특히 언제나 여러분의 미소로써 행복함을 보여주십시오.

연중 제15주일(1979년)

선교사 예수님

1. 오늘 마르코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전교를 위하여 제자들을 들씩 들씩 짝지어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첫 번은 아닙니다. 마르코 복음 처음 1장 17절에서 전교를 위해 협력자들을 구할 때 안드레아를 보고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유대인들 군중 앞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또한 띠르와 시돈, 헤르몬과 같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입구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마르 11,17). 이 말은 예수님의 전교에 대한 열의를 잘 나타내주고 있으며 게다가 이 말은 이사야의 엄중한 말인데, 마르코만이 감히 이 구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좀더 가서 마르코는 예수님의 수난을 이야기 할 때, 성전의 큰 휘장이 찢어진 것과 백부장의 고백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참으로 예언자의 직분을 성취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었던 백인대장이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하고 말하였다”(마르 15,38-39).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며, 온 세상을 복음화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설립자의 뜻을 알고 있는 교회는 진정으로 복음화를 기원합니다.

2. 복음화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음화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입니다.

가) 먼저 소극적인 면은 우리 마음에서 악과 죄를 뿌리 채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그 죄가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악령을 제어하는 권한을 주셨던 것입니다. 세월과 더불어 이 악은 전술과 형태를 바꾸어가며 항상 인간 존엄성과 자유를 경시해 왔는데 사람을 이반시키는 이 악은 언제나 악마의 짓이므로 하느님만이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나) 적극적인 면인 복음전파는 항상 빛의 양상을 지닙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각 신자들의 증언입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의 도정(道程)에서 혹은 군중 앞에서 하느님은 예수님의 얼굴로 나타나셨지만 오늘날에는 세상의 모든 길에서, 모든 만민 앞에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신자들

의 얼굴에서 빛을 발하십니다. 예수님 “결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복음화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는 자신의 내면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아직도 어떤 면에서 이교도와 같이 신앙이 없음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3. 복음전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경멸 앞에서 무력함과 무관심, 선량한 많은 사도들은 복음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고 고민합니다. 여러분은 복음 선교를 잘 하십니까? 역류를 향하여 계속해서 노를 저어야 하는가? 그냥 묵묵히 조용히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더욱 효과적인 요령과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등등. 이러한 실망의 표시는 우리가 주님의 구속사업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선교를 위해 여러 가지 기술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이나, 프로젝트를 이용하거나, 신문이나, 각자가 좋은 요령을 찾으면 찾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인간적 방법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확실히 복음 선교를 위해 사목적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요소는 다른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오직 나의 가난과 겸손과 능력의 고갈과 나의 비움에서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가난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진정한 가난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복음 선교 방법은 빈첸시오 성인과 샤를르드후꼬 그리고 마더 데레사가 찾아낸 방법입니다.

금년은 전례상 나해로써 특별히 마르코 복음을 공부하게 됩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특히 전도자이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마침 오늘 예수님은 사도들을 둘씩 선교하러 보내며 그들에게 가난을 요구하십니다.

연중 제16주일

복음: 마르 6,30-34 1독서: 예레미아 23,1-6

착한목자

구약성서 시대에는 공장들이 없었고 아마도 약간의 상점들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농업과 목축업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서에 자주 목자에 대해 말하고 또한 목자의 생활을 비유로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들과 사제들이 목자로 불렸고 하느님도 스스로 목자라고 하셨으며 예수님도 스스로를 “나는 착한목자이다.” 하시고 베드로사도에게 “내 양들을 돌보아라.” 하셨습니다.

마침 오늘 미사 중에 목자에 대한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제일독서에서 예레미아 예언자는 나쁜 목자에 대해 말하면서 “이 저주받을 것들아, 양떼를 죽이고 흠으려 버리는 목자라는 것들아, 내 양떼를 돌보아야 할 너희가 도리어 흠으려 해매게 하니 너희의 소행을 어찌 벌하지 않고 두겠느냐? ... 그중에 살아남은 것을 모든 나라에서 본래의 목장으로 다시 모아들여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참 목자들을 세워 주리라”(예레 1-4). 보내주실 참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제1 독서 후에 응송에서 착한목자의 노래가 나옵니다. 제2 독서에서는 바오로 사도가 모든 양떼를 모아드리는 착한목자에 대해 말하는데 그 목자는 당신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는 목자입니다. 마침내 복음에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착한 목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1. 착한 목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 예언자는 착한 목자와 나쁜 목자가 있다고 말하면서 나쁜 목자는 봉급이나 돈, 양털과 고기, 젓, 치즈 등에만 관심이 있는 이런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영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착한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 양들을 가슴깊이 사랑하고 늘 양들에 대해 염려를 합니다. 나쁜 목자는 양들이 흩어지고 실종되게 만듭니다. 착한목자는 양들의 안전을 지키고 휴식이나 양식을 제공해줍니다.

나) 착한목자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추위와 더위를 감내하고 닦아내듯 밤낮없이 사자나 이리들과 싸우며 도둑들로부터 양들을 지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부나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다) 착한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바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 착한목자는 양떼에 앞서가며 길을 알려줍니다. 양은 혼자서는 길을 잃을 만큼 그렇게 아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자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면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마) 목자의 가장 큰 의무는 양들을 모아들이는 것입니다. 특히 양들이 수가 많은데 집을 먹고 당황하여 사방으로 흩어질 경우 그들을 지키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일마다 그리스도 신자들을 교회로 모아들이는 이유와 필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착한 양들처럼 행동해야 하고 맡겨진 영혼들을 함께 데리고 와야 합니다.

2. 나쁜 목자는 죄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요한 사도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느님이 사람을 당신 모습대로 창조하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쁜 목자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란 사랑이 아니라 이기주의입니다. 죄는 하느님과 갈라섬이고 아들을 아버지와 갈라놓고, 모든 것과 완전한 불화를 의미합니다. 우주와 불화하여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가시덤불만 생산하고 육신은 더 이상 영혼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이상과 행동이 대립하고 마침내는 죽음과 부패와 붕괴에 이르게 됩니다.

죄는 부부간의 불화로 당신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고 핑계를 대고, 형제간의 불화로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여러 나라 백성들 간의 불화로 바벨탑을 쌓다가 서로 분산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갈라져 살고 있으며 더 이상 평화스러운 양떼는 볼 수 없고 다만 피난민 무리와 집단 수용된 포로들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군중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다”(마르 6,34) 하셨습니다.

3.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홀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당신 백성을 모아들이십니다. 목자나 지도자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맡겨진 사람들을 모아들이는 것입니다. 마르코 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모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 예수님은 사도들을 모으십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당신이 쉬는 곳으로 사도들을 모으시고 모두가 그분과 함께 합니다. 그들에게 먹을 시간을 주시고 사도들이 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나) 예수님은 군중을 모으십니다. 마치 자석이 철을 당기듯이, 샘물이 양떼를 끌어들이듯이, 예수님은 군중을 끌어당기십니다. 예수님을 찾아 군중은 맨발로 호수 저편으로 떠납니다. 예수님은 이 모임에 감동되시어 오래 동안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더욱이 양들을 모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두 팔을 펼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만 유대인만 불림을 받았지만 이제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구약은 폐지되고 이제 신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양들을 규합하기 위해 예수님은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식탁에 초청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예수님은 참으로 착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주일에 이교회 안에 그때의 사도들이나 군중처럼 우리는 모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오랫동안 가르치시고 나를 위해 식탁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니 주일은 정말 축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나의목자 노래를 다시 한번 낭송해 봅시다.

주님은 나의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란풀밭에 이 몸 뉘어 주시고
내 원수 보는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내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외다.
한평생 은총과 복이 이 몸 따르리니
오래 오래 주님 궁 안에 사오리다.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주시니 아쉬울 것 없습니다.

연중 제16주일

열심(熱心)

지금 들은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도직을 수행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직접 설교 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교육시킨 다음 당신 대신 보내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결과에 대해 예수님께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서는 쉬라던가 기도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먹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좀 쉬러 떠나려하면 사람들은 그곳을 알고 그들을 앞질러 갔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기도할 틈조차 없었으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가엾게 보시고 그들에게 일러줍니다. 만일 그것이 습관이 아니라면 사도직이 기도를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1. 이런 사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성적이었는가를 짐작케 합니다. 열성적인 사람은 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성적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분의

육화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자렛에서의 숨은 생활과 사도들과 지낸 생활, 성체성사와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돌보시지 않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다른 면으로, 공산주의자들을 보면 어떤 점에서 열성과들입니다. 그들은 강연을 하고 말로써나 인쇄물을 통하여 공산주의를 선전하기에 전력을 다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위험도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공산주의 사이에 진정한 열성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공산주의는 이 세상의 행복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는 영원한 행복을 생각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성체성사를 받은 사람으로 하느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신비체입니다. 우리가 성실한 신자라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더욱 확실한 것은 여러분은 수도자들이며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수도원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2. 이웃을 두 가지 방법으로, 즉 그들의 영혼과 육신을 돕고 사랑합니다.

육신을 돕는 일은 물론 좋은 일이며 오늘날에도 도움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돕는 것은 더 훌륭한 일입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당신의 재산 모두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당신은 전 생애에 불행을 감면받을 것이며 또한 전 생애에 대한 보석을 다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공로를 다 얻는다 해도 한 영혼의 가치와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확실히 주님은 불행한 사람들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영혼을 위하여 일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3. 열성을 유지하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행동의 필요성이며 두 번째는 초자연적 큰 힘이 필요합니다.

가) 일의 필요성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맹인이 아니라면 우리 주위에서 많은 아름다운 사업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 병원, 교회, 수녀원, 이런 것들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신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이고 그들의 활동 덕분에 종교의 힘이 커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됩니다.

신자들 중에, 또는 수도자들 중에 쉽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구실을 내세우며, 여기는 할일이 하나도 없다느니, 사람들이 무식하다느니, 돈이 없다느니, 도울 것이 없다느니 하며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있던지 언제나 할 일은 있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같은 하느님께서 나의 장상의 입을 통하여 “그곳으로 가시오!” 하였습니다. (Ego mitto vos - 내가 너를 파견한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도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보면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거의 항상 일하는 사람들의 정신에 대해 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건축가, 노동자들, 어부들, 수확하는 사람들, 경작인, 포도원 일꾼들, 군인들 - 주님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찾아나서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모든 신자들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며 일하지 않고 조용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자들 중에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수도자는 순명은 어린아이처럼 잘 하지만 일하는 데는 성인답지 못합니다. 물론 순명도 해야 하지만 순명이 게으름을 장려한다면 그것 또한 좋은 일일 수 없습니다.

나) 열심을 유지하기위해 초자연적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이 앞으로 당할 유혹에 대비하기위해 휴식과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활동에 있어서 초자연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영혼들을 잘 보살피기 위해 자신보다는 하느님께 더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이 정신을 사도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골몰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설교로써 영혼들을 감동시키고 신자들을 격려하는 데는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당에서 병원에서 사업장에서 일할 때 여러분이 만나는 영혼들을 위하여 참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아래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가엾은 하느님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분만으로는 운영이 안 되었을 텐데 내가 도와서 일이 되고 있으니 나한테 고맙다고 하셔야지!”라고 말합니다.

초자연적 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고 서둘게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나 수도자들이 할 일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일이 아니고 심는 일입니다. (Ego plantavi 심는 이는 나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거든 즉시 그 결과를 보려 하지 마십시오. 그 결실에 매달리면 여러분에게서 그 사업을 빼앗아 다른 이에게 줄 것이며 결국 수확은 다른 사람이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기에 사업에 성공했다면 그것은 도구 때문이 아니라 예술가이신 하느님 덕분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은 또한 질병이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나 사도 바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유함입니다. 교만한 사람들도 연설이나 군인들에게는 저항하지만 사랑에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연중 제16주일(1979, 1982년)

예수님께서도 휴가를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즈음 세계적으로 바캉스나 휴식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휴가를 하셨을까? 그렇다면 휴가를 어떻게 보내셨을까?

1. 성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마르코 복음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휴식을 취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또는 사도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예수님께는 그것이 긴장을 푸는 며칠간의 휴식이며 재충전의 기회였습니다.

복음 전도 사업은 힘든 일입니다. 마르코 복음에서 “어떤 날 그들은 먹을 시간조차도 없었다.”고 할 만큼 몹시 피곤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쉬시기 위해 자연을 찾아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아름다운 장소를 선택하셔서 높은 산, 한적한 곳이나, 계네사렛 호수근처 골란 산이나, 시돈이나 띠로의 바닷가, 또는 헤르몬산과 요르단 강 같은 곳에서 보내셨습니다.

휴가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당신 제자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선교에 대해 설명도 하며 그들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나와 함께 좀 쉬도록 합시다.” 예수님께 휴식이란 특별히 아버지와 일치하는 시간입니다.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마르 1,35).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그분께서 군중 앞에 돌아오시어 행하는 말이나 행적은 바로 호수가나 산에서 침묵과 기도에서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2. 예수님은 은둔생활을 좋아하십니다. 삼십년 동안 나자렛에서 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인류 구원사업의 사명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오셨으므로 인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아픈 경험을 한 후에 예수님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진단은 제1 독서에 예레미아의 진단과 같이 “인간은 목자 없는 양들과 같구나!” 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언젠가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공동체의 형제애에 대하여, 대화에 대하여, 세미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서나 관대함이나 헌신적 봉사에 대해 점점 더 관심을 갖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실패도 많습니다. 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의 연합을 위한 것이나 제3세계나 종교일치운동 등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도는 하지만 여전히 분열로 인해 실패의 연속입니다. 원인은 실망한 국민이 목자 없는 양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 중에는 패주와 추구, 실망과 희망, 침묵과 도전, 혐오와 호언장담 등을 너무나 많이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과연 아우구스띠누스 성인의 말이 맞습니다. : “주님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으니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우리 마음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느님 말씀의 참맛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누가 거짓 예언자의 소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께 돌아옴으로 해결이 됩니다.

3. 복음의 봉사자로 평생을 종사할 수 있습니다.

목자의 직업은 사람을 낚는 것으로 힘든 직업입니다.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온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유혹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도들 중에 누가 자신의 양들을, 자신의 물고기를 다시 보고 싶지 않는 이가 있었습니까?

사도들처럼 끊임없이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분 곁에서 사랑받고 이해받고 우리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마르코 복음을 다시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는지 보십시오. 그들의 피곤에 대하여 예수님의 자상하심과 이해심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좋은 휴식을 제공하려는 그분의 마음 쓰심을 보십시오. 그들은 배를 타고 호수 동쪽으로 갔는데 그곳은

거주민이 적은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직업보다 사람 낚는 직업은 주기적으로 며칠 동안의 침묵과 은둔과 묵상의 기간을 요구합니다. 사도들이게도 주님과 친밀한 만남을 위하여 평화스런 장소, 오아시스가 필요하였습니다. 거기서 새 출발을 준비하고 용기와 사랑을 충전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자들과 사제들은 휴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가동안 묵상하고 성서를 읽고 기도하며 영혼을 위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연중 제17주일

빵의 기적

우리의 생애동안, 특별히 우리의 사도직을 수행하는 동안, 자주 우리는 큰 근심에 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돈, 화목, 반대, 등등. 때로는 이런 문제를 헤쳐 나갈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오늘의 복음에서 세 가지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인간에게는 가끔 불가능이 있습니다.
2.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3. 예수님과 함께라면 인간에게도 불가능이 없습니다.

1.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은 사람에게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사도들이 큰 걱정거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온데다, 그들은 떠날 생각도 하지 않고,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말씀에 심취되어 있는 모습에 모두들 놀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날은 저물고 장소는 외딴 곳인데 착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굶겨 보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의도적으로 물으셨습니다. 필립보의 대답은 빵보다는 돈이 문제였습니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이백 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대답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필립보에게 한 이 질문을 더 약삭빠른 사도 안드레아가 듣고, 군중 속을 헤치고 들어가 좌우를 보며, ‘먹을 것을 가져오신 분이 누가 없습니까? 나눌 수 없습니까?’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예수님께 와서 “여기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한 것이지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2.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제1 독서에서 들은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서는 엘리야 예언자가 행한 기적을 다시 행하셨습니다. 하느님인 예수님은 전능 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능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위해 온 많은 사람들을 굶긴 상태에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을 먹이고 싶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성당에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 왔으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돌려보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하느님은 미약한 방법으로 당신의 전능을 들어내십니다. 체대옹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큰 부자의 기부를 바라지 않으시고 어린이의 선물을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린이들에게는 어른이 필요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역시 부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반대로 가르치십니다. 어른들에게 아이들이 필요하고 부자들에게 가난한 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세상에 만일 어린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면 사랑은 위축될 것입니다. 또한 관대함과 헌신과 희망과 인내와 같은 큰 덕행이 사라질 것이며 세상은 삭막하여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능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이 균형을 먹이기 위하여 이 어린이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먹이기 위하여 예수님은 소비녀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성세를 받은 신자들의 마음을 살찌우고 성화 은총을 강화하고 부활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약간의 빵과 술과 아주 단순한 사제의 말이 필요합니다. 단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살리라!”

3. 그리스도와 함께 라면 사람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말씀을 들으면, 빵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인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희망하고 굳게 믿어야 하겠지요!

사람들을 먹이지 않고 균형을 돌려보내고 싶지 않으셨던 이유는, 앞으로 사도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에게 전 세계를 복음화 하는데 마음을 다하도록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을 도울 수 있고 돕고 싶으시지만 먼저 그들이 방법을 찾고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처지에서, 혼자행동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활동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핑계를 들으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약하고 능력도 없고 장애물이 너무나 엄청나서 할 수 없다”는 핑계들은 대개가 일하기 싫은 까닭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위하여 일하기 원하시면 모든 것이 쉬우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강한 내적 유혹과 만족할 수 없는 나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가족들의 어려움과 직업상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활동과 노동조합, 정치 문제는 때로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도 하고 실패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시련을 극복하도록, 용서하도록, 주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도울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 역시 스스로 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함께 하시면 강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느님의 은총의 덕입니다. -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을 통해서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소화 테레사 성녀도 참된 그리스도 신자가, 성녀가 되기를 원하자 순간 무언가 불가능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느님의 능력을 믿었으며 “하느님은 항상 나를 구해주셨고 당신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는 그분 안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행동의 크기를 보시지 않고 우리 마음이 갖고 있는 사랑을 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빛나는 지식은 없을지라도, 또한 봉사의 챔피언이나 용맹한 수

너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것을 봉헌하면, 비록 빵 두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일 지라도 예수님은 오천 명 이상을 먹일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니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 복음에 나온 어린이처럼 조금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연중 제18주일

복음: 요한 6,24-35 1독서: 탈출 16,2-4.12-15 2독서 에페 4,17.20-24

생명의 빵에 대한 설교

지난 주일에 요한사도는 예수님께서 빵을 많아지게 하신 기적에 대한 말을 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생명의 빵에 대한 설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 이상을 먹이시고도 남은 것이 열두 광주리나 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신 장소는 게네사렛 호수 북서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알아보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만 예수님은 정치와 종교에 가담하고 싶지 않아 혼자서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그 이튿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다시 배를 타고 가파르나움 남동쪽으로 가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으려니 생각하였습니다. 요한 사도에 있어서 “찾다” “찾아내다”라는 두 단어는 일반적인 말이 아니고 신학적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보통으로 사람들이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기본 자산, 만족한 의식주 생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건강을 위해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것은 정상이지요. 필요에 의해 욕심이 싹트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런 것만을 찾는다면 그것은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필요 불가결한 유일하신 분을 아는데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을 알리는데 힘을 쓰셨습니다.

이 가련한 사람들은 그들이 추구함에 있어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호숫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은 세상의 양식인 호숫가에 있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영적 양식인 호숫가로 건너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재물을 경시하지 않으십니다. 전날 저녁 예수님은 굶주린 이들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의 유혹은 그들의 욕망이 동물적 만족,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한 것입니다. 또 다른 생명이 있고, 또 다른 호수가 있으며 또 다른 빵이 있고 또 다른 굶주림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호수로 지나는 길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빵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시면서 인간의 품위를 높이도록 초대하십니다.

2. 의견상으로는 투명해보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은 복잡하여 그것을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으로 갈립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관해 말씀하십니까? 영적 음식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기르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참 살과 피를 먹는 것에 대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만 믿음이나 영성체에 관한 것입니까? 요한 사도는 왜 이것을 썼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때문일까요? 요한 사도

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위한 것일까요? 오늘을 위한 것일까요?

물론 요한 사도는 적어도 오십년 이상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묵상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참된 생각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희생 제물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가르치는데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만찬 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만찬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최후만찬과 십자가는 서로 분리될 수 없고 같은 것입니다. 생명의 빵에 대한 설교는 하나의 목적, 이 교리의 실질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요한 6,56).

생명의 빵에 대한 설교를 통해 요한 사도는 성체에 대한 근본요소는 예수님께 있다는 교리를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3. 아주 오래전부터 요한 사도를 독수리에 비교해 왔습니다. 독수리를 보십시오. 아주 높은데서 하늘을 선회하며 자신의 먹이를 노려봅니다. 그리고는 먹이를 향해 급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군중의 호기심을 일으켜 부식 될 수 있는 음식을 영원히 부식되지 않는 신비한 음식과 대조를 시킵니다. 이 음식은 오로지 사람의 아들만이 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첫째 의무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분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요한28-29)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만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 음식이며 하늘의 참 빵입니다. 이 말은 수수께끼처럼 이해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선생님, 그 빵을 항상 저희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할 수 있는 수준에 있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능하면 일도 하지 않고 잘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생각하였으므로 예수님은 그들의 주의를 당신에게로 집중시키도록 노력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언가를 주기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 전체를 음식으로 주시게 위하여 오셨습니다. 참된 만남은 시나이 산 부근에서 거두어들이는 만나가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러 오신 그 분입니다. 참된 만남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연중 제18주일(1970년)

복음: 요한 6,24-35 1독서: 탈출 16,2-4.12-15 2독서: 예페 4,17.20-24

묵은 인간을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오늘 성서를 읽으면서 특별한 감동을 받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가장 중요한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죄에 떨어진 이후 일반적으로 인간은 육신을 영혼보다 훨씬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은 모두 하늘을 향해 보지 않고 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인간도 하늘을 향하여 있게 마련이지만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미사의 세 독서에서 하느님께서 직접적으로 또는 당신 종들의 중재자를 통하여 인간에게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1 독서에서 하느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십니다. 히브리인들은 사천년 동안 별로 하느님을 별로 잘 섬기지 않았으나 하느님은 그들에게 하늘을 향해 바라보도록 강요하십니다. “Sursum corda 마음을 드높이”

제2 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에페소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에페 4,17).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요한 6,27)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항상 하느님을 보기보다는 땅을 보고 살아갑니다. 성세를 받은 신자들까지도, 수도자들까지도 그러하니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들은 바와 같이 하느님이신 예수님과 사도들은 온유한 말로 사람들에게 “Sursum corda” 마음을 높은 곳으로 향하여 보도록, 인간의 생각보다는 하느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도록 노력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바오로 사도가 실천했던 것으로 사도들이나 교황, 사제들, 또는 수도자들 모두가 행하여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당에서 일하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며 모든 이에게 가르쳐야 할 일입니다. 선교는 사람들에게 “Sursum corda” 마음을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지요!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느님의 생각으로 판단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사제들과 수도자들 자신이 먼저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홀로 하느님의 생각만이 참되고 견고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연적 인간과 영적 인간, 두 진영으로 갈라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바오로는 “자연적인 인간은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여 어리석게 보이므로 깨닫지 못하지만. 반대로 영적 인간은 만사를 하느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니 어느 누구에게도 판단 받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자연적 인간의 진영은 하느님을 알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단 한 가지 삶의 목적은 이 세상이며 다윗이 말하였듯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모든 환락과 부와 명예를 원하며 그것 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 세상의 물질입니다. 그들은 그것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금만 더 가까이 본다면 이 모든 물질이나 부가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더 많이, 더 많이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인색한 사람, 야심가, 추잡한 사람들이 “이것으로 충분하다!” 하는 것을 본 일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들은 마치 노예처럼 재물에 현혹되어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 한번의 기쁨도 맛보지 못하고 항상 근심 걱정입니다. 비록 그들이 얼마의 기쁨을 누린다 해도,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더욱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것들입니까? 명예도 사라질 수 있고, 매일 중병으로 시달릴 수도 있어, 모든 것은 사라지고 맙니다.

이 모든 재물들은 하느님이 창조하셨으므로 좋은 것이며 또 때때로 필요한 것이므로 그것들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것만을 위하여 산다면, 그것은 유혹이며 우리 영혼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이 모든 세상의 부귀를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은 회한(悔恨)만 될 뿐입니다. 만일 재물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우리는 “속았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각없는 짓을 했구나!” 라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인간의 진영은 보기에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그리며, 하느님께 순종하며 살고파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버리고 보속하며 때로 비록 좋은 것이라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들의 전 생애가 죄를 피하고 악마와 싸우며 욕망에 저항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영적 인간은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요한 6,27). 예수님께서서 또한 “내 명에는 달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고통의 덕분으로 영혼이 정화되고 영혼이 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며 죽음을 원하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얼마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지! 여러분은 열심한 신자의 죽음을 본 일이 있으십니까?

나의 어머니가 죽는 순간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마니피캇의 노래를 청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조용한 의식 속에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영원한 기쁨이 시작되고 있음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고약한 부자와 가난한 라자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같은 날 밤 죽었지만 죽은 후에 그 처지는 얼마나 달랐습니까!

수녀님들! 영적 인간의 진영에서 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본당에 가거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사도들과 같이 온유하게 사랑을 갖고 인내하며 일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간적 관념을 버리고 하느님의 관념에 따라 살도록 가르치십시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연중 제19주일

복음 : 요한 6,41-51

생명의 빵

우리는 3주 전부터 빵에 대한 성경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주 전에 예수님의 빵의 기적 이야기에서 다섯 개의 빵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서 옛날의 만나가 아닌 하늘의 빵에 대해 말씀하셨고 오늘도 빵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당신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하십니다.

1. 예수님은 서서히 유대인들에게 살아있는 빵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가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적 교리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사막에서 하느님의 백성들은 중얼 중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식으로는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처럼 보통사람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업신여기는 말에 귀 기울이시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의 부모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이 하늘의 출신이라고 주장 할 수 있는가?” 이 항변은 자주 되풀이 되는데 “메씨야가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 했는데 저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는가?” 그의 인격도 신비이고, 그의 태생도 신비이

고, 그의 권위도 신비다. 어디서 왔는가!

메시아에 대한 신앙은 하느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신앙만이 이 큰 질문에 우리가 답 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평을 물리치시고 누구도 당신을 거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힘 있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더욱 어리둥절하였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요한 6,44)”.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2. 예수님 홀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실 수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느님 아들의 계시를 향한 점진적인 발전이 아닙니까? 당신 백성을 정상에 까지 이끄신 분은 하느님입니다. 여러 번 하느님께서서는 생명과 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굶주림을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는 것이다”(아모 8,11).

하느님께서 당신 친구들을 초대하신 축제! 이 잠언의 말씀이 기억되지 않는가? “너희는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술을 마셔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아라. 예지의 길을 걸어가라”(잠언 9,5).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이 성체에 대한 전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생명의 빵에 대한, 성체에 대한 예수님 말씀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매번 이 빵은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식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식사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성체성사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이 빵에 대한 말씀은 극히 정상적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빵에 대해 분명하게 말할 것입니다.

3.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설교 처음부터 성체에 대해 가르치려고 모색하셨습니다. 그는 훌륭한 교수님처럼 점진적으로 서서히 접근하십니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먼저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고 그리고 나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먹고 산다는 믿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요한 6,47). 그 다음엔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 끝에서 두 번째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요한 6,51).

이 말씀은 모호해서 두 가지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즉 성체에 대한 말씀인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설명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살아있는 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의 죽음은 희생제사의 가치를 지닙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은 우리를 위해 넘겨주실 당신의 몸이며 우리를 위해 흘릴 당신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께 가까이 있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내 살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사도 바오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

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에페 5,2). 십자가의 그림자는 성체에 대한 설교말씀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연중 제20주일 (1979년)

복음 : 요한 6,51-58 1독서 : 잠언 9,1-6 2독서 : 에페 5,15-20

여러분들이 조금 전, 오늘의 성경 말씀을 들으신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요한 6,53)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신 것은 성체를 받은 모든 신자들이 일찍, 그리고 자주 영성체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하게 죽음이 임박할 때, 부활축일 전에, 적어도 한 번은 영성체하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한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자주 영성체하는 것을 예수님과 교회가 바란다는 것은 의심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주 영성체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1. 예수님께서서는 신자들이 자주 영성체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체를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성체 성사를 세우실 때 손으로 빵을 들어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받아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마태 26,26-27)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체는 참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며 마치 빵이 우리 육신의 양식이 되듯이 성체는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가) 사람에게 빵은 필요한 양식입니다. 예수님 시대 팔레스티나에는 빵이 없는 식사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나) 빵은 모든 이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음식이며 모든 사람이 즐겨먹는 음식입니다.

다) 빵은 가난한 이에게나 부자에게나 공통된 음식입니다.

라) 빵은 매일의 양식으로 매일 매 끼니마다 먹는 음식입니다.

성체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면 마치 빵이 우리 육신의 양식이듯이 영혼에 필요한 양식으로 자주 먹어야 하겠지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일년에 한번만 식사하는 사람이 없듯이 일년에 한번 영성체해서는 안 됩니다. 먹지 않는 사람은 힘이 없듯이 영성체하지 않는 사람 역시 힘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점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매일 영성체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생각을 잘 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양식은 육신의 빵과 영혼의 빵, 하느님 말씀의 빵을 의미합니다. 사도들과 초대 그리스도 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사도 2,42)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사에 참례할 때마다 성체를 모셨

다는 말입니다.

2. 교회가 자주 영성체하기를 원합니다.

영성체와 관련하여 교회 안에 항상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영성체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사람들은 인간의 약함에 힘을 얻기 위하여 영성체 하는 사람들이며, 세 번째 사람들은 자신의 부당함을 느껴 마치 백인 대장처럼 “주님 저는 당신을 모시기에 부당합니다.” 하며 당치않게도 감히 영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잔다크 성녀는 매일 영성체를 하였는가 하면, 루이 성인은 일년에 단 여섯 번을 두려움에 떨면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성체를 힘과 생명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답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이 두 태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특별히 교황 비오 10세 성인께서 자주 영성체해야 한다고 하신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영성체는 보상보다 더한 성인이 되기 위한 수단입니다.

3. 자주 영성체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하실 것이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와 일치하기 위하여 거기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냉대의 보상을 거절한다면,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어느 날 이교도 교수님이 그리스도 신자 학생들에게 묻기를 “여러분들은 정말 성체 안에 하느님이 계신다고 믿습니까?” 하고 물으니 학생들이 “네”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은 그렇다면 왜 매일 성당에 가서 영성체하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성체를 모시는 것은 큰 영광 일뿐 아니라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하여, 죄를 피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이 힘이 되십니다. 영성체는 하느님을 닮아가려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양식입니다. 영성체는 완전한 사람들이 더 완전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에게는 완전하게 되기 위하여 필요하며, 강한 사람들은 약하게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거룩함을 먹으면 여러분들도 착하고 거룩하고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인들은 영성체를 통하여 거룩함을 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영성체는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유익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질문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영성체를 자주하시고, 사람들에게 영성체를 자주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치료약입니다. 정직하게 살기 위하여 하느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합니다.

어느 날 프로테스탄트 목사님이 요한보스코 성인의 보육원을 방문하여 아이들의 변화를 보고 너무 감동되어 “무엇을 어떻게 하였습니다?” 하고 묻자 성인은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나는 단 두 가지 방법, 영성체와 막대기가 있다는 것 외에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막대기를 버리고 영성체로만 다스립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수녀님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교육하는 어린이들에게 영성체하도록 권고 하십시오. 잘 준비된 영성체에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중 제21주일

복음 : 요한 6,61-70 1독서 : 여호 24,12.15-18b 2독서 : 에페 5,21-32

아름다운 영성체

지난 주일에 성세를 받은 모든 신자들은 자주 성체를 받아 모셔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교회가 원하는 것이며 우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특별히 성체를 잘 모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도 성체를 잘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나 천사도, 성모마리아까지도 자격이 없습니다. 피조물이 자기의 창조주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자격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므로 인간으로서 영성체를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영성체하기 전에 교회가 요구하는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 은총 중에 있어야 합니다. 성체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양식이며 초자연적 양식으로 살아있는 사람만이 영성체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죄 중에 있다면 당신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을 먹이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먹인다면 그는 정신병자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에게 성체를 주지 않습니다. 죄인에게 성체를 주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죄와 성체는 서로 상극입니다. 죄는 하느님께 대한 증오인 반면에 성체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죄 중에 영성체하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 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1고린 11,27) 라고 말하였습니다.

만일 누가 죄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영성체를 삼가고 먼저 고백성사를 보아야합니다. 이미 마음 안에 악마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하느님께 바치겠습니까? 잔치의 비유에서 초대된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성체를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거절을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요한 13,8)”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중에 영성체 하는 것은 마치 동방의 삼왕들 앞에서 예수님께 공경을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속마음은 죽이려 하는 헤로데를 모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 입맞춤 하면서 팔아넘긴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감히 성체를 범하는 사람은 한 평생 미온적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느님은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나) 한 시간 전부터 단식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신자들이 예수님처럼 식사 끝에 영성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나서 (바오로 사도 자신도 불만이었지만) 교회는 이 단식 제도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자정부터 단식을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한 시간밖에 하지 않고, 그것도 물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이 단식에서 면제됩니다.

다) 교회는 영성체하는 사람들에게 깨끗한 몸과 깨끗한 옷을 당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

음의 풍요로움을 이 지상의 풍요로움보다 더 좋아하십니다. 불란서 왕이었던 루이 성인이 한 귀족의 집에 초대되었었습니다. 방안에 더럽혀진 그림들이 눈에 띄자 불만을 표현하며 그는 가버렸습니다. 지상의 임금도 이러하거든 하물며 왕 중의 왕이신 분을 모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2. 영성체 전 준비도 잘해야 할뿐 아니라 성체를 영한 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성서에 보면 하느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빗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눔을 받은 열명의 나환자 중에 오직 한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러 왔을 때, 감사할 줄 모르는 아홉 명에 대해 꾸짖으시고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준비 없이 영성체하는 것은 예의바른 일이 아니며 영성체 후 감사도 드리지 않고 성당에서 나가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체 때 하느님으로부터 토빗이나 나환자들 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나는 종종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며 오래 동안 깔깔 웃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다면 몇 분 동안 예수님과 대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신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필립보네리 성인은 자주 영성체하는 한 학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매번 영성체 후 감사드리지 않고 즉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가대원인 두 학생에게 두개의 초를 주어 이 잘못 배운 학생을 동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을 보자 이 학생은 자신의 잘 못을 이해하고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만일 성가소비녀들이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슬픈 일입니다. 영성체를 잘 하는 것이 감성적인 느낌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성체하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은 아주 행복한 모습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고 전혀 감성적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성체 안에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체를 자주 모시는 것만으로 꼭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영성체 후 기도는 가장 힘 있는 기도임을 확실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반복해 주십니다.

농사에 있어서 논과 밭이 있지만 땅은 같은 땅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어떻게 일하였는가에 따라 수확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체를 잘 모시려는 노력 여하에 따라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영성체후 네 가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 이 두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경.사. 청.결. 각 음절을 풀어봅시다.

- 가) 경(敬) 경배 - 성체 안에 하느님 계시니 하느님께 드리는 경배를 드려야합니다,
 - 나) 사(謝) 사례 -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사례를 해야 합니다 더더구나 우리를 위해 모 든 것을 다 주시고 당신 자신까지 주신 예수님께 마땅히 감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 다) 청(請) 은혜를 청함 - 하느님께 은총을 청합니다. 사람에게 무언가를 청하려면 화를 낼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므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해 청하십시오. 특별히 매일 한 가지를 청하십시오.
 - 라) 결(決) 결심 - 주님께 결심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그분께 순명하기 위해, 사랑으로 하루에 어떤 일을 한 가지씩 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 하루 중에 가능하면 한두 번 성체를 방문하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많은 은혜를 받았을 때 그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연중 제22주일

복음: 마르 11,1-8.14-15.21-23 1독서: 신명 4,1-2.6-8

2독서 야고 1,17-18.21-22.27

미사

지난 주일 강론에 신자는 자주 영성체해야 하며 영성체 전과 후에 해야 할 원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십자가의 계속적 희생인 미사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미사는 1)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2) 십자가 성체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1. 미사는 십자가의 희생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잊어버리기를 잘 합니다. 역사를 잊고 인류에 큰 공헌을 한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인류의 가장 큰 은인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속자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을 위하여 당신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은 인류에게 천국 문을 다시 열어주시고 당신의 수난정사를 잊지 않게 하기위하여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바오로 사도는 덧붙여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1코린 11,26)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매년 미사에 참례할 때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체성사를 세우시며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마태 26,26-27)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거룩한 미사는 십자가를 연상케 하고 십자가는 성체를 연상케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미 자신을 성부께 봉헌하셨고 오늘도 여전히 자신을 봉헌하고 계십니다. 미사 시작 때 제대 위에 있는 십자가에 큰 절을 올리고 미사를 성호경으로 시작합니다. 미사봉헌 중에 사제는 여러 번 십자성호를 긋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미사는 수난의 재현입니다.

2. 미사는 십자가의 희생을 새롭게 합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미사의 희생 사이에 유사점이 많습니다. 연극 중에 한 배우가 어떤 인물의 역을 맡지만 실제의 그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나 제대위에서의 희생은 꼭 같은 인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며 하느님 아버지께 열렬한 기도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십자가 위에서나 제대위에서나 예수님은 같은 제물이시고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만일 사제가 자신을 봉헌한다면 어떤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미사는 연극이 아니고 실체입니다. 사제가 미사를 드리는 것은 오직 도구일 뿐이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봉헌을 새롭게 재현하는 순간입니다. 사제가 “이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지 않고 “이는 내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제의 입을 빌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미사 사이에는 약간의 상이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예수님께서 수난을 받으셨지만 오늘 제대위에 다시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에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위에서는 피를 흘리셨지만 이제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꼭 같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 원을, 똑 같은 큰 사랑을, 당신 생명을 아버지 하느님께 봉헌하십니다. 또한 세상의 구원을 위한 속죄를 위해 받으신 당신의 눈물과 고통을 바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으므로 움직이지 못하십니다. 지금은 빵과 포도주의 형태로서 죽음과 같습니다. 아니 죽음,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형태가 살아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셨지만 포도주와 빵의 형상 안에 아무런 힘이 없는 분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무한한 공을 세우신 예수님께서서는 미사 중에 그 공을 나누어 줍니다.

3. 미사 중에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공로를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류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하여 단 한번의 고통으로 충분하십니다. 미사는 전적으로 십자가의 희생과 같으므로 두 번째의 속죄가 아니며 새로운 공로의 원천도 아닙니다. 미사는 마치 갈바리아의 은총을 실어 나르는 운하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부께 나를 바쳐드립니다.” 라는 말을 하십니다. 갈바리아에서는 총괄적인 구속행위라면 미사에서는 개별적인 구속방법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공로를 얻지만 십자가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미사가 공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로를 받는 것입니다. 미사를 통하여 십자가의 희생은 성취됩니다. 미사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 곁에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금요일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날은 우리 구세주께서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미사에 참례하십시오. 모든 날들이 성 금요일이며 매일 사제는 제대에서 십자가를 재현하기 때문입니다. 매번 미사에 참례할 때, 옛날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멀리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 사도와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아주 가까이서 그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일치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매일 영성체후에 예수님께 우리의 敬(경)謝(사)請(청)決(결)(경배, 사례, 청함, 결심)을 바칩시다.

연중 제22주일

복음 : 마르 7,1-8.14-15.21-23

하느님의 법과 인간의 전승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있다.”

어디서든지 “법”이라 하면 무언가 두려움을 주는 존재, 경찰이나 벌금, 감옥 등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양심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법은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에서 법은 기쁨과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장기를 둔다거나 축구를 한다면 법을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속임수로 흥을 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법이 없다면 생활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기차가 출발하고 싶을 때 출발한다거나 또는 자동차 운전기사가 중앙선을 지키지 않고 신호등을 무시한다면 사고뭉치가 되겠지요.

그러나 입법자들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매일 새로운 법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는 3천 개가 넘는 무거운 법이 있는가하면 우편 법도 천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가톨릭교회 안에도 교회법 2,414조항이 있으며 전례만 해도 매해 그 수가 늘어나 축일표(Ordo)가 출판되고 있습니다.

법이 너무나 많아 알 수가 없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갈라 5,1)”.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은 다시 노예가 되고자 합니까?

성령 강림 날에 성령께서 마치 폭풍처럼 불었다고 합니다. 바티칸 공의회에서도 많은 법규를 폐지하기위한 노력을 한 이유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새로운 법을 창조해 내려 하고 양들인 신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은 “종교도 변화되어 똑같은 교리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1.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법을 말씀하십니다.

즉 어린이들을 위한 법과 어른들을 위한 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어린이를 위한 법이고 신약은 어른들을 위한 법입니다. 어린이는 아름답지요! 하느님의 어린이가 되는 것, 교회의 어린이가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그것이니까요. “너희가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어린이가 너무 오래 동안 아기로 남아있다면 그것 또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어린이는 아직 어른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유년기란 교육을 받는 시기로서 어린이들은 부모들이 “해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에서 법을 배웁니다. 부모들은 ‘암전해야한다. 깨끗이 씻어라. 성실해라. 거짓말 하지 마라. 욕을 하지 마라.’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어린이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나 그대로 행하면 사랑을 받고 기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쁜 짓을 하면 겁이 나고 매를 맞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에게 법이란 부모로부터 허락된 행동과 금지된 것들입니다. 후에 청년이 되면 법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서를 열심히 공부해 보면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먼저 어린이처럼 교육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규정을 주셨는데 거의 모든 법규가 금지사항이며 벌을 주겠다는 위협입니다. 그때 당시 하느님의 백성들은 마치 어린이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훨씬 후에 지상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인류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하느님께서 계명으로 인간을 성장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미개 시대를 거쳐 사랑의 시대로, 유아기를 거쳐 자유의 시기로, 유치원을 거쳐 혼례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수많은 법규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참된 신심을 지닌 유대인들을 질식시켰고 하느님의 법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점을 아시고 모세를 통하여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쳐주는 규정과 법규들을 잘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무엇을 보태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주 너희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신명 4,1-2).

그리고 유대인들과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마르 7,5)” 하고 따졌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다. 벌을 무서워 할 때는 지났다.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 없는 신심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야고 1,27)”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금은 “참된 신심에서 나오는 마음이 중요하지 금령이나, 허가사항이나, 인간의 전통이나, 벌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하느님께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만남을 방해하고 자유와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이런 것들은 종교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종교는 우리를 하느님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행동하고 기도하고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고아들과 노인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야고보 성인은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대화하고 성서를 읽고 독서를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를 피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두 가지,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을 피하는 일입니다. 사랑 실천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설명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서에서 예수님이 하느님 법의 전통에 맞서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많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을 씻는 일, 성서문구를 적은 성갑을 머리에 띠고 다니는 일 등으로 이런 형식적인 것들을 반대하신 것입니다. 20세기를 사는 오늘날에도 많은 무용한 전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올 때 신앙에 의하기 보다는 사람들의 존경을 의식한다든가 습관적으로, 또는 부모님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직 어린이입니다.

신부들은 신자들이 군대처럼 또는 우리 안에 갇힌 양들처럼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부들은 교회를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방어하는 성곽처럼 폐쇄적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은 전통과 율법이 예수님을 능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통과 율법을 훨씬 초월하셨던 예수님과 사도들은 사랑이 무엇보다 우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미워하였고 결국 그분들을 처형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경찰이 무서워서 교통법규를 지킨다면 그들은 이방인으로 남아있을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킨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내가 교회의 필요한 계명을 지킨다 해도 경찰이 무서워 교통법규를 지키듯이 계명을 지킨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법을 지킨다면 나는 참된 신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종교입니다.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순한 마음이나 순수한 마음이나가 중요합니다. 악이 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마르 7,15).

이제 영성체 할 시간입니다. 다함께 영성체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님의 몸은 부셔지고 그분의 피는 쏟아졌습니다. 우리도 것처럼 사랑합시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랑합시다. 말로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마르 7,6-7).

연중 제22주일 (1970년)

1독서: 신명 4, 1-2.6-8 2독서: 야고 1,17-18.21-22.27

복음: 마르 7,1-8.14-15.21-23

하느님의 법

구약성서에서 유대인들은 하느님을 어떤 방식으로 공경하였습니까? 정확히 오늘날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는 식이었습니다. 입당 성가를 부른 후 성서를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읽고(독서와 복음) 성가로 복음 말씀을 묵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희생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각자는 영적으로 고무되어 기쁨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미사에 참례할 때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 말씀을 듣지 않거나 관심 없이 듣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날 낡아빠진 이야기처럼 듣거나 또는 자기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로 듣기 일수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 자신의 말로서 살아있고 영원하시고 불변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므로 각자는 오늘 하느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방금 여러분들이 들은 것은 하느님의 법에 관한 것입니다.

제1 독서에서 모세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법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 이스라엘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은 한 마디도 보태거나 빼지 못한다.” 다음에 하신 말씀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오늘 너희 앞에 내놓는 이 모든 율법처럼 올바른 규정과 법규들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느냐?”(신명 4,8) 시편에서 의인을 찬양하고 하느님의 법을 지키는 이들은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2 독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과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옵니다. 빛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것입니다”(야고 1,17)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법은 애덕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는 것이다.”

마침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법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법은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 무엇이든 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마르 7,6-7).

예수님 시대에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키는 율법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이지 결코 한번도 예수님께서 말씀한 적이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하느님의 생각에 따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였기 때문에 모든 행위는 칭찬을 받기 위해 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애덕이란 찾아 볼 수 없고 다른 이들을 증오하고 무시하며 자기들의 이익만 챙겼습니다. 이들은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므로 하느님의 생각

을 정확하게 가르친다고 주장하지만 어떻게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법은 마음으로 하느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법은 무엇보다 애덕이며 사랑과 기쁨입니다. 법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또한 법은 약한 인간성에 울타리 역할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이 인간의 목적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도로가 있다고 합시다. 길 양쪽에 구렁(법)이 있는데 당신이 그 구렁만 보고 전진하지 못한다면 그건 불필요한 짓입니다. 전진해야지요! 오로지 법만 보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사랑하지 않는 법은 법이 아닙니다.

바리사이들은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리스도 신자들 중에 또는 수도자들 중에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사두가이파 사람들을 무시하며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루카 18, 11)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체를 모시고 기도를 바치며 마치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양 우월감을 갖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신자들 중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하느님!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까?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참된 종교란 사랑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반복하여 “하느님 앞에 깨끗하고 흠 없는 신심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야고 1,27) 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느님께서 “너희는 내가 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너는 나를 질투하였고 나에게 앙심을 품었으며 나에게 봉사를 거절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깎아 내리고저 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동료들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너는 사랑이 없이 살았고 네가 한 모든 기도와 받은 성사는 보이기 위한 것이었으니 너는 바리사이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는 자연적으로 법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만일 내적으로 사랑이 있다면 우리 삶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마련입니다. 내적으로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 법마저도 추하게 마련입니다.

이 가르침은 바오로 사도가 자주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느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느님의 의로움은 믿는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로마 3,21-22)

연중 제23주일 (1979년)

복음: 마르 7, 31-37 1독서: 이사 35, 4-7 2독서: 야고 2,1-5

에파따 (Effata)

네 복음서 중에 마르코 사가만이 청각 장애인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복음이라고도 하는 마르코 복음은 베드로 사도의 신앙을, 그리고 이 불행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예수님의 친절과 인내와 노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님은 가장 힘든 장애와 싸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청각의 장애는 모든 대화의 단절과 사람들로부터의 격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주님의 선하신 행동을 찬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인자한 행동은 교회 안에서 청각 장애를 위한 많은 관대함과 헌신과 자상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지만 교황께서 성지 이스라엘을 방문하셨을 때 아랍 어린이 농아들을 위해 베들레헴에 “에파따”라는 이름의 집을 선사하셨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교황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로마를 방문하였고 교황님을 알현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교황님은 그들의 책임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성소에 충실하십시오. 이 성지에 죄 없는 아이들에게 잘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줍니다.”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 도봉구에 애덕농아학교가 있고 충주 성심 맹인 농아학교가 있습니다.

2.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려진 사람들과 닫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해 여러 나라들, 페네시아, 시리아, 데카벨리스 등을 두루 다니시고 나병환자들, 파면 당한이들, 죄인들과 함께 지내셨으며 어린이들, 여자들, 부자들, 가난한 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포용하셨습니다.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열혈당원들,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죄인들, 이교인들, 세리들을 배척하고 법을 규정하여 이들 사이에 방벽을 쳤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유로우시어 어디서든지 편하게 지내셨고 모든 사람들을 편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는 열려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들을 줄 아는 선생님이었고 이해해주는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영접할 줄 아는 구세주이십니다. 배반자 유다도 배척하지 않으셨고 사형수를 용서하셨으며 착한 우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격하신 것은 사탄뿐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모든 것으로부터 닫혀 있고 모든 이에게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발견한 것은 닫힌 세상이었습니다. 이기주의의 세상과 겉꾸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 “에파따”라고 하셨는데 마르코 사가는 자기 취향에 따라 아라메아어로 이 단어를 사용하였고 이 말은 주님의 사명을 설명하는 동시에 그분의 가르침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에파따(열려라)”, 이 말로 병어리를 부르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께,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고 모든 사람에게 요청하십니다.

3. 만일 에파따 (Effata)라는 말이 예수님의 사명(Mission)과 가르침을 요약하고 있다면 옛날에 세례 예절에서 왜 이 말을 사용했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닫힌 세상에 태

어나 성세 때에 하느님으로부터 신앙을 받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비겁함의 사슬을 끊어주시어 하느님과 말할 수 있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회에 대해 귀먹고 병어리 된 사람보다 더 이방인이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설명도 할 수 없고 다른 이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도 못하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제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수신기와 송신기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열린 사람들이기를 바라셨습니다. 호감을 가지고 잘 들으려면 열린 귀가 필요하며 자기 신앙을 말해야 될 때 병어리가 되어서는 안 되므로 혀가 잘 돌아가야 합니다.

수녀님들! 항상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사로 주신 성세를 기억하십시오. 에파타(Effata), 거짓과 위선이 아니라 진실과 솔직함입니다.

연중 제23주일

가난

조금 전에 우리 모두가 대영광송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그리스도님” 하고 열성으로 노래하였습니다.

우리를 하느님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겁이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 마라.” 하고 격려합니다.

1.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약간의 흠과 재뿐인 인생,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무(無)였으니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느님의 덕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의 몸과 영혼을 가졌을 뿐이나 그것마저도 하느님께 속한 것이며 그것들은 잠깐 나에게 빌려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몇 가지의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공짜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돈 또한 그러하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가진 것 또한 없으며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 “나 없이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아주 약한 존재이며 매일 죽음에 직면합니다. 만일 내 피 속에 아주 작은 균이 침입하거나 정맥에 아주 작은 모래알이 들어간다면 나는 죽을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역시 약합니다. 나는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외관상 아름다움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벌써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날 까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 홀로 크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나는 가련한 사람입니다. 마치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겁이 많은 자입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항상 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물질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부자라고 믿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이사야에 의하면 부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 할 수 없고 가난한 자 만이 하느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쁨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느님을! 복수가 들이닥친다, 하느님의 보복이! 그 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 때에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 때에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이사 35,4-5).

2.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실망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언한 첫마디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태 5,3) 였습니다. 진짜 가난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은 하느님 없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마음속에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가난은 사람들 앞에 창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입니다. 이 점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서간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 사이에 가난한 자나 부자나 등급이 없고 우리는 모두 동등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가난한 이들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느님의 어린이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어린이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모두 그의 부모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느님께서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싶어 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즉시 그는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가 독립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었으므로 일부러 가난해지셨습니다.

마음으로 가난함이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만의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란 부자가 되려는 욕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악마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부자가 되려고 하였기 때문에 벌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은 무엇보다 교만을, 특히 마음으로 부유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겸손하여 하느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기도하며 하느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부자인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할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루가 1,53) 야고보 사도의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을 골라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야고 2,5)

3.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같은 교리를 가르치십니다.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마르 9, 34~35).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의 병만을 고쳐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모든 사람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만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무엇보다 영혼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참된 부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 대한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귀머거리이고 하느님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병어리입니다. 병어리도 귀머거리도 아닌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게도 재물에 대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부자를 만든다고 믿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쉽게

사라지는 세상의 것입니다. 도둑이 들거나 전쟁이 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돈의 가치는 사람에 따라, 때에 따라 다릅니다. 참된 부는 내적 가치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고 깨달아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병어리도 말을 하게 하시니 그분이 하시는 일은 놀랍기만 하구나.” 하며 경탄하였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당신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으니 저는 귀머거리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묵상 중에 잘 기도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으니 저는 병어리입니다. 주님 제가 말하게 하소서. 하느님의 말씀에 비하면 인간의 모든 말들은 헛된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말은 하지 않고 인간의 말을 듣는다면 그건 허무일 뿐, 참된 부는 하느님 한 분 뿐이십니다.

연중 제24주일

복음 : 마르 8,27-35 1독서: 이사 50,5-9 2독서: 야고 2,14-18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오해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다 보면 흔히 오해가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중인 중증 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회진한 다음 그에게 15일 후에 퇴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15일 후엔 병이 나을 것이라는 뜻으로 알아듣고 자기 병이 그다지 중병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말은 15일 후에 집으로 퇴원하여 죽음을 맞이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의사와 환자 간에 오해입니다.

1.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한 것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생각해 온 것처럼 예수는 승리자인 메시아로서 하느님 백성의 굴욕을 씻어줄 것이며 행복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큰 기적들을 행하시니 분명 승리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 자신도 승리의 기쁨을 누리되리라는 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그런 것이었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서는 행복한 세상의 창조를 원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인간과 하느님의 화해를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폭력과 거짓과 증오와 이기주의와 야심과 같은 죄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들을 사랑으로 바꾸어 놓으려 하십니다. 사랑이 승리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모든 고난과 싸워야 했고 십자가형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승리의 도구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마르 8,34)”. 메시아의 임무는 베드로나 유대인들이 생각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지배하였으나 그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스스로 낮추어 모든 이의 종으로서, 이사야 예언자가 제1 독서에서 말한 고통 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나를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이사 50,6).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거부하였으며 우리도 또한 십자가를 비평합니다. 베드로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나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실망하셨거나 우울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분을 격려합니다. “지금은 죽음을 논할 때가 아니라 싸워야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분명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점령군을 쫓아낼 것이고,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것이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향해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세를 바로 세우고 큰 소리로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구나!”(마르 8,33b) 하고 꾸짖으셨습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세력과 돈과 야심과 거짓과 명예로 승리를 쟁취하려 하지만 하느님은 사랑에 의한 새로운 세상을 얻으려 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군중을 불러 모아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시고 당신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이것은 큰 사업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 각자 하느님께서 정해진 시대와 장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 신자들의 고통은 세상 마칠 때까지 영속될 것입니다. 사랑은 특히 고통 중에 자라기 때문입니다.

2.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일어난 오해는 교회 역사 안에 여러 번 반복 됩니다. **초대 교회 때, 프로테스탄트가 생겨날 무렵, 모든 종교들이 공의회에 모여 성경을 손에 들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오해가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승리자로 개선하는 교회를 원했듯이 우리는 평화의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원하시지 않고, 빈곤층이 존재하는 이 세상 안에 거짓과 불의가 혼재되어 있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당신 몸의 신비체인 교회는 예수님처럼 고통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증오와 권세와 군대와 물질을 논하지만 예수님은 사랑만을 강조하십니다.

요즘 교황님께서서는 군비경쟁에 대해 말씀하시며 군비증강에 사용되는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용해주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교황님께서서는 유산(流産)은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며 홀로 어린이들을 지키심으로써 사랑의 씨를 심으셨습니다. 투옥과 고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인권을 유린하는 권력을 단죄하시며,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이므로 존중되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이유로 교황님은 많은 비판을 받아야 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때 많은 신문들이 민족주의나 제3세계에 대해, 기아로 죽어가는 불행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대해 관여하지 말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교황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 할 수 있겠습니까? 교황님은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이시니, 예수님처럼 항상 사랑을 말합니다. 그는 미소한 자들의 마지막 수호자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세속 사람들처럼 해서 아니 되며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신자들과 신부님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정의와 진리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짓눌린 이들을 수호하기 위함이기에 고통은 그들의 영광입니다.

결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죽음과 실패를 보면서 슬퍼지겠지만 즉시 그분의 부활을 체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엔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형제들의 고통 속에 예수님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저 신부들이 다른 방법으로 행동할 수 없었는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베드로와 유다인들과 다를 바가 없으며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는 것 보다, 고통을 받는 것 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말보다는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행동하십시오. 야고보 사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야고 2,14)

연중 제24주일 (1979년)

복음 : 마르 8,27-35

요르단 강 근처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쉬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지도 어언간 18개월이 흘렀고 그동안 예수님의 활동을 보고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매혹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시키지 않고 자원하게 하였으며 규정하지 않고 질문으로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1.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이제까지 심사숙고한 결과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묻기 시작하십니다. 대화가 무르익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시자 베드로는 모든 사도들의 이름으로 주저 없이 “스승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이 명칭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명칭을 비밀로 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함구령을 우리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메시아라는 말은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를 따르는 것은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 충성을 할만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훌륭한 답을 했지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2. 예수님은 아직 모든 것을 베드로나 그 어떤 다른 사도들에게도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18개월 동안 그분은 단지 당신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점차적으로 당신이 오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라고 설명하십니다. 이날 카이사리아 이르러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앞으로 한발자국 더 나아가 처음으로 메시아가 어떻게 인간의 구원을 보장해줄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말할 때 “사람의 아들” 인자(人子)라고 부르십니다. 구약에서 다니엘 예언자도 관상 중에 환영을 통하여 메시아를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이사야 예

언자도 고통당하는 주님의 종에 대해 말했으며 메시아를 노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성경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마르 8,31)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전능 전지하신 분이였기에 그분이 고통당하고 더구나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며 화가 났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제발 그것만은 ... ! 그러나 바로 그 고통이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거짓 메시아와 참된 메시아를 구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인 것을! 누가 감히 하느님의 이 열정적 사랑에 대해 논쟁할 수 있겠습니까?

3. 우리는 지금 성경의 한 중심에 와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는 누구인지가 비밀이었지만 오늘 성서에서 확실하게 비밀이 벗겨집니다. 나자렛의 젊은 목수는 참으로 메시아로서 성서의 말씀을 이루시지만 예상 밖의 방법으로 실천하십니다. 예수께 대한 우리 신앙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에야 완전해질 것입니다.

마르코 복음을 읽노라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사도들의 신앙의 여정이, 특히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 얼마나 더디고 고통스러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위를 걸을 수 없었지요. 그는 좀 우둔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들도 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도들도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실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정녕 자기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마르 8,35)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성세 때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해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의 수난이 계속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스승보다 더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보다 더 높을 수 없습니다.

연중 제24주일

사도들을 위한 고통의 필요성

오늘 또다시 이 미사 중에 교회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 모두는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병어리 그리스도 신자는, 이사야의 말처럼 쓸모없고 이해하지 못하니 신자가 아닙니다.

1. 제1독서에서 이사야는 고통 받는 하느님의 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에게 대적 하려는 가?”(이사 50,5.8)

제2독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실천이 있어야 하고 오직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고통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야고 2,14)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수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마르 8,31). 수도자들인 여러분 모두는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사제로서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사도,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고통을 아니 더 정확히 우리의 수고의 가치를 잘 이해합시다.

고통 없이 구속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종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첫 번째 종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종”이란 먼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었고 다음으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높이 달린 후에야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의 교훈을 자주 언급하시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는가? (마르 10,38)” 라고 반문도 하십니다.

또한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당신을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루카 24,26) 사도들은 이 고통의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 의회 앞에서 물러나왔다.”

수도자들, 구속의 일꾼들이여! 많은 영혼들의 구원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로지 여러분의 수고와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도 여러분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1베드 4,13).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과 악신으로 인하여 안팎으로 반대와 아픔과 갈등이 표출되게 마련입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섬기는 수도자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일반 신자들도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도둑이 특별히 부자를 겨누듯이 마귀도 우리를 향하여 겨눕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훨씬 풍요롭기 때문에 더욱 미워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공직자는 자기 윗사람과 함께 고통을 당해야 하듯이 우리도 그러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어 내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마르 13,13).

어느 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큰 복락에 있게 될 것이니 그러기 위하여 지금 그분과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말구유에서 십자가까지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고통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진리나 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거짓과 결함이 많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진리, 그것도 어려운 진리, 십자가를 가르쳐야 하며 교만과 관능과 싸워야 합니다. 성직자나 수도자의 길이 어렵다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속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고통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고통을 거절하면 수도생활도 버려야 합니다.

사도인 나는 영혼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가족은 대가족이고 우리 아이들 중에는 많은 아이들이 내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로 인해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사도인 나는 목자입니다. 나는 내 양떼를 사랑하지만 그중에는 여러 양들이 병들어 그들을 고쳐야하니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중에 어린양이 많아서 가르쳐야하고 어떤 양들은 길을 잃어 그것들을 찾아나서야 하고 양들을 우리로 데려와야 합니다.

사도인 나는 포도밭을 경작하는 농부입니다. 많은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 많은 땀을 흘려야 하고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인 나는 의사입니다. 매일 마음과 영혼의 병을 앓는 환자들을 봅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병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고통을 당신이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강한 교회가 된 것은 옛날 하느님의 종들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 모두가 치명의 고통을 겪었으며 한국에서도 여섯 분의 주교가 치명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이분들이 받으신 고통의 덕분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내일의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거절한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구나.”하며 꾸짖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통을 싫어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확실한 정신을 가진 성인으로써, 군대처럼 강한 하느님의 자녀가 됩시다. 예수님의 훌륭한 종이 됩시다.

연중 제25주일 (1979년)

복음 : 마르 9,30-37 1독서 : 지혜 2,17-20 2독서 : 야고 3,16-4,3

어린이처럼 되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열정으로 충만 되시어 제자들과 함께 카파르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동안 기적과 가르침을 통하여 충분히 당신의 임무를 다 마쳤다고 생각하시고 당신이 살아남은 시간동안 제자들을 좀더 수련시켜 당신의 죽음을 준비시키려 하십니다.

1. 지난주에 처음으로 당신 수난에 대해 알려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야 한다”(마르 8,31)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마르 9,31). 지난 주에는 당신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오늘은 절박한 느낌입니다. 사람의 손에 넘어갈 것이란 말은 특별히 형벌의 잔인성을 설명합니다. 같은 의미의 말을 다윗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인구조사를 하고나서, 하느님의 진노를 사 흑사병을

선택할 때 “괴롭기 그지없구려. 그러나 주님의 자비는 크시니 사람의 손에 당하는 것보다 주님 손에 당하는 것이 낫겠소”(2사무 24,14) 라고 했습니다. 하느님과 비교할 때 사람은 불의하고 무자비합니다. 지혜는 하느님의 계획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각자의 구원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도 “예언자들이 사람의 손에 죽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죽음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알고 계셨으며, 삼일 후에 그분은 부활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 잡혔었는데 오늘은 사도들이 겁을 냅니다. 실은 이모든 일은 이천년 전에 지나간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2. 마르코 사가에 따르면 예수님의 생은 마치 갈바리아 산을 향하여 서서히 오르막길을 오르 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한 자주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길에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느냐?”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있어 “길”은 서로에게 그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께 길이란 십자가를 의미하지만 사도들에게는 자기들의 직업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자신의 직업 수행을 말하는 것일까요? 길에서 사도들은 자기들 중에 누가 제일 높으냐?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도들도 어떤 모임이나, 회당에서나 식사 때에 자리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유대인들의 옛 책의 기록을 보면 그런 서열에 대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훌륭하다는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나 재산, 인사들과의 교류관계, 문화적 수준에 따라 가치를 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경시합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전혀 다르게 가르치시고 감히 혁명적 행동을 하십니다. 서울의 길에서나 가파르나움의 길에서나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는 눈치를 보지 않고 어디든지 드나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어린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데리고 오셨는데 예쁘고 귀여워서 뿐만 아니라, 약하고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린이들이 소란스럽다고 귀찮아합니다. 사람들은 어린이들을 때로 귀찮은 존재로 여겨 악한 방법으로 몰아내기도 합니다. 어린이는 연약하기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어느 날 교황 바오로 6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교회의 심장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사도들 한가운데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3. 어린이가 예수님 품에 안겨 사도들 한 가운데 있는 광경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마르 9,37).

신자들의 위대함은 가장 불행한 사람들에게 해준 봉사에 따라 결정되며 이것은 또한 마지막 심판 때의 판가름이 됩니다. 봉사와(Service) 노예 상태(Servitude)! 인간의 눈으로 본 노예상태를 오직 신앙의 눈과 종교적 선행만이 봉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곧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가장 험벗은 이들을 받아들이고 봉사해주는 것이 하느님인 그리스도 자신을 영접한 것이고 봉사한

것입니다. “거지 옷을 걸치고 내가 너의 문을 두드렸다.” 봉사 정신을 획득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와 불쾌감들을 이겨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써야하고 건강과 명성을 포기해야 하는지! 단조롭고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익혀야 하는지! 장애인들, 노인들, 난민들을 돌보아주는 것은 전혀 빛도 나지 않는다고 많은 부자 신자들처럼 무관심 중에 있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하느님은 이 어린이를 통하여, 이 병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것이 모든 가난한 사람에 대한 첫째가는 행동이며 이것이 또한 하느님의 첫째가는 성사입니다. 하느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느님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연중 제25주일

어린이 교육

서울을 여기저기 다니다가 오늘은 아름다운 집들을 보았습니다. 부러운 집들입니다! 한편 어떤 집들은 담을 쌓고 철책을 놓고 철제 대문위에는 가끔 “개 조심!” 이라고 쓰여 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집들은 무서워서 감히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이들의 집은 사람의 방문을 싫어하고 이웃과도 전혀 접촉이 없는 집입니다. 이런 집들이 있는 가하면 또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엄한 얼굴이 불쾌감을 줍니다. 개인적 습관과 생각으로 모든 방해물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냉담하며 지나치게 조용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기쁨이나 필요한 것들을 알려하지 않고 근심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마치 그 마을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갑니다.

1. 여러분들은 성령 강림 이전에는 사도들도 이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이 소식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고 감동도 없었으며 어떤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이나 장래에 대해 하느님 나라에서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가파르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의 교만과 무지를 보시고 어쩔 수없이 제자들을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마르 9,35-37).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녀님들! 예수님과 꼭 같은 애정과 같은 믿음으로 어린이들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수도 생활 동안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기회를 적게 혹은 많이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역시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어린이들이 버림받고 어떤 이들은 아이들을 죽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가난한 부모들이 모두 공장에 일하러 가면, 어린이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반기고, 안아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과 놀아주며 기쁘게 해줄 사

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로 세계 전체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사회 안에서 어린이들도 어른들처럼 자신의 위치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버릴 권리가 없고 오히려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가정은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안락을 보장받는 곳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가정환경에서 어린이들은 명랑하게 자랍니다. 비록 논쟁이 있을지라도 자신을 사랑해주는 어른의 판단에 순응합니다.

2.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어린이들은 그분 곁을 찾아듭니다. 그들 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고 계십니다. 모든 어린이들은 태어날 때 하느님 아버지의 모상으로 창조됩니다. 그래서 자유와 지성을 갖게 되며 성세성사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 은총을 받게 됩니다. 이 하느님의 생명이 어린이 안에서 자라고 있으므로 하느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랑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 부모로부터 배우고 그리스도 공동체로부터 배워야합니다.

그리스도 신자인 어른들, 말하자면 부모들, 사제들, 수도자들, 본당의 신자들은 좋은 표양으로 그들을 점차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되도록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의 열심은 우리들의 사랑에 달려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과 어른들이 거짓말을 하여 좋은 표양을 주지 못하며 어린이들을 잘못 교육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또한 어려운 삶으로 인하여 부모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당공동체에서 열심한 신자들, 특히 수도자와 성직자들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부모들의 자리를 대신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안에 우리는 하나의 몸을 형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린이들은 참으로 우리의 어린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작은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마태 18,10). “나를 믿는 이 작은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편이 낫다”(마르18,6).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마르9,37).

수녀님들! 어린이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말하고, 놀고, 웃으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어린이들을 사랑한다 해도 하느님은 여러분들보다 그들을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은 당신 섭리로써 이 어린이들을 우리가 가는 여정에 놓아주셨으니 그들은 우리의 어린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이 어린이들에 대해 하느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니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원하시니 너그럽게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사심을 갖지 않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본당의 어린이들을 사랑하십시오. 성체를 모실 때, 성체조배를 할 때, 그들의 부모를 위하여, 그들의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수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특별히 처음에 내가 말한 것처럼 너무 엄한 표정을 보이지 말고 엄하게 다스리지 마십시오. 항상 어린이들에게 웃음으로 대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듯 어린이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하십시오.

연중 제25주일

하느님의 뜻

예수님의 인생 여정 중에서 가장 감명 깊은 순간은 무엇보다 수난이 시작되는 때에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신 순간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순명의 의지뿐 아니라 깊은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느님의 뜻은 가장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지성을 가졌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비교하면 하느님의 생각은 인간을 훨씬 초월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이 우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1코린 1,18.23).

하느님께 대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이 두 대립적 사고방식을 오늘 미사 중에 하느님은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제1독서에서 “의인을 죽이자”하고 악인이 말합니다. 하느님의 사상을 갖고 있지 않은 이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없애려 합니다.

제2독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두 사고방식을 비교하여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수하고 그 다음으로 평화롭고 관대하고 유순하며 자비와 좋은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야고 3,17).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은 “여러분의 싸움은 어디에서 오며 여러분의 다툼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욕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야고 4,1) 하고 지적하십니다.

복음에서는 사도들에게 인간적 사고방식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왕이 되기를 바라느냐? 아니다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삼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는 첫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여라.” 하고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시고 어린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느님께 봉사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우리 삶에서 오는 모든 문제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느냐? 우리 뜻을 따르느냐? 에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나쁜 신자나, 나쁜 수도자는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보며 오로지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요한 5,24)고 하셨습니다. “너희의 생각은 내 생각과 같지 않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하느님의 뜻은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시기 위해, 하느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

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요한 6,38).

2. 예수님의 뒤를 이어 많은 성인성녀들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분들 중에 그렇지 않은 분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유롭게 당신의 뜻을 실천하기를 요구하십니다.

3. 하늘나라에서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4.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고 자신의 뜻만을 이룬다면 얻어지는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느님을 상대로 반항하고 조롱한다면 지옥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합니다. 살인까지 하며 시기를 해보지만 얻어내지 못합니다”(야고 4,2)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은 감성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은 모든 면에서 고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끈기와 인내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결단력입니다. 수도자인 여러분들은 순명서원을 하였는데 순명은 어떤 사람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의 뜻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하느님의 뜻은 가장 값진 것이고 하느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며 하느님의 뜻을 행하다보면 점점 그분과 일치하게 됨을 아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마르 3,35).

우리는 매일 몇 번은 하느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불행과 고통 중에 또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사고 중에도 옅처럼 토빛과 닳은 왕과 예수님처럼 말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요한 17,4).

연중 제26주일

복음 : 마르 9,37-47

시기, 추문, 노력

오늘 복음에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은 질투나 추문을 피하고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1. 질투하지 말라.

요한 사도가 예수님께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막지 마라” 하셨습니다. “막지 마라” 하는 말 속에는 시기하지 마라, 공격적이지 마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1 독서에서 엘닷과 메닷에게 영이 내려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하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저의 주인이신 모세님, 그들을 말리셔야 합니다”고 하자 모세는 “너는 나를 생각하여 시기하는 것이냐? 차라리 주님의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사람

중에 영세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니 이들을 형제적 존경심으로 대하십시오.

성령께서 어떤 분인지 배우십시오.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위대한 영으로 활동하시고, 불고 싶은 곳으로 부니 칸막이로도 가둘 수 없는 분입니다. 외교인 중에 이상한 질문으로 논쟁을 벌이는 엉뚱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항상 관대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침묵해야 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요구할 때는 답을 해주고 예수님께서 언제나 교회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한 영혼의 구원은 너무도 중요해서 악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동원해야 합니다. 교회도 하느님의 계획에 호의를 가지기만 하면 무엇이든 교회의 것으로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라고 하여 물 한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백배의 상을 받을 것이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같은 자매를 비난합니까? 프로테스탄트! 라고 하며 왜 헛된 논쟁을 합니까? 그러니 그들이 좋은 일 하는 것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2.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죄짓게 하지 마십시오. 신자 공동체마다 약자와 강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긴장은 피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부터 오는 유익하고 풍요롭게 하는 긴장이 있는가 하면 이기주의로부터 오는 어리석고 상스럽지 못한 긴장도 있습니다. 신자들이나 수도자들 중에 비평하고 불만하며 다른 사람들은 속이 좁다고 판단하는 악한 표양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생활과 교회 내 활동에 있어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을, 특히 약한 사람들에 대한 존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구원의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자들에게 사도 바오로는 “나는 여러분에게 젓만 먹었을 뿐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1코린 3,2).

예수님은 때로 굉장히 엄하신 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처럼 유다지방에도 큰 멧돌이 있어 밭을 뺨고 과일즙을 낼 때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멧돌을 죄인의 목에, 또는 흉악한 병자나 나병환자의 목에 매달아 바다에 던지는 벌이 있었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하신 이 예수님의 판결은 너무나 것 같지만 정확하고 힘 있는 훌륭한 판결입니다.

3. 신자는 누구나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옥은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지옥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마귀도 없고 지옥에 가는 사람도 없다고 하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지옥엔 한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악은 살아있는 어떤 것, 사탄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악은 간악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면을 벗기시고 그를 제일 두목으로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당신의 왕국에 가실 때까지 사탄과 싸우셨고 그를 격파하셨습니다. 지옥은 존재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지옥은 사랑의 부재”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옆에 게헨나(Gehenne) 라고 불리는 골짜기가 있었는데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유다왕들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몰록(Molock)이라고 부르는 우상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쳤었습니다. 그러나 선왕 요시아가 그 우상을 허물고 예루살렘의 쓰레기를 그곳으

로 가져가 태워 쓰레기 처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게헨나(Gehenne)로 보내라”는 하나의 금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불속에 보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 불을 피하려면 모든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엄숙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기탄없이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두발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신자 생활을 칭찬하시고 가장 존귀한 은총은 선종의 은총이라고 단언합니다. 물론 “사탄의 태양 아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빛 속에 사는 것 보다 확실히 더 어렵습니다.

연중 제27주일

복음: 마르 10,2-16 1독서: 창세 2,18-24 2독서: 히브 2,9-11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오늘 복음에서 결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제1독서에서는 첫 인간의 결혼에 대해 말하고 있고 둘째 독서에서는 바오로 사도께서 우리보다 고차원적 사고로서 또 다른 결혼, 즉 하느님께서 육화하시어 인간과 결합하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느님과 결합되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냐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나 모두 한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히브 2,11).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결혼의 불가해소성을 강조하여 가르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어린이와 같은 정신을 가지라고 권고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는 수도자들로서 정결과 순명으로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수도자인 우리에게 결혼을 비유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서원 서약이 결혼 서약과 같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느님의 육화와 혼배성사와 우리들의 서원은 사랑 안에 두 사람의 결합이기 때문에 같은 것입니다. 결혼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강생에서는 천주성과 인성의, 수도서원에서는 여러분 각자와 예수님의 결합입니다. 이 계약들은 양자간에 사랑이 없다면 유지되지 못합니다.

결혼에서 각자는 자기 몫을 가져다가 상대방에게 바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 무한한 공로, 당신 육신과 흘리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바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겨우 우리의 비참함과 신뢰와 당신을 위하여 일 하고자 하는 원의를 봉헌할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들은 하잘 것 없고 아니, 때로는 민망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착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봉헌을 만족해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서원은 거룩한 계약, 축성된 계약이므로 해약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 아들의 육화는 모든 인류와 결합하셨으므로 소멸할 수 없습니다.

1. 모든 결혼 계약은 영구한 것이므로 끝이 없는 계약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일치되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일치에 방해되는 분심이나 유혹을 끊어버리기로 결심하였고 가난과 정결과 순명의 생활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약한 인간으로서 이러한 책임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산다는 것은 힘들고 우리의 힘에 겨운 일이라고 말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젊었고 열정이 많았지만 생각이 깊지 못하여 나중에 그 점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자라면 진정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부르신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수도생활을 계속 하도록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편에서도 성실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필연적으로 기도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며 교회가 제시해주는 방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유혹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감시하며 충실할 때 수도생활은 아름다워질 것이고 더 이상 우리 힘에 겨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2. 결혼 또한 공적 계약입니다.

결혼 서약은 증인들 앞에서 합니다. 우리서원 역시 공적인 것이어서 주교님 앞에서, 우리부모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서약 합니다.

수도생활은 교회 밖의 일이나, 교회의 부속물이나, 가구 같은 장식품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입니다. 수도생활은 세상 끝 날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인류와 혼인하셨으며 그 혼인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사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며 수도생활은 마치 교회의 보물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므로 세상에 거룩함을 가져 오셨습니다. 수도자는 자기가 사는 장소에서 거룩함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수도자가 다 거룩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세상 안에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도자들이 사람들에게 기도생활, 전례생활 즉 사랑의 삶과 거룩한 생활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서원으로 수도자는 그리스도와 결혼했으므로, 더욱이 이혼이란 금지되어 있으므로, 교회의 허락 없는 서원의 파기는 신성모독입니다. 물론 내편에서 아무 잘못 없이 수도원을 떠나게 되었다면 죄가 되지 않겠지만 나의 성의 없는 생활태도로 인한 것이라면 그 책임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결론으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와 같이 단순하게 순명하고 가도하며 마음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합니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쁨 중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연중 제28주일

복음: 마르 10, 17-30 1독서: 지혜 7,7-11 2독서: 히브 4,12-13

그리스도의 굳셈

제1독서에서는 지혜를 말하고, 제2독서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들은 하나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지혜이며 지혜는 하느님이십니다. 복음에서는 우리들과 같은 성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 예수님은 스승이십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과 같은 선생님이 아니며 그런 선생들처럼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느님으로서 그분이 가르치시는 모든 것은 진리이며 지혜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항상 명확하고 정확하며 힘이 있어 그분의 말씀에서 어떤 약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일부분을 요구하지 않고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서 나를 따르라.”(마르 10,21)

세상에서 어떤 선생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님도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자신에 대해 확실하신지! 예수님이 전부를 요구하시는 이 요구는 이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이 있으며 어떤 것도 그분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느님은 창조물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건 무례하고 불의한 짓으로 지혜와 상반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혜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떠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속과 하느님을 동시에 사랑하고 싶어 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만이 지혜입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마태 7,21).

2. 복음을 읽을 때 쌍날칼처럼 날카로운 말씀을 들으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성실함과 진실을 사랑하셨으며 얼마나 위선자들을 싫어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루카 11,37-54)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알고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강요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께서 반쪽 사랑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고 말들 하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 이외의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하느님의 사랑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마음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3. 무엇 때문에 우리가 수녀원에 입회하였습니까?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이 성실하고 진실한지 아니면 위선자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처럼 진리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거짓을 사랑하는가? 지혜와 망상을 혼합할 수 있을까! 세상과 하느님을 함께 섬길 수 있을까! 진정으로 여러분은 세상을 버렸습니까? 세상에 욕심과 매력을 가지고 자주 뒤돌아보지는 않습니까?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하여 하느님 한분에게 전념해야하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그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죄수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는 쇠사슬에 사지가 묶였습니다. 그는 탈출을 시도하여 노력 끝에 쇠사슬 세 개를 끊는데 성공하였으나 나머지 하나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쇠사슬에 매어 감옥살이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도 하느님을 향하여 가고 싶고 일치하고 싶어 수녀원에 와서 몇 개의 사슬은 끊었지만 전부를 끊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계속 이 세상에 재물을 사랑하고, 제 뜻대로 하고 싶어 장상을 비평하고, 자신의 욕심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묶여 있어 하느님을 향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감옥살이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따를 때 모든 것을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마르 10,28) 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평화와 기쁨을 간직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오로는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히브 4,12)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양심이 우리를 비난 할 것이며 마치 불구자와 같아 불행할 것입니다.

엘리아 예언자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절뚝거릴 작정입니까? 주님께서 하느님이시라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십시오”(1열왕 18,21) 라고 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꼭 같은 말을 하십니다. “정말 너희가 수도자냐? 그렇지 않으면 세속사람들이냐? 진실로 너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그분만을 사랑하여라. 하느님과 바알, 두 신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영세를 받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 성사생활을 하지 않으며 성직자 수도자들까지 성소를 버립니다. 이런 일들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느님과 다른 것들을 동시에 사랑하려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들을 내치시는 것입니다.

외교인들도 그리스도 신자들이 믿기는 하여도 그들의 삶은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평합니다. 그들은 주일을 지키고 미사에는 참석하지만 돌아오면 믿지 않는 이들처럼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수천만 명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고 도우라 하셨는데 그들을 돕지도 보살피지도 않고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백배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지혜이신 분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 하느님께서 상을 줄 수 없고 원하시는 축복을 줄 수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부터 지혜이신 말씀을 더욱 믿고 더 잘 알도록 노력하며 실천합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내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땅을 깊이 파서 반석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집에 들어 닥쳐도 그 집은 잘 지어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루카 6,46-48)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연중 제28주일

부자 청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 강론에 별로 흥미가 없어 잘 듣지 않고 즐기 일쑤입니다. 특히 강론이 신자들에게 변화를 주지 못하고 그저 어떤 사람의 말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은 다릅니다. 사도 바오로는 제2독서에서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히브 4,12). 복음에서 하느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세 가지만 묵상해 보겠습니다.

1.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은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그의 부모들도 가난하여 보잘것없는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전교하실 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참하게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두 사도들과 공동으로 생활비를 관리하였으며 유복한 여자들이 그들을 도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마른 이들과 굶주린 이들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부자들의 잔치에도 초대받아 가셨으니 세례자 요한의 생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 완전히 자유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재물의 노예가 아니면서도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아버지만을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태도입니다.

돈은 좋은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나 때로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돈은 거짓된 안전을 보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수표뭉치를 갖고 있으면서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은 불필요한 일로 생각합니다. 마치 성경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루카 12,19).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경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 하셨지요.

오늘 복음에서 젊은 청년은 양자택일을 해야만 합니다. 재물을 따를 것인가? 가난을 선택하여 예수를 따를 것인가? 부는 중독을 주는 독약으로 나쁜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부자는 교만해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호화로운 사치를 자랑합니다. 그는 자기 신분의 노예가 되고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재물은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 일으켜 세상에는 사랑과 정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젊은 부자 청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가난한 사람들,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매일 잔치를 열고 가난한 라자로는 대문 밖에서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음식 찌꺼기를 언제까지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이 가난한 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2.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은 부자의 구원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 니코데모, 마태오, 자케오, 아리마태아의 요셉,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도 구원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부자로 살면서 바늘구멍으로 빠져 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동방박사는 그들의 나라와 가정을 떠나 예수님을 위해 보물을 가지고 먼 길을 헤매어 찾아왔으며, 마태오는 자기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고, 자케오는 부정 축재한 것을 돌려주었으며, 아리마태아의 요셉은 자기명예를 걸고 예수님께 자신의 무덤을 드렸으며 마리아는 값진 나르드 향유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돈에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부자는 자기재산을 나눔으로써 마음으로 가난해져야 합니다. 젊은 청년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의 재물을 사랑으로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몇 사람만 부자로 살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다만 자신의 의무에 따라 얼마의 재물을 유지해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갖는 것,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황금 신을 섬기며 하느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어느 정도를 주어야하는지는 말씀하시지 않지만 내가 어느 정도를 소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도달했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큰 전쟁이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재물을 선택한다면 기쁨과 예수님은 사라질 것입니다. 만일 재물이 사라진다면 예수님이 계실 것이며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젊은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간 것은 그가 재물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재능이 있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께 빛을 진 것입니다.

3.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각을 하지요. 부자들은 자기들이 가난한 정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 주머니가 비어있으니까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부자들을 비평하고 미워하며 질투합니다. 하느님은 무엇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마태오 복음에서 예수님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태 5,3) 라고 하셨습니다.

수도자가 관면 없이 얼마의 돈을 지니고 있다든가 또는 너무 쉽게 돈을 쓴다면 가난한 수도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재능이 있다 하여 또는 전문직 자격증이 있다하여 돈을 쓸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주신 재능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느님께 빛을 진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시오”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박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천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토지를 백배나 받을 것이다”(10,29-30).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니 우리도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젊은 청년처럼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명보다 먼저 예수님과 그의 사랑의 법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이는 예수님께 완전한 사랑을 드렸습니까?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하신 이 말씀은 시금석과 같은 말입니다. 아마도 이 젊은이는 착한 유대인이긴 하나 제자는 아닌 것이 틀림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가난 정신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수녀님들! 끝으로 오늘 복음을 묵상한 후 필연적으로 사도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의 사랑과 재물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순간의 번쩍이는 걸치레와 꺼지지 않는 빛 중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느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 중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의 이유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연중 제29주일

복음: 마르 10,35-45 1독서: 이사 53,10-11 2독서: 히브 4,14-16

하느님의 종

하느님의 말씀을 설명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적 개념과는 너무도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예언자 이사야, 예레미야는 메시아를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언은 분명히 고통과 모욕을 받는 메시아였습니다. 오래 동안 매 토요일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회당에서 이 예언서들을 읽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개선하는 왕, 현세의 왕을 기다려왔습니다. 사도들도 자신들에게 좋은 자리를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수난을 예고하였지만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도들 중 두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께 다가와 무언가를 청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지위와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 다가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들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 중에 청하고 원하는 것도 같은 종류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 자신을 더 생각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세 마디로 대답하십니다.

1.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야심 많은 신자들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봉사하는 것은 모든 우두머리들과 장상들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위대함의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느님의 길이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종이란 말은 마치 예수님의 애칭처럼 되었습니다. 이사야예언자는 방금들은 제일 독서에서 본 것처럼 메시아를 말할 때마다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잉태되실 때 마리아 역시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자렛에서 예수님은 그 마을 사람들의 봉사자로서 가구 수리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인 역할 보다 하인들 편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셨습니다. 나자렛을 떠날 때는 당신 백성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하러 가셨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분은 많은 군중에게 봉사하시며 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이를 되살리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며 가난한 이들을 해방시키며 밤낮으로 봉사하셨습니다. 그분은 식사할 시간도 주무실 시간도 없었다고 마르코 사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하직할 때가 오자 마치 종처럼 사도들 앞에서 배신자 유다 앞에서까지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의 스승이며 주인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요한13,14)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하신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수녀님들, 형제님들,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봉사하는 사람입니까? 봉사를 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물이나 재능이나 건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

해 사용하십니까? 만일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 사용하면 그것은 영원한 재산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남을 섬기는 정신이 없다면 모든 것은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남을 생각하는 정신이 희박하기 때문에 세상은 악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웃사랑을 교육합니다. 성세를 받은 이들은 이교도들처럼 이기주의가 되어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2.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노예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맨 끝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하인보다 더 낮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치 노예처럼 맨 끝자리에서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맨 끝자리는 가장 불편한 자리이고 제일 비천한 자리라서 누구나 본능적으로 이 자리를 싫어합니다. 노예와 하인 중,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하인과 주인, 직장인과 사장, 가난과 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가장 편안하고 가장 명예로운 자리겠지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겂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 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마르13,38-39)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맨 마지막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수의 자리를 취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수녀님들! 필연적인 예수님의 행동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불행하게도 그리스도 신자들 중에 예수님처럼 자기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복음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생활로 연결시키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신자들 중에 어느 누가 끝자리를 얻으려고 노력합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비해 우리는 오히려 자신의 안락과 재물과 명예를 더 좋아한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닮지 않고 그분처럼 살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의 정배’라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3. “사람의 아들은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목숨을 바치러 왔다.”

사도 바오로는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1코린 1,18) 라고 말합니다. 대학을 다니는 사람 중에 많은 이들이 철학, 신학, 인문학, 법학, 의학 등의 학위를 얻으려 노력합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으로서 박사들보다 훨씬 위대한 분입니다. 이상하게도 그분은 특별히 봉사하는 종의 박사입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수도자로서 신자로서 우리의 영광은 예수님을 닮은 종의 신분에서 있습니다. 신자인 우리는 이교도들처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 신자는 가장 부자나 가장 큰 권력가나 가장 큰 학자가 아니라 종과 노예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다른 이들을 도웁시다. 그리하여 주님 수난의 효력을 연장합시다.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름을 봅니다. 우리에게 바보처럼 보이는 것이 오히려 하느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연중 제30주일

복음: 마르 10,46-52 1독서: 예레미야 31,7-9 2독서: 히브 5,1-6

예리고의 소경

오늘 마르코 복음에서 소경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르코 사가는 얼마나 잘 묘사했는지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소경의 이름은 바르티매오이고 티매오의 아들이며 예리고 라는 읍내에 살고 있었습니다.

1.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특징 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마르코 사가가 베드로 사도의 비서였다는 가정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이 가련한 사람 앞에 드러난 예수님의 권능과 선하심을 보며 감탄한 것을 나누고자 우리를 초대합니다.

먼저 그는 우리에게 이 눈먼 이를 소개합니다. “그는 예리고에서 나오는 길가에 앉아 있고, 거지이며, 이 떠들썩한 소리가 무엇인지 자문하고 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즉시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른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얼마나 큰소리를 쳤는지 군중들로부터 면박을 받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가까이 부르시자 그는 걸음은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누가 이 두 시선이 마주치는 신비를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나는 병원에서 눈먼 이에게 무엇이 가장 보고 싶냐고 질문하였더니 그는 엄마의 눈과 하늘의 별이라고 말했습니다.

행복하여라. 바르티매오! 그는 예수님의 눈을 보았으니!

2. 예수님과 바르티매오 사이에 대화는 간단하지만 그 의미는 얼마나 심오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눈 안에 눈!” 이라고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하느님을 본다는 것은 구약에서 가장 심오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행복하여라! 예수님의 표정을 보는 사람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아버지의 외아들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요한 1,14).

예리고의 눈먼 이에 대한 이야기에서 마르코 사가는 기적보다는 다른 의미를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시력은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계시의 상징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세례를 받을 때 눈이 멀었고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서 시력을 다시 찾았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세례를 “조명 (Illumination)”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이 눈을 뜨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즈음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합니다.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는 “신앙으로 나는 그분을 뵈고 그분의 몸을 만집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오르기 전에 마지막 쉬는 곳으로 원기를 회복시켜 가는 곳입니다, 이 바르티매오에게 하신 기적은 예수님 가르침의 중심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나라 전역에서 가르치셨지만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으로, 개선문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비밀로 가르치셨고, 사람들이 당신의 기적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명에 관해 민족주의적 해석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예리고에서는 처음으로 당신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말을 받아들이십니다. 또한 이곳에서 처음으로 기적을 받은 이가 제자로서 당신을 따르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이해하고, 알아보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를 예수님과 일치시키고 구원을 얻게 합니다.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생애 동안 어느 순간 적극적 의식으로 구체적인 이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연중 제30주일

예리고의 소경

지금 여러분들이 들은 이 복음 말씀을 나는 특별히 좋아합니다. 쉽게 그 현장을 그려볼 수 있지요. 예리고성 문 앞에 눈먼 거지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큰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이 소리를 듣자 소경은 그분이 많은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기에 그도 예수님을 꼭 뵈고 싶었습니다. 더욱이 그분은 대단히 착하신 분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을 그분께 이끌고 가주는 사람이 없어 안타까웠는데 그날,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의 앞을 지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쳤는지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시 만나지 못할 절호의 기회이기에 예수님이 듣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외쳤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 오너라.” 하시고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오!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하시자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눈먼 이는 기도의 모델입니다.

1. 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지나시는 순간 그는 즐거나 분심을 하지 않았습니 다. 그는 입술로만 기도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모든 주의를 다 기울여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였습니다.
2. 그는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가난한 거지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자기 힘으로는 눈을 고칠 수 없으므로 기도도 거지처럼 애원하듯이 합니다.
3. 그는 열정으로 기도합니다. 인간에게 있어 시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명상할 때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느님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4. 그는 끈기 있게 기도합니다. 여러 번 사람들이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계속 외쳤 습니다.

5. 그는 신뢰를 갖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착한 분이라고 그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대로 믿고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부탁하듯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소경처럼 이렇게 기도합니까?

마음을 모으고 겸손과 열정과 끈기와 신뢰를 갖고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감동하지 않을 수 없지요! 하늘에서 성인들과 천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그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쁨에 충만하여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봉헌합니다. 인간인 우리도 미사 중에 입당송과 영광송 때에, 찬미를 드리고, 청원기도와 특히 용서를 청하는 기도를 바칩니다. 인간인 우리는 모두 가련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수도자인 우리들도 기도를 해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우리들은 일반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 의무를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수치이며 많은 불행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모든 수도자들에게 있어 첫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 아버지를 위하여 전생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에 오실 때, “당신의 뜻을 이루려 왔다” 하셨고, 생애 동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하셨으며 돌아가실 때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고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산위에서, 길에서, 밤이나 낮이나, 설교할 때나 기적을 행하실 때, 모든 기회에 혼자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은 마음을 모아 잡념 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려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후 조용히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주님은 단순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마르 14,39)

주님은 긴 시간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워 하느님께 기도하였다.”

주님은 열성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끈기 있게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올리브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또 세 번째 기도하셨습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은 겸손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감실에서 항상 형제인 인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사람들을 위하여 중재자로서 일을 하십니다.” 요한 사도는 “아버지 앞에서 항상 우리를 변호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였습니다.

그분은 마치 보잘 것 없는 종이 바치듯 기도하십니다. “상전들의 손을 여겨보는 하녀들 눈과 같이 주부들의 손을 여겨보는 하녀들 눈과 같이 우리 눈도 주 하느님 우러러 보며 어여뻐여 기심을 바라나이다.”

수녀님들! 우리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기도합시다. 언제나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당신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당신은 제 마음을 다 아십니다. 저의 헛된 욕심과 소홀함과 냉정함을 알고계신 주님, 저를 용서해주시고 저의 개인적 성화를 위하여 기도의 정신을 허락해 주십시오. 매일 제가 만나는 영혼들의 성화를 위해서도 비오니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십시오.

연중 제31주일

복음: 마르 12,28-34 1독서: 신명 6,2-6 2독서: 히브 7,23-28

나도 어렸을 때 교리 반에 다녔습니다. 그때 내가 율법학자처럼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본당 신부님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치셨거든요. 삼위일체, 천당, 지옥 연옥, 임보, 강생, 구속, 부활, 승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천사들, 원죄, 대죄, 소죄, 칠성사, 향주덕, 윤리덕, 성화은총, 상존은총(grace actuelle), 교회, 하느님 나라, 미사성제, 기도 등 마치 수필처럼 너무나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 사제들은 248개의 법령과 365개의 금령을 가르쳤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질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의 구별 없이 꼭 같은 방법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아침기도, 저녁기도입니까? 주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혹은 다른 계명입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주 우리 하느님은 한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리스도 생활의 본질은 이 두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주제에 대해 많은 이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 “하나”는 첫째 계명인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미사 드리러 올 때 하느님 말씀 듣는 것을 갈망합니다. 미사 중에는 정의라든가 평화, 연대의식, 봉급과 같은 말은 잊어버리고 나의 매일의 문제나 세상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제가 흔히 하느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잊으면 하느님께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사람에게 드리는 제사일 뿐입니다.

나에게 있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신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나는 기도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의 미사는 다른 사람들이 정의로움과 평화로움으로 발전하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섬기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제들은 모든 이를 위한 사제들로서 양쪽에서 충고와 비평을 듣습니다. 어떤 이는 “당신은 하느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는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반대로 “당신은 확실히 하느님만을 믿지만 우리는 사람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믿는다고 합니다. 진실로 오늘 두 종류의 사제들을 볼 수 있는데 하느님에 대해서만 말하는 사제들과 인간을 위해서만 말하는 사제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명확히 두 계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하느님을 공경하기 위해 인간에게 등을 돌려야 합니까? 만일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까? 만일 사람을 사랑한다면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에 경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사람을 사랑한 이가 있습니까? 그분보다 더 하느님을 사랑한 이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나의 양식이다. 나는 항상 그분의 마음에 드는 일만 한다”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하느님보다 다른 이를 더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까?** 교황 바오로께서 “예수님은 하느님을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자인 우리는 누구보다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므로 하느님 사랑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기만족을 위해 그들의 어린이에게 무언가를 준다면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이들을 위해 무언가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근심 걱정과 책임감, 함께 사는 사람들을 떨쳐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과 이웃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주 미사에 참여하면서 매일 만나는 이웃의 마음 안에 하느님의 현존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 매 주일 신자들은 성당에 모입니다. 예수님은 미사가 형제나 자매로서 하나의 가족처럼 다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는 것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보석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너희 형제들을 생각해라” “너의 아우를 어떻게 했느냐? 너의 형제들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외교인들이 신자들을 볼 때 “하느님을 믿는 저 사람들의 단체는 정말로 하느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보다 “저 신자 단체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비참과 부정과 영적 무지를 없애기 위해 일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첫째 계명을 좋아 한다”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이 하느님 사랑이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가도 중요합니다. 신앙은 사랑에 의해 생명을 유지합니다. “내가 진실히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 너희가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루카 25, 40-45).

당신의 열의가 하느님의 원의와 일치합니까? “나는 특별히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일한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주의할 것은 외교인들도 이와 같은 일들을 다른 이들을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 안에서 하느님을 보지 않는다면 서서히 하느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주 밤을 새워 기도하셨으며 항상 아버지와 일치하여 계셨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육신만 돌보는 것은 충분치 못합니다. 육신에게 매일의 빵이 필요하듯이 영혼도 하느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역시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하느님처럼 사랑합니까? 만일 그것이 그들의 호감을 얻기 위함이거나, 물질적 향상이나 물질 행복을 얻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충분치 못합니다. 그들이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도) 그들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며 예수님입니다.

연중 제31주일 (1979년)

복음: 마르 12장 28-34

하느님께 대한 애덕을 거스른 죄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째 계명이며 우리가 수녀원에 온 이유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독서 중에, 말씀 안에서 이 주제에 대한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오로 자신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준다 해도, 내가 온갖 지식을 다 깨달았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든 죄는 사랑을 거스른, 하느님의 사랑을 거역한 허물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느님의 사랑을 거역한 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증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 생각 할 수 있으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가장 중대하고 소름끼치는 죄악이며 사탄의 죄입니다. 그는 사랑이 소멸된 인간으로 더 이상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고 언제나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의 죄입니다. 또는 항상 하느님 섭리에 대해 불평하는 죄와 수녀들에게 나쁜 표양을 보이는 사람으로 수녀원 안에도 이런 수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수녀는 많은 죄의 원인이 됩니다. 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보다 더 큰 죄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보존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시며 친구요, 한없이 좋으신 분, 거룩하고 정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증오할 수 있습니까?

하느님은 언제나 결국은 승리하십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교회 초창기 삼백년 동안 박해가 있었습니다. 발레리의 황제가 특별히 잔인했는데 페르시아의 사포르 왕과 전쟁을 하여 패하였습니다. 그를 페르샤로 끌고 가 그곳에서 사포르 왕은 오래 동안 그를 말을 탈 때 던고 올라가는 발판으로 삼았다가 얼마 후에 그를 죽여 그의 가족으로 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잔인한 자의 말로가 이러했습니다.

박해시대에 숨어있는 사제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잡지 못하자 다시 한번 유다 같은 자가 피를 내어 “내가 아픈 척 하고 병자성사를 청하면 신부가 올 것이다.” 하며 병자성사를 청하였습니다. 신부가 도착하여 환자를 보고는 그 가족에게 너무 늦게 연락했다고 나무라자 사람들은 비웃었으나 환자 곁에 가보니 그는 정말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자가 말이나 글을 쓸 때 항상 하느님을 대적하여 끔찍스럽게 모독적인 글을 썼습니다. 그가 어느 날 혀 암에 걸려 말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겪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를 욕한다면 태연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느님은 우리 아버지이신데 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주인을 공격한다면 개는 한사코 짖어대며 공격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사람인데 개가 하는 일을 할 수 없단 말입니까?!

2. 하느님을 잊을 때 우리는 사랑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는 낮이나 밤이나 자식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효자는 언제나 자기 부모를 생각합니다. 착한 신자는 항상 하느님을 생각합니다. 하물며 수도자야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느님을 생각 않는다면, 또한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보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애덕을 거슬러 죄를 짓고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꺼져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자주 잊고 사는 유대인들을 나무라시고 벌을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하느님 백성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창조물들은 영혼이 없어도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보십시오. 별들은 항상 빛을 발하고, 꽃들은 자신의 향기를 주며, 새들은 하느님을 노래하고, 강들은 꾸준히 바다를 향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광활한 바다는 하느님의 전능을 보여주고 장엄하게 솟아 있는 산들은 하느님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영이 없는 이 모든 피조물들도 하느님을 노래하는데 영혼을 가진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대신하여 하느님을 찬미해야 된다는 것을 잊고 있구나! 이것이 큰 유혹이 아닙니까?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하지만 열심한 신자들을 비웃는 사람들에게 무어라 말해야 할지요?

전쟁 중에 오스트리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십자가에 대한 신심이 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상을 조롱하며 갖고 있던 총으로 십자가상에 총을 쏘았습니다. 한 시간 후에 말을 타고 다리를 건너던 그는 정신을 잃고 말과 함께 다리에서 떨어져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4년 전 사제직을 버린 어느 신부가 결혼식을 올린 후 비행기를 타고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두 시간 뒤 항공기가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불교신자나 프로테스탄트 신자가 그들 나름대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 비웃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만 그들보다 더 잘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3. 하느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느님께 대한 애덕을 거슬러 죄를 짓는 것입니다. 게으름, 음란, 증오, 죄를 범하는 이들과 순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공경하지 않고 자신들의 몸과 사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십시오. 하느님 이상으로 부귀 영화를 원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나쁜 친구를 멀리 하십시오. 항상 하느님께서 첫자리에 계셔야 하니깐요! 인간 존엄성의 이유로 여러분이 하느님 자녀로서의 태도를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이야기인데, 예수회의 2대 총장이었던 프랑소아 보르기아(Francois Borgia)는 훌륭한 스페인 사람이었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 모든 것을 하느님을 위하여 버렸습니다. 그에게 잘생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죄수들에게 주기위해 수프를 담은 항아리를 가지고 가다가 길에서 호화로운 옷차림으로 여러 친구들과 함께 가고 있는 자기 아들을 만났습니다. 성인은 처음에 수프 항아리를 든 자신의 초라함이 부끄러워 당황했으나 즉시 마음을 돌려 보란 듯이 오히려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자기 아들의 인사를 받으며 죄수들을 위해 가는 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도 친구들과 앞에서, 외교인들 앞에서 하느님을 위

하여 교회법에 순종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애덕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피해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느님을 사랑함에 자부심을 갖고 말로 행동으로 하느님 사랑을 선포하십시오.

연중 제32주일 (1979년)

복음: 마르 12, 38-44

과부

복음 말씀과 두 독서를 읽으며 오늘은 마치 과부들에게 봉헌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대개 기댈 곳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렙타 마을의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며 감동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는 띠르와 시돈의 이웃 마을에 살고 있는 레바논 사람입니다. 이교도들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기에 하느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애덕 실천의 사도직을 위해 특별히 그를 선택하십니다. 그녀는 어려운 가운데 신앙이 굳세어졌으며 궁핍한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활비를 나누었기에 예수님은 그녀를 축복 하셨습니다.

마르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과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주의 깊게 그의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십니다. 예수님은 교만하거나 경솔하거나 꿈이나 계산에 마음이 쏠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대성전 안 마당에 기둥 옆에서 한 과부가 하는 모든 행동을 눈여겨 보고 계십니다. 랩톤 두 닢 까지 보셨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그녀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치 나타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듯이 그리고 예리고로 가는 길에서 들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자캐오를 보셨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더 이웃에게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그분은 단순하시고 노력하지 않고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감동을 잘 하시고 눈물까지 흘리시는가 하면 또한 화도 내실 줄 아는 분입니다. 그분은 외모만 보지 않고 마음을 탐색하시는 분이십니다. 위선자들의 긴 기도에 속지 않으시고 잘난 체 하는 이들의 애굽을 기꺼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속을 다 아시므로 이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2.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합니다.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랩톤 두 닢을 넣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돈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참으로 이상한 계산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지만 어떠한 계산법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데서 얼마씩을 넣었지만 저 과부는 생활비 모두를 바친 셈이다.” 이렇게 그 과부는 자기의 가난 자체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복하여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친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계산을 하지 않고 줄 때 비로소 참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이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그녀 안에 살아계셨고 그녀 안에 하느님의 숨결이 있었습니다. 랩톤 두 닢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매일 저녁 사제들이 애궁함의 돈을 거두어 가는 것을 그녀는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쓰여질까? 주님의 수난이 다가 오고 있으니 그 돈은 예수를 배반할 유다를 매수하는데 쓰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그런 것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녀가 가진 바 전부를 바친 것은 하느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녀는 어느 때 보다 가난한 상태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내적 기쁨은 노래를 부를 만큼 컸습니다.

3. 성경에 등장하는 과부는 사렙타의 과부뿐 아니라 성전에 애궁한 과부 외에 다른 이들도 많습니다. 주님의 봉헌축일인 정결예식이 있던 날 성전을 지키고 있던 84세 된 한나라고하는 늙은 과부도 있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일곱 해를 살고서는 여든 네 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루카 2,36-37). 한나는 나이 많은 시메온과 함께 아기예수를 찬양하였습니다.

나임이라는 동리를 지나시다가 죽었던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 여자를 가엾게 보시고 “울지 마라” 하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죽은 이가 살아났고 예수님은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비탄에 싸인 과부들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성모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당신 남편인 요셉을 잃고 아들 예수마저 잃었습니다. 성모님은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계셨습니다. 이 과부들 모두는 신앙으로 그들의 남편을 증언하고 그것을 통하여 더 깊고 더 따뜻하고 더 빛나는 행복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희망을 나르는 사람들입니다.

연중 제32주일

복음: 마르 12,38-44 1독서: 열왕기 상 17,10-16

과부의 적은 동전

한국에 재미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 새끼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은 “착한 일을 하고 싶으면 용기를 내어라. 어려운 일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 미사 중에 독서와 복음에서 매우 가난한 두 명의 과부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활을 꾸려가기도 힘든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1 독서에서 사렙타의 과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교도들이 살고 있는 지방인데 오래 동안 비가오지 않아 모든 농산물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예언자 엘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역시 음식을 동냥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길을 가다가 땀감을 줍고 있는 과부를 보고 엘리야는 “나에게 마실 물 한 그릇 좀 떠다 주시오, 그리고 빵 한 조각 들고 오면 좋겠소”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빵은 한 조각도 없고 다만 밀가루 한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무를 주워 남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다시 한

번 간청합니다. 그 과부는 남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 엘리야에게 줍니다. 실지로 배고픈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마르코 복음에서는 또 다른 과부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부자들이 와서 보란 듯이 큰 액수의 돈을 넣고 갑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와서 렵톤 두 닢을 넣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제일 많이 헌금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준 셈이기 때문이다.” 이 두 과부는 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랑으로 형제를 위하여, 사랑으로 하느님을 위하여, 그 여자들은 가진 것을 다 주었습니다. 기아로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말입니다!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관대합니다. 위험을 무릅쓴 용단을 하느님은 가룩하게 보십니다. 예수님은 젊은 청년에게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했을 때 그는 용단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사랑했고 자기 안전을 사랑했기 때문에 슬피하며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가난하지도 않았습지만 어느 정도의 재산은 있었습니다. 고기잡이 배, 집, 그물, 등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떠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종의 치유를 간청할 때 “가거라.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하였고 회당장인 야이로가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도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정신은 위험을 무릅 쓰고 우선 해보는 것, 물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는 말을 성경 안에서 자주 만납니다. 만일 항상 두려워하고 늘 계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재물과 안일에 갇혀 감옥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2.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생길지? 내가 늙으면 어떻게 될지? 내가 이러저러한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무어라고 말 할지? 등등. 두려움으로 아무 일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한 탈란트를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속으로 갈 것이나 두 탈란트와 다섯 탈란트를 받은 사람은 곱절을 벌었기에 기쁨에 차 하느님의 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 소금이 소금 그릇에만 있으면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음식 속에 녹아 없어지면 맛을 내 줍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자신의 업적으로 세상에 맛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금처럼 자신은 사라져야 합니다. 남과 격리되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소금 단지에 들어있는 소금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빛을 밝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지요. 조용함과 안락함을 잃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백배를 받을 것입니다.

3. 하느님을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은 우리들 보다 더 많은 위험을 무릅쓰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자유와 지성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 행위의 실패를 무릅쓰셨습니다. 하느님 아들께서는 인간으로 강생하시어 죽음과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그 길을 통하여 인간에게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당신이 세우신 교회를 무식한 사도들에게 또는 오늘날 우리 죄인들에게 맡기시며 실패와 당신의 메시지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서는 인간이 하느님처럼 구속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4. 세상에 아무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수확을 거둬들이기 위해 농부는 뿌린 씨를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챔피언이 되기 위해 젊은이는 훈련하는 데 여러 해를 투자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매일 그런 일을 깊이 숙고하고 매번 생각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사 선생님을 믿습니다. 그가 처방한 약이나, 수술에 대해 믿습니다. 기차나 자동차 비행기를 운전하는 조종사나 기관사들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의 생명의 위험이 전혀 없습니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험입니다.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눈을 감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이 따릅니다. 위험이 있기에 공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 나누고, 용서하고, 계산 없이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행동을 예수님은 좋아하십니다. 이 두 과부의 경우에 전부를 주고 나눔으로 그들의 사랑을 보여주었으니 거기에 그들의 공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을 저장해둘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교회에 주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큰일을 하실 것입니다.

성가회를 시작한 수녀님들은 파산의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양로원을 짓고 있는 수녀들도 역시 실패를 감수합니다. 어떻게 될까? 하느님께 영광이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앞으로 또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또 다른 사업들,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노동자들을 위하여, 버스 차장들을 위한 일들을 시작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바치십시오. 해 보십시오, 주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줌으로써 받기 때문입니다. 나누면서 갖게 되고, 죽음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들처럼 주님을 믿으십시오!

연중 제32주일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과부

오늘 복음은 확실하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보는 사람과 과부의 헌금을 보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골에 살았고 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그분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태도를 관찰하시며 여러 번 내심 웃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분은 그들을 여섯 가지로 꾸짖으십니다. ‘긴 겹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의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식사에 초대되었을 때는 첫째 자리를 찾고, 회당에서는 명예로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가난한사람들과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며, 기도를 오래하는 것처럼 보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마르 12,40b). 간단히 말해 그들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느님의 원이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후에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을 얼마나 속이는지 볼 수 있으며 그런 그들을 주님은 몹시 꾸짖으십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마태 23,13).

양선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진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바리사이들의 위선적 태도가 신앙을 선포하는데 방해가 되었고, 그들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참된 믿음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그 시대의 율법학자들과 함께 오늘날의 사제들을 교육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우리들도 바리사이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참 종교는 애궁이나 전례, 수도복 등과 같은 외적인 것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이 위선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위선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수도자이며 사제이지만 우리도 열심히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지 않았나요? 기도는 하지만 마음으로 기도에 충실했나요? 우리가 말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일하였나요? 여러분은 정말로 소비녀이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다만 표면상일 뿐입니까? 위선자는 교회를 위해 불필요한 존재이고 오히려 큰 손해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그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애덕이란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즉 낮은 자세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마치 우리 장상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봉사하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과부가 아주 적은 렵톤 두 닢을 봉헌한 애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큰 몫을 애궁함에 넣은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과부를 칭찬하는 것은 가난 자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반면 부자들은 쓰고 남은 돈을 주었으니 이 과부가 부자들보다 더 많이 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수녀원에 들어올 때 마치 이 과부와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마음을 가지고 수녀원에 오면서 모든 것을 하느님께 다 바쳤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큰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참 잘 하였습니다. 이 과부처럼 정신적으로 가난한 자 되십시오. 수도자는 큰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여러분에게 과중한 것이라도 또는 정말 필요한 것이라도 그것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것입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너무 지나치게 공부하고 싶어 한다든지,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한다든지, 인사 받고 싶어 한다든지 “수녀님, 또는 선생님”으로 불러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다만 소비녀로, 가난한 자로 남아 있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족해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바친 것입니다” 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연중 제33주일

복음: 마르 13, 24-32 독서: 다니엘 12, 1-3 2독서: 히브 10,11-14.18

종말

여러분들은 종말을 믿으십니까? 신자인 우리들은 아무 의심 없이 믿습니다. 매일 기도 때마다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하고 외웁니다. 외인들은 종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자들은 종말이 있다는 것을 긍정합니다. 태양은 점점 식어가고 어느 날엔가 너무 추워서 인간이 살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크게 감명을 주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마 수천 년 후에나 일어날 것이니 나에게 닥치지는 않을 테니까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올까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원자탄으로? 노아의 홍수처럼 바다가 모두 삼켜버릴까? 태양이 식어서 추위 때문일까? 어떤 혜성이 떨어져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까? 그것은 백년 후에, 천년 후에, 만년 후에,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 같아서 또는 과학적인 문제지 하느님과 관계없는 일인 것 같아서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점에 관하여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1.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날에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들, 인간의 종말은 목적도 없고 끝도 없이 윤회하는 삶이 아닙니다. 매일의 우리 삶은 끝없이 하루하루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도달할 때 까지 하느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종말, 오늘 있을 일도 아니고 내일 올 것도 아닌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말합니다. 내가 오늘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종말이며 이 종말은 모든 이에게 피할 수 없는 목적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마르 13,26).

2. 세상의 종말에 각자는 현존하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종말이 수천 년 안에 실행된다 해도 곧 그곳에 참석할 것입니다.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순간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시간을 연, 월, 일, 시간으로 나누어 살고 있으나 하느님에게는 항상 오늘, 현재뿐이며 그분은 시간을 세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 백년이면 어떻게 천년이면 어떠냐고 말하겠지만 진실로 우리에게 죽음이나 심판은 오늘입니다. 육신의 부활과 세상의 종말은 아주 가까운 오늘입니다.

3. 세상의 종말은 영혼의 종착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만 사람이 달에 도착하였습니다. 달을 점령하기 전에 또 도착한 후에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은 큰 화제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면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종말에

대한 관심도 어떻게 올 것이냐가 아니라 그것이 언제 나에게 일어날 것이며 사후에 무엇이 시작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기계나 항공기, 전파탐지기나 원자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종말은 영적 사건입니다. 그것은 만남이며,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보게 되는 만남, 내생에 의미를 주는 만남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세상 종말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달을 탐험하고 또 다른 천체를 탐험하는 인간의 능력에 가슴이 벅차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부차적인 일이며 아주 작은 사건입니다. 종말에도 지금처럼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된 모험과 참된 비상(飛上)은 오직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수녀님들! 달이나 천체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높이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올라야 하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째가는 계명은 하느님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는 계명은 다른 사람들이 좀더 잘 살도록 돕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돕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돕고, 이웃을 돕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는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가난하여 배고프고 목마르고 병자일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듯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마태 25,34-36).

종말은 내일 생각할 일이 아니라 오늘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내일이 세상 종말과 심판의 날이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일할 시간이며 사랑해야 할 시간입니다.

은경축 미사

고 시몬 수녀, 최 다두 수녀, 이 마태오 수녀 은경축 미사 (1977년 6월 6일)

서간 1요한 4, 7-16 복음 요한 21, 1-19

오늘 우리는 모두 존경하는 마음으로 은경축을 맞이하신 성가소비녀회의 세분 수녀님들을 축하해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은경축을 맞이하시는 수녀님들은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주심에 감사하기 위해 미사성제를 봉헌합니다. 미사는 성체성사라 불립니다. 말하자면 감사의 전례란 뜻입니다.

또한 수녀님들은 앞으로의 삶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성교 행진곡, 네게 갑니다”를 노래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25년 동안 하느님을 향하여 너그러운 마음으로 걸어 왔습니다. 그 길은 점점 짧아지고 얼마 남지 않은 날들은 하느님을 대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는 오래 살기를 기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나이가 많아질수록 성모마리아처럼 조용한 삶과 하늘나라를 원해야 하고 여러분 자신과 모든 성가소비녀회의 수녀들이 여러분들의 모범을 따라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막, 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게네사렛 호수 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선택 했습니다. 삼년 전, 바로 이 장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처음으로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랑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 부르겠노라” 하신 곳도 그곳입니다. 또한 사도들이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합시다” 라고 말한 곳도 이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갈바리아까지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즉 사랑의 정상까지는 오르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습니다만 우리 중에 누가 그를 비난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생애 동안 우리도 여러 번 삼대 서원을 지키지 못했고 또 얼마나 자주 너무 어렵다고 불평했습니까! 비록 우리는 이렇게 충실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충실하십니다. 그 때문에 부활하신 후 게네사렛 호수 가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사도들은 삼년 전에 그들을 부르실 때처럼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도,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 후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벗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며 베드로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하며 사과를 청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이른 아침, 예수님께서 그곳 호수 가에 서계셨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씀이 없으셨으나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시며 예전과 같이 제자들에게 구운 고기와 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수녀님들,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수도생활을 하는 동안 때로는 즐거운 날들도, 감격스런 날도 있었으며,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원하던 날이나 어떤 피정 중에, 또는 영적 독서 중에 기쁨과 감격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슬픈 날도 있었습니다. 얇이 캄캄하던 날, 안개 자욱한 날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마음으로 한 계획이 실패했을 때, 총장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등등.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의 은경축일! 예수님은 ‘그곳에’ 마치 베드로의 곁에 계셨듯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동이 틀 무렵에 예수님께서 그곳, 호수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였다.” 아마도 마지막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친구들, 자매들과 같이 말입니다. 참된 사랑은 더욱 사랑하기 위해 끊임없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사의 아름다운 말씀을 통하여 그분께 영광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자기 습관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비판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때때로 자신만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잊고 사는 수녀가 있는가 하면, 꿈속에서 사는 수녀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항상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대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추억에 잠기지 않고 항상 그곳, 참으로 살아계신 주님으로 그들 곁에 계시며, 머리를 마주하는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의 의무를 재확인하십니다. 모든 사도들 앞에서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시몬, 다두, 마태오 수녀님, 오늘 예수님께서 꼭 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갱신, 더 깊은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에 살면서 누구도 죄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용기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희생인 미사성체를 봉헌할 때 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처럼 당신의 몸을 다른 이들을 위하여 봉헌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행복을 다른 이들에게 되돌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내 양들을 돌보아라”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25년 전과 성가소비녀회를 비교해보면 오늘 하느님께서 분명히 만족해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녀님들! 세 분 수녀님과 함께 이 미사를 봉헌하며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수녀님들의 노고와 삶의 모범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은경축 미사 강론

오늘 이 수녀원에 여섯 분의 수녀님들의 은경축을 축하하는 미사를 봉헌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여러분들을 하느님께 봉헌하였고 그날부터 그 봉헌을 지켜왔습니다. 25년 동안 여러분들은 장상의 명에 순명하였고 매일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왔으며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동료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많

은 공로가 되었겠습니까! 여기 우리 모두는 여러분의 은경축을 축하드리며 그동안 좋은 표양을 주셨음에 이 미사를 통하여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당신의 은총으로 보호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성가수녀들입니다. 성가정의 가장은 요셉 성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착한 수도자가 되기를, 또 착한 수도자로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요셉 성인을 보시고 그분을 본받으십시오.

1. 첫째로, 성 마리아와 예수님께 헌신하신 그분의 열성을 본받으십시오. 요셉 성인은 예수님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항구하게 그분을 돌보셨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을 하였으며, 헤로데의 분노로부터 예수를 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불편함을 기쁘게 참아냈습니다. “너희가 가장 작은이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돌보아주고 교육하는 환자들과 어린이들이 바로 성모님과 예수님이십니다. 이분들을 위해 여러분들도 요셉 성인과 같은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매일 꼭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질색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도 그분들을 위해 더 일하고, 더 사랑하고, 존경을 드립니다. 오늘 같이 좋은날 그렇게 하겠노라고 맹세합시다!

2. 둘째로, 요셉 성인처럼 하늘의 질서에 순종합니다. 첫 번째 하늘의 표징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에집트로의 피신, 나자렛으로의 귀환이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즉시 일어나 따지지 않고 떠납니다. 그는 좋은 마음으로 자신의 휴식과 조국을 예수님을 위해 하느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로나 말로 비판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언제라도 모든 것을 떠날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3. 셋째로, 요셉 성인에게 또 다른 감탄할 만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내적 생활과 겸손한 숨은 생활과 침묵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생애 동안 지속적인 기도 안에서 예수님과 마리아와 가장 친밀한 대화 속에서 그 모든 깊은 암흑 속을 지나갔습니다. 복음 안에 요셉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을 만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가회 수녀들은 요셉 성인처럼 피정과 암흑과 침묵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하였습니까? 나는 기도하기를 좋아합니까? 끈기 있게 기도합니까? 자주 하느님을 생각하십니까?

오, 하느님! 이 큰 성인을 본받고 존경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도 그분처럼 할 수 있고 그분처럼 해야 하는데! 나도 요셉 성인과 같은 성소를 받았습니다. 가난하게 사시는 예수님을 지켜 드려야 합니다. 오, 하느님! 요셉 성인을 통해 예수님께 대한 큰 사랑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분에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죽을 때에 예수님 마리아님의 도움을 얻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첫서원 예절 미사 강론

1972년 4월 30일--> 실제로는 5월 1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즉시 인간을 위하여 당신을 봉헌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리고 마리아께서 성전에서 스스로 봉헌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분들의 정신을 가지고 봉헌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감성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 뜻을 따르려고 여기 왔습니다.”

1. 봉헌은 겸손한 봉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습니다(Ecce veni ut faciam voluntatem)” 하셨고, 마리아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하느님께 우리는 하나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절대로 우리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순명으로 해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보다 더 잘 한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나는 당신 뜻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봉헌할 때는 나의 결점과 단점을 함께 봉헌합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사업은 너무 크고 나는 너무 작아서 큰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쓸모 없는 종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2. 봉헌은 절대적이고 완전해야 합니다.

유보함이 없고 되돌아봄이 없는 마치 자기 남편에게 항상 자신을 헌신하는 아내처럼, 그 이상으로, 한결같은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를 봉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대천사까지 그에게 와서 예수님의 강생을 알렸지만 마리아는 변함이 없을 만큼 그렇게 봉헌했습니다. 어린양처럼 완전하게 희생 제물로 자신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항상 당신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시종일관된 생각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의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3. 봉헌은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조금씩 조금씩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잘 몰라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은총을 항상 잘 사용하여 더욱 더 스스로의 성화를 이루신 것처럼 나도 믿음과 소망, 애덕을 점점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자케오의 점진적인 삶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처음엔 구경꾼에서 다음으로 높임을 받고,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 치명을 하였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적어도 사도 반열에는 들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순교자의 반열에까지 도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특히 내가 완전한 순명을 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매일 우리 봉헌을 기쁨으로 새롭게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주님 저를 불러 주시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께 사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다른 이들 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마리아님 요셉님, 나의 전 생애를 거룩한 수도자로 살도록, 그리고 착함을 유지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항상 발전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넘어질 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와 일치하게 되므로 예수님과 일치해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첫서원 예절 미사 강론 (1976, 1979년)

조금 후에 수련자 여러분은 정결과 청빈과 순명의 서원을 발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식 수도자가 됩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1. 가난한 사람이 바치는 선물은 결코 값나가는 것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원을 발하기 전에 예수님께 잘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제가 당신께 봉헌하는 것은 좋은 것이 못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역시 저의 선물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무식합니다. 또한 저의 선물은 예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완전하진 못해도 저의 전부를, 저의 육신과 영혼, 저의 가족과 조국을 봉헌합니다. 인간적으로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오, 마리아님, 요셉님! 제 안에 완전하지 않은 것들을 없애 주시어 예수님께서 저를 받아주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 항상 당신을 사랑하겠나이다. 오직 그것만을 위해 제가 수녀원에 왔습니다. 오, 예수님! 당신만이 위대하시고 사랑스러우시며 영원하시고 참되십니다. 당신께 비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지나가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가치가 있으며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영원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유한한 것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바다보다 크시기에 그에 비하면 이 세상의 재물은 바다의 물 한 방울의 가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 저의 온 생애에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자주 마음속으로, 특히 묵상 때에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아시듯이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에 불과하오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당신께서 저를 도와주지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2. 이제 제가 수도자가 되었으니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당신의 원의이니가요. 주님께서서는 하느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하나의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탄생으로부터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오늘은 성체 안에서 이 사랑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당신처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겠으며, 당신처럼 저도 미소한 자와 가난한 자들, 불행한 사람들에게 내리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통해 내리시는 것입니다. 심판 날에 당신은 “너의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는 것만을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 저의 전 생애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3. 수도자가 되었으니 다른 수녀님들과 항상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며 그들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하느님은 자매 수녀님들을 나와 꼭 같이 사랑하시고 아니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보다 덜 죄인이며 더 공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내 자매들이며 같은 성소를 갖고 같은 수도 가정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내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그들의 허물이 아니라 그들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사는 수녀님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녀님들, 이제 여러분들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4. 겸손한 봉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느님 아버지께 “아버지 당신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왔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무거운 짐을 받아들인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종이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 주소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순종하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녀들의 눈과 같이 우리 눈이 주 하느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한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연장에 불과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느님의 뜻을 수행해야 합니다. 절대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너무 보잘 것 없는 사람인데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대단합니다. 세상을 회개시킨다는 것은 너무도 큰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5. 이 봉헌은 완전해야 하고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유보함이 없고 돌아서지 않으며 마치 한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언제나 자기 사랑을 바치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남편감 중에 가장 멋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시니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도 희생된 어린양처럼, 제물로 봉헌하십시오. 주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봉헌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희생 제물로 바치십시오.

하느님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한국교회와 수많은 외교인들을 위하여 축복을 청하십시오. 특히 여러분의 생애동안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6. 오늘의 봉헌이 매일 새롭게 재헌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서는 탄생된 순간부터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봉헌하셨고, 지금 제대 위에서는 꼭 같은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새롭게 봉헌하십니다. 이 봉헌 역시 믿음과 희망과 애덕 안에서 매일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물으신 것처럼 “베드로,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 주님! 그것이 제가 바라는 가장 큰 원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항상 대답하십시오. 아멘.

성가소비녀회 총회 강론 (1976년)

공동생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나님을 압니다”(1요한 4,7).

여러분들의 충회를 맞이하여 나는 이보다 더 이상 좋은 말을 희망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상의 재물을 희망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기도 안에서 매일 하나님의 더 뜨거운 사랑을 위하여, 단하나의 악, 즉 죄를 피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우선 다른 자매를 먼저 생각하여야 하고 자신을 잊어야 합니다! 애덕이란 이런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애덕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들 끼리 서로서로 봉사하십시오. 각자는 자기 소임이 있고 그 소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도 내에서 서로 도우십시오. 예를 들어 비질 할 때, 설거지, 또는 다리미질 등을 대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법은 사라집니다.

어린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하여 교리고사들, 환자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하여 경험에 따라 좋은 방법이나 재료를 서로 제공하십시오. 왜냐하면 수도원에서는 돈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영적 자산도 공동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녀가 어떤 좋은 것을 알고 있으면 다른 수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몸이 튼튼한 수녀는 환자를 돌보아주어야 하며 환자에게 수도원내에 환자는 짐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해주십시오. 그리고 고통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것은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을 주셨으니 매일 기도 중에 여러분들의 수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히 그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2. 수녀들의 결점을 용서해주고 숨겨주십시오. 선배 수녀님들은 젊은 수녀들을 특히 제일 젊은 수녀들을 절대로 다른 수녀들 앞에서는나 아이들 앞에서 질책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잘못된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녀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집안에서 어떤 수녀가 잘못 행동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수녀들에게나 다른 분원에 가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두 수녀사이에 불화와 오해가 있을 경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른 수녀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점에 대해 장상에게 말 할 수 있지만 규칙 위반에 대한 것 외는 말하지 마십시오. 이 수녀의 영혼에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게다가 능력이 있는 수녀가 어떤 소임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했다면 그를 마꿀 필요는 있겠지만 그 일을 이야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소임지에서 그 일이 그에게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 한 죄는 큰 죄가 아니라고 하며 (힘담, 중상, 거짓말) 가끔 고백성사에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는 대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애덕을 거스르는 죄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서 그런 죄를 피해야 합니다.

3. 서로 참아주어야 합니다. 결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하고 어떤 이는 덜하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은 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참아 주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참아주어야 합니다. 어느 날 장상이 나에게 와

서 함께 사는 수녀들이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고 비판하기 좋아하며 불평이 많은 수녀들이라고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참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웃으면서 인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그녀의 잘못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하기에 다른 수녀들에 대해 너무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너무 너그러운 게 아니냐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장상은 남의 눈의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수녀님들, 여러분들의 품행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참아주는 수녀들이 오히려 덕성스럽다는 것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장상 수녀는 착한 수녀였기에 자신의 결점을 인식하고 그때부터 더 온순해졌고 더욱 사랑을 실천하였으며 요구사항이 줄어들어 지금은 공동체가 평화롭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4. 평화스러운 삶을 위해 불순명과 잘못을 애덕으로 서로에게 알려줍니다. 혼자 살면 자기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남의 결점을 보지만 자신의 결점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도자들 사이에 서로 알려주는 두 가지 관습이 있습니다.

가) 일주에 한번 공동체가 모여 각자가 고백합니다. 내적 죄가 아니라 자기 결점이나 규칙에 불순명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또는 부족했던 점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 각자는 스스로 어떤 친구 수녀를 선택하여 그에게 자신의 결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장상이 수녀를 꾸짖어서 마음이 상했으면 우리는 이 수녀가 화내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항상 말해주고 장상은 자기 의무를 하는 것이니 그 말을 따라야 한다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수녀의 교만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환자가 자기를 치료하는 약을 거절한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권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순명을 권고해야 합니다. 교정을 거절하는 것은 수도자 정신과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교정은 완전한 자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격 때문에 그 수녀에게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는 수녀는 장상에게는 근심덩어리고 공동체 전체에 고통을 줍니다. 교정을 원하는 사람은 고침을 주는 이를 사랑하고 올바른 판단과 굳은 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가정 (1970년)

미아리 공소

공소가 되기 위한 첫째 조건은 신자들의 열심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말한 대로 주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첫째로 하느님께 순명을 크게 거스르는 것이고, 둘째로 하느님의 재물을 훔치는 것이며, 셋째로 애덕과 소망과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므로 미사의 희생 제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넷째로 자기 영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동물처럼 물질을 위해 살아 결국 냉담자가 됩니다. 다섯째로 결국 악표양으로 우리 어린이들의 영혼과 이웃 외교인들의 영혼을 죽이는 하나의 살인입니다. 그런 행동은 모든 사람들의 멸시를 자아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쟁이이고 위선자들이므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모든 책임자들, 부모님들, 단체장들은 이점을 생각하고 앞으로는 항상 더 더욱 잘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공소가 되기 위하여 모든 이가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삼십 삼세에서 삼십년 동안 가정에서 살았기에 그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1. 먼저 예수님의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성서 안에는 이 주제에 대한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정생활이란 별로 특별한 것이 없고 매일 평상적인 생활이니까요. 가족 구성원들, 그들이 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봅시다.

성가정에는 삼위일체이시며 한분이신 하느님처럼 세분이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 요셉은 당당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이시고 하느님이신 예수님 아버지의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단순하시고 겸손하시며 마리아와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다윗왕의 가문에서 나셨음에도 한번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황후로서 모든 인간 중에 가장 높으신 분이셨으나 얼마나 겸손하시고 경건하셨습니까! 또 예수님과 요셉을 사랑하고 존경하셨으며 신뢰를 가지고 요셉에게 순명하시며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육하시고 구원하기위하여 강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범적인 성가정을 본받으려는 것은 이 가정보다 더 훌륭한 성가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2. 이 성가정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들 간에는 늘 서로간의 일치와 존경과 신뢰와 평화가 있었습니다. 각자는 먼저 자기를 생각하기 전에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매주일 함께 나자렛의 성전에 갔으며, 마태오 사가가 말하듯이 시편을 외우고 성서를 공부하셨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유다교의 법을 지키기 위해 매년 상당히 먼 곳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함께 큰 축일인 유월절 희생제물을 바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각자는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요셉은 직업인 목수의 일을 하였고, 마리아는 가사를 돌보셨으며 예수님은 부모님들을 이쪽저쪽으로 도왔습니다. 그들은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았고 세분이 함께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방문하는 사람들을 누구나 환영하였고 방문객이 돌아갈 때는 하느님에 대한 것을 배워 기뻐하였습니다.

누구와도 비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하셨고 사람들이 보기에 그저 보통 목수일 뿐이었습니다.

3. 우리는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모범이신 이 성가정을 보시고 그분들과 똑같이 하십시오. 그분들이 하느님께 하셨던 일과 자식에게, 이웃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식구가 함께 모여 하느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느님을 자주 생각하십니까? 식구들끼리 하느님에 대한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창조물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보다, 창조주께 대한 이야기가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영세를 받은 아버지가 자기 식구들과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는 주님의 강생

과 구속에 대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끼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일치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이에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처럼 거룩한 경쟁심을 가지십시오. 매일 더 거룩해지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서로 싸우고 서로 욕하고 상대를 의심하며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에 대해 어떻게 하십니까? 가정 안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표양을 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은 아무 교육도 받지 않으셨지만 순종하셨고 부모님들이 명하시는 것을 다하셨습니다. 부모는 예수님께 시편과 노래를 가르치시고 성전에 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 아이들이 배우는 것, 주일학교, 기도 등에 관심이 없는 부모는 없겠지요? 성가정에서는 “너 기도 했니?” 라고 묻기보다 부모가 모범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양친은 예수님을 잃었을 때 고통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돌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어린이들을 돌보십니까? 사람들은 아이들을 너무 방치해 둡니다.

잘못은 고쳐주어야 합니다. 만일 어린이가 큰 죄를 (주일미사 도둑질 등) 범한 것이 확실할 경우 여러분들은 잘못에 대한 벌을 줄줄 알아야 합니다. 즉시 고백성사를 보도록 성당에 보내시고 필요할 경우에는 함께 데리고 가십시오. 어린이들도 예수님이 하신 것을 생각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좋은 가정이 많으냐에 따라 좋은 본당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의 의무에 대해 생각해 보고 정말로 성가정을 이루도록 힘쓰십시오. 여러분들이 일해서 농사를 잘 지었다면 잘 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좋은 가정을 이루는데 성공했다면 그것은 천배나 더 잘 한 것입니다. 그러기위해 노력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교육은 빨리하면 할수록 더 좋은 성과가 있으므로 되도록 빨리 시작하십시오.

거룩하고 사랑하는 좋은 성가정은 이미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혼배 미사 강론

이 발도로메오와 노 안나 혼배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는데 하느님의 명을 받고 그는 서쪽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그는 그의 외아들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처녀와 결혼을 시킬 수도 있었지만 가나안 처녀들은 모두 우상숭배자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신앙을 가진 젊은 처녀를 멀리서 찾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종, 엘리야자르를 보내기로 하였는데 그는 떠나기 전에 주님께 이사악에게 순결하고 착한 반려자를 주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어떻게 그의 기도를 들어 주셨는지 아시지요. 레베카라고 부르는 젊은 처녀를 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처녀의 부모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딸을 주기로 승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는 딸을 함께 보내며 긴 여행에 필요한 음식도 챙겨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성당에서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미사에 참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는 두 사람의 그리스도 신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 두 사람의 결합은 무엇보다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하느님과 같은 목적을 향한 두 사람은 같은 규정을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큰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같은 신앙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진정으로 한 마음 한 정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란 말이 내포하고 있는, 모든 책임감과 교훈을 여러분들은 미리 생각해 보셨습니까? 잘하면 행복한 긴 미래가 있겠지만 잘 못하면 끝없는 고통입니다. 결혼은 청춘의 끝입니다. 책임감이나 큰 의무감 없이 근심 걱정 없는 조용한 생활은 이제 끝입니다. 결혼 전에는 쉬운 나날이었고 근심이 있다 해도 별것 아니었습니다. 결혼은 영원히 바쳐진 삶입니다. 어느 순간만 서로에게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이 허용되었다고 말하는 이들은 대단한 스승들이 아닙니다. 나는 스승 중에 스승이신 분의 말을 듣겠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남편의 취미는 아내의 취미가 되어야 하고 아내의 취미는 남편의 취미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집안이 편안하기 위해 각자가 희생과 양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혼은 부성관계입니다. 하느님은 아버지이시니 아버지는 권능과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와 사랑을 자식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이들보다 하느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그 또한 여러분 아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아 결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심사숙고한 후에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 서약하러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계약은 당신들을 영원히 매어놓을 것입니다.

* 이 글은 신부님께서 손수 한글로 원고를 쓰신 강론입니다.

복자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님 축일 (1970년)

성가소비녀회

온 세상에 수억만 신자들이 창피해 하지 않고, 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그리스도를 크게 경애하며 기쁨으로 만왕의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된 신자들은 모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비난받을만한 죄 없이 악한 죄인처럼 사형 당하신 복자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님을 경애하며 우리의 모범자로 귀히 여기며, 역시 그분은 우리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드레아 김 신부님에게 제일 영광스러운 것은 다름 아니라 그의 일생의 삶이 꼭 우리 주 예수님의 삶과 닮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가난하게 살았으며 동포들의 영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고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동포들을 대단히 사랑하셨으나 이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오직 비평만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나중에 진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며 사형까지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비로소 만민의 사랑을 얻기 시작하셨을 같이, 우리 복자 안드레아 역시 치명 당하신 후에 큰 영광을 얻으셨고 또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누구나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과 비슷하게 산다면 그 사람이 거룩한 자, 지혜로운 자, 성인이라고 할 수 있으니 복자 안드레아 일생은 마치 예수의 일생과 똑 같으니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 여러분! 복자 안드레아의 일생을 배우시다. 안드레아는 불란서 왕 나폴레옹이 죽은 해 즉 182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이 몰라서 천주교가 나쁜 것인 줄 알고 아주 엄하게 금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다 천주께 먼저 순종해야 되고 자기 영혼구령보다 더 급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용맹히 천주를 공경하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안드레아 부친이 있었습니다. 그때 복사와 신부님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처럼 천주교를 싫어하였기 때문에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밤으로 다니며 아주 비밀리에 미사를 드리고 성사를 주며 전교하였습니다. 가난한 신자들도 어려움을 무릅쓰고 비밀리에 신부를 반가이 잘 대접하였습니다.

하루는 나 신부님께서 전교하시다가 열다섯 살 먹은 안드레아를 만나 보았습니다. 안드레아가 자꾸 공부하고 싶다고 하니 신부님이 몇 달 동안 생각하신 후에 신학 공부 하라고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때가 1836년 안드레아가 열여섯 살이었습니다.

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편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백 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려면 부모를 아주 떠나야 했고, 먼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반역자처럼 큰 위험 가운데 비밀리에 떠나게 되었고, 낯선 땅,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안드레아의 공부하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외국으로 공부하러 간 사람은 안드레아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이 나라의 무식함의 사슬은 부서졌습니다!

가실 때, 충남에서 서울, 평양, 북경으로 가서, 일년 반 만에 현재 홍콩 옆에 있는 마카오라는 섬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카오와 필리핀 마닐라근처에서 공부하는 동안 한국에 박해가 일어나 나 신부님과 뱀 주교님, 안드레아의 아버지 이나시오와 많은 신자들이 처형당했으나 안드레아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성교회를 위하여 교황님께서 고 주교님을 임명하셨는데 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중국에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교님은 하루빨리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 안드레아를 불러 북한 의주나 혹 훈춘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가서 알아보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안드레아는 즉시 순명하여 산속에 어려운 길을 헤치고 추위를 견디며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신자들 몇 명을 만나 일년 후에 주교님이 오시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안드레아는 다시 상하이로 가서 일년 후에 주교님을 뵈시고 다시 한국국경에 이르렀습니다. 신자들을 만나 의론하였으나 그들이 박해를 무서워하여 주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안드레아 혼자 한국에 들어왔지만 주교님은 근심하며 다시 상하이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안드레아가 십년 만에 조국에 왔으니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박해소식을 듣고 참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우선 주교님이 들어오시도록 해야 했습니다. 머리가 없으면 몸은 죽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북쪽 경계선은 경비가 심했으므로 배를 하나 구해서 안드레아와 다른 신자 열 한명이 나침판도 없이 바다를 통해 상하이로 떠났습니다. 고 주교님은 안드레아의 헌신적 노력을 보시고 안드레아에게 사제 서품을 주셨습니다. 1845년 8월 12일, 첫 번째 사제가 탄생했습니다! 몇 일후에 배는 한국을 향하여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주교님과 안드레아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오는 도중 하느님의 섭리로 큰 태풍으로 격심한 풍랑을 만났는데 바람 때문에 배가 남쪽으로 가게 되어 제주도 까지 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고기잡이배처럼 천천히 해안을 따라 군산에 도착하였습니다. 다시 금강을 따라 올라와 강경까지 왔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숨어서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며칠 쉬고 난후에 이들은 모두 사도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상하이에서 다른 선교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 주교님은 안드레아 신부님에게 그들을 데리러 다시 갔다 오라고 청하셨습니다. 순명으로 안드레아 신부는 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황해도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어느 날 중국 사람들과 말을 하고 있다가 그만 체포되었습니다. 즉시 재판이 시작되었고 한순간도 그는 약한 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줍음 없이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며 사제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애에 대해 전부 말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재판관도 감동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안드레아 신부에게 그가 갔었던 나라들의 지도를 그리도록 요구하여 그려주었습니다. 한국사람 중에는 외국을 갔다 온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들은 안드레아가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특사를 베풀려고 하였는데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불란서 군함이 한국에 도착하여 몇 년 전에 불란서 사람 세 명을 죽인 이유를 물었습니다.

조선의 왕은 그리스도 신자들이 외국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안드레아 신부를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날은 1846년 9월 18일, 그는 끝까지 침착하여 죽기 전에 말 할 수 있는 허락을 청하였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외국 사람과 내통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신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옥에 가지 않도록 격려하며 관리에게 어떤 자세가 좋겠느냐고 묻고 그는 처형되어 죽었습니다.

때로는 혹독한 죽음은 사실 큰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혹독한 죽음도 영광입니다. 안드레아 신부님의 죽음도 영광입니다. 천주를 위하여 죽고, 동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고, 아

무 죄 없이 죽었으니 영광입니다. 어떤 때는 미움을 받는 것도 큰 지식의 표시입니다. 참된 지식의 결과는 미움이 아니고 애정, 사랑입니다. 안드레아 신부님은 동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그의 믿음대로 계속하시고 끝까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복자 안드레아 김 신부의 일생을 목상할 때마다 제일 감동스러운 것은 그의 빛나는 죽음이 아닙니다. 참으로 감동스러운 것은 안드레아 신부님이 원망 없이 천주님께 순명하기 위하여,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수만리를 걸어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안드레아 신부님과 같이 전교를 위하여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들도 반드시 외교인 집이나 병자집이나, 예비자 집이나 신자 집을 방문하며 걸어갔다 와야 됩니다.

자매 수녀 여러분, 복자 안드레아의 빛나는 아름다운 표양을 높이 받으시오. 우리들도 안드레아 신부님과 같이 부지런히 공부하자. 우리들도 신부님과 같이 진리를 배우자. 우리들도 신부님과 같이 바람이 부는 대로 날마다 마음 변하지 말자. 그러나 진리대로 양심대로 계속해 나가자.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면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천주께 감사합시다.

복자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님 축일에 (1955, 1958년)

논산 대건 고등학교에서

미술가가 모양 없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힘을 다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든 후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뻐합니까? 더군다나 선생님이 학생들을 잘 인도하여 나중에 그 학생이 좋은 사람이 되면 선생님의 기쁨을 누가 다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은 사람이기 때문에 재료보다 초월하니 선생의 직업은 예술 중에 예술입니다. 그러나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큰 영광이며 큰 기쁨이지만 또한 큰 책임입니다. 장소, 경제, 건물문제보다도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까? 학생들에게 옳은 사상을 넣어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첫째로 큰 문제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제일 필요한 것은 과학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며 좋은 마음, 좋은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은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천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학교에서 공부 많이 했어도 죽은 다음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무엇을 배웠나? 공부 많이 했더라도 실제로 착하게 지내지 아니하면 공부한 것이 무슨 소용 있을까? 나라를 위하여 무슨 이익이 있을까? 이러한 걱정이 있어서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날부터 좋은 사상을 주려고 또 좋은 모범자를 알려주려고 우리학교가 대건 학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복자 안드레아 김 대건 신부님은 모범자이시고 착한 마음을 가르치는데 합당한 선생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충청남도 당진군 **면천면 놀매(솔피?)**라는 마을에서 137년 전에 출생 하셨습니다. 자기 집안은 본래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천주 계시고 천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천주께 순종해야 한다는 여러 교리를 배웠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좋은지. 자신이 잘 알고 있었지만 이때까지 이 중요한 도리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동포들을 보실 때마다 속으로 매우 근심 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교리를 모를 뿐 아니라 비난하는 것을 보고 더욱 섭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청년의 마음속에

이러한 좋은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천지를 조성하신 천주를 모르면 너무나 큰 유감이다. 이런 사람은 죽은 다음에 살아계신 천주 곁에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부터 또한 너무나 무식한 자가 되어 좋은 사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고통 중에 희망 없고, 나쁜 모병 고칠 도리가 없고, 도덕도 알지 못한다. 그대로 두면 나의 나라가 망할 것이다. 천주가 참으로 계시니 일반 사람이나 임금이라도 그 천주를 알아 공경해야 된다. 지금 나의 동포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니 나는 그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와 같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동포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려고 신학교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그때 천주교 신자들은 큰 군란을 당하여 믿기만 하면 즉시 잡아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천주께 순명해야 되니 많은 신자들은 산속으로 피난 가서, 그곳에서 비밀히 천주를 공경하였습니다. 그때는 물론 아직 신학교가 없었습니다. 숨어있는 나 신부님과 의논하여 한국에서 공부 할 수 없으니 멀리 다른 나라에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여섯 살 되었을 때 부모 친척을 하직하고 많은 위험 가운데 비밀리 의주방면 국경을 넘어 갔습니다. 마카오까지 가서 그곳에서 라틴어를 배운 다음 필리핀 마닐라로 가 그곳에서 신학을 배웠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한국에 박해가 점점 심해서 주교, 신부, 전부 잡아 죽여 많은 교우들도 순교하였습니다. 그중에 김 대건 신부님의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되시는 교황께서 한국 사람들을 구하시려고 또 다른 주교 신부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벌써 중국까지 오셨지만 한국에 들어갈 도리가 없었습니다. 안내해 줄 사람도 없고 국경도 엄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교님이 안드레아 신부를 불러서 한국 교우들하고 연락해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용맹한 안드레아는 즉시 나갔습니다. 말할 수 없는 위험을 무릅쓰고 두 번, 세 번, 네 번, 한국 국경 의주, 함경북도 훈춘까지 걸어서 갔다 오셨습니다. 참으로 수십만 리 걸어 다니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대단히 추워도, 길이 멀어도, 모르는 지방을 가게 되어도, 모르는 사람, 도둑놈하고 같이 다니게 해도, 끝까지 가시어 드디어 서울에 도착하셨습니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 오래 동안 뵈옵지 못한 모친도 방문하지 못하고 속히 준비하여 열한 명을 데리고 작은 나무배에 올라 나침판 한개만 가지고 지도도 없이 오직 모든 것을 성모마리아께 의탁하고 중국으로 향하였습니다. 상해에 도착하여 즉시 고 주교님을 만났습니다. 고 주교님은 안드레아의 용맹한 마음을 보시고 매우 감동하여 신품을 주셨습니다. 한국 사람으로는 첫 번째 사제가 되었습니다. 첫 미사를 드린 다음, 김 신부는 즉시 목선을 수리하여 준비한 다음 고 주교님과 안 신부님, 두 분을 모시고 상해를 떠나 고국으로 향하였습니다. 황해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 죽을 뻔 하였지만 나중에 무사히 강경에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그때 아마 우리 논산을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약 두 달 후에 고 주교님이 다른 신부님을 한국에 들어오게 하려고 안드레아 김 신부에게 다시 교섭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드레아 김 대건 신부는 순명하여 뱃사공들을 만나보려고 황해도까지 갔다가 마침 해주감의 압령으로 체포되고 서울로 압송되어 사십차의 심문을 당하신후 사형언도를 받으셨습니다. 재판할 때뿐 아니라 새남터에서 사형당하기 전에도 안드레아 신부님은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설교를 하셨습니다. 죽기 전, 그의 마지막 부탁의 말을 들어보시오. “여러분 나는 천주님을 위하여 죽으니 내 마음에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사후에 영복을 얻으려면 천주교인이 되십시오. 천주께서는 당신을 알아 공경치 않는 자들을 영원한 불로 벌하십니다.” 하고 형리들에게 당신을 내맡기셨습니다.

이 부지런하고 용맹한 안드레아 김 대건 신부에게 누가 합당한 칭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김 대건 신부님에게 배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을 하였습니다. “스승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천주를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뜻으로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는 가장 크고 제일 으뜸가는 계명이요. 제이는 이와 같으니 곧 남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사람은 반드시 천주님과 이웃 사람을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안드레아도 천주와 동포들을 크게 사랑하셨습니다.

본시 사람이란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아 신부님은 이와 같이 깨끗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천주님을 섬기는 바람에 큰 고통만 받으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뜻으로 이렇게 한국에서 태어나, 많은 수고 하셨으나 사람들의 미움만 받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계속하셨습니다. 욕심쟁이처럼 무엇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을 주려고, 항상 진리를 알려주려고 사셨습니다.

아! 우리도 욕심쟁이의 정신을 떠나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자기만 생각한다면 부족한 생각입니다. 천주를 더 잘 알고 공경하려고 공부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공부하십시오.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윗사람에게 얼마나 잘 순명하셨습니까?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보통사람 같으면 그만 할 텐데 안드레아 신부님은 오히려 힘이 많이 들어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위험이 닥쳐도, 수만리 걸어가게 되어도, 작은 목선으로 큰 바다를 가야 해도, 끝까지 윗사람에게 순명하셨습니다.

제군들도 착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천주님께 순명하십시오. 천주님의 대리자인 부모, 선생님에게 순명하십시오. 순명함으로써 우리 의지가 굳어지고 좋은 사람이 됩니다. 지금 순명 잘하면 이후에 으뜸이 될 수 있습니다. 순명은 가족, 사회 발전에 기반(연고)입니다. 안드레아 신부님은 또 얼마나 항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려서부터 끝까지 항상 같은 길로 나가시고 한번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항상 같은 목적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안드레아 신부님이 진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변하는 것은 아직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안다면 어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한번 진리를 알게 되면 절대로 마음이 변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합시다.

안드레아 신부님의 애국심에 대하여, 안드레아 신부님의 용덕에 대하여, 기타 아직도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로 이만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드레아 김 대건 신부님은 죽었지만 아직도 천주님 곁에 영광스럽게 살아계십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주님께 간구하십니다. 그러면 이 미사 때에 안드레아 김 대건 신부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들도 천주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도 애국심을 청합시다. 특히 착한 마음을 얻기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치명자 축일 (1070년 9월)

양화진

“누가 벗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요한 15,13)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세기에 우리 한국에서 천주교가 큰 박해를 받아 수 천 명의 순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중에 교황 비오 11세계서 79명, 바오로 6세계서 24명, 모두 103명의 순교자들이 높은 복자품위에 오르셨습니다. 복자 중에 남자가 56명, 여자가 47명이며 그중에 주교님이 세분, 신부님이 여덟 분입니다. 신자 92명의 복자 중에 제일 어린이가 십삼세의 유 베드로와 15세의 이 발바라, 17세의 이 아가다이며 제일 나이 많은 이는 79세의 류 세시리아와 71세의 김 누시아입니다.

복자품에 올릴 때 교황님께서 세계 모든 이들에게 “보라 이들은 우리를 위하여 참된 모범자로서, 천당에 있으니 중재자로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다.” 고 선언 하셨습니다. 모범자란 누구입니까? 모범자란 다만 신(信). 망(望). 애(愛) 세 가지 향주덕을 가지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무엇보다 먼저 천주님을 믿고 바라고 사랑하는 사람이니 각 성인의 신망에 삼덕은 특히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복자들의 신망에 삼덕의 오묘한 모범을 누가 다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큰 고통 중에도 그들의 신앙이 변하지 아니하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버림당하실 때와 같이 치명자들도 끝까지 천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공의 하신 재판을 안심하며 기다리셨고 죽을 때까지 그만큼 천주님을 사랑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세자 여러분! 이분들과 같은 경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천주님을 믿고 바라고 사랑하시면 그만큼 은혜를 받을 것이니 오늘부터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힘으로 또 많은 선행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치명자의 신덕 망덕 애덕에 대하여 얼마든지 말할 수 있으나 시간관계로 그들의 애덕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애덕(愛德)은 무엇입니까? 애덕은 천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덕행(德行)입니다. 그 은혜로서 우리는 만선 미호하신 천주님을 그 지선(至善)하심을 인하여 만유에 사랑하며 또한 그 천주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자기 같이 사랑합니다. 모든 덕행 중에 사도 바오로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1코린 13,13)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제일 큰 덕행이라고 하는 이유는 조물을 버리고 직접 조물주를 생각하며 그분과 함께 일치하도록 각자 노력하며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천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이유가 많습니다. 무한히 사랑 받으셔야 할 뿐 아니라 바로 사랑 자체이십니다. 모든 아름다움의, 모든 선의 근원(根源)이십니다. 예수님 친히 어떤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하신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성 베르나르도께서 “천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천주시오 ... 천주 외에 사랑할 것이 무엇인가?” 다 지나가고 다 없어지며 다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주께서 또한 영원부터 우리들을 먼저 무한히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합니다”(1요한 16,19)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기도 훨씬 전에 강생 구속을 작정하시고 천주의 일가로서 우리를 거저 올리셨습니다. 과연 어찌 우리들이 천주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 친히 이것을 제일 큰 계명이라고 첫째가는 계명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천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또한 자연입니다. 받은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중에 누가 이 착하신 천주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러 가지를 다 잘 알아들었기 때문에 우리 순교자들이 온전히 천주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외적 사랑이 아니고 오직 진실하고 완전하며 아름다운 큰 사랑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재산이나, 명예나, 자유로운 생활이나,

가족이나, 조국이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갈리지 않게 이 여러 가지를 다 버리셨습니다. 어떤 젊은 여자는 치명자가 되고 싶어서 스스로 자기를 감옥 순경에게 잡히려고 갔습니다. 어떤 이는 친족들이 와서 자기들을 위하여 배교하라고 하였으나 그 큰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천주님과 일치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높은 지위에 있었으나 주를 배반하기보다 차라리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을 더 원하였습니다.

우리 복자들이 확실한 사랑으로 천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영신과 온전한 뜻으로 큰 고통 중에도 그들이 마음의 평화를 간직한 것을 생각해 보시오.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시오. 이것이 확실한 사랑의 큰 표징이 아닙니까?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을 싫어하고 두려워하였지만 피할 수 없을 때는 용맹하게 묵묵히 다 참아 받았습니다. 우리복자 안드레아 김 대건 신부님이 사형당하기 전에 그의 마지막 강론을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나는 천주님을 위하여 사형당합니다.” 얼마나 평화스럽고 확실한 사랑입니까? 주교의 명령을 받고 복자 나 신부님, 복자 정 신부님, 두 분이 자유로이 감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함께 로마로 편지를 보내신 것을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확실하게 천주를 사랑한 것입니까?

우리 치명자들도 깊이 천주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처럼 외면적인 껍데기 사랑이 아니라 참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평화를 깨트릴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치명자들과 같이 천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잘 드리지도 않고, 대개 항상 천주님 생각 없이 지냅니다. 우리에게덕은 가끔 말뿐입니다. 왜냐하면 별 성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세하나 주지 않고, 예비신자 하나 가르치지 아니하고, 불상한 사람 도와주지 않고, 성인되려 조금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 공경하올 치명자들이여! 간절히 비오니 우리에게 천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참된 애덕을 얻어주십시오.

물론 우리들도 우리가족과 우리조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천주님을 무한히 더 크게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오직 참된 사랑으로써 우리가족과 조국을 더 크게 사랑할 것이며 또한 그 결과를 더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천주님의 사랑은 사람의 가치를 떨어트리지 않고 오히려 더 올려줍니다.